

PRSRT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 재미서울대 同窓會報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ameritech.net  
website :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 具璟會  
편집인 : 金正守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 재미총동창회 제12차 전국 평의원회의

2003년 5월 31일(토) 오전 9시

### 21개 지부가 하나의 有機的인 동창회가 될 것인가?

67명의 정원 중 42명의 평의원(대행 8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재미 총동창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제 12차 전국 평의원회의와 관련행사가 5월 30일부터 3일동안 LA의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의 Hollywood Room에서 열린다. 금년에 창립 12주년을 맞는 재미 총동창회 평의원회의의 과제는, 지금까지의 각 지역별로 다른 여건 속에 창립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21개 지부의 연합체로부터 미주지역의 7천여 동문들을 한 가족으로 하는 하나의 有機的인 조직으로 발전시

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는 동창회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을 점검하여 심의 결정하게 된다. 이번 평의원회의는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발전을 격려하기 위하여 모교로부터 정명희(의대 71년졸)부총장과 4명의 교직자와 서울의 총동창회로부터 재미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김재순 명예회장과 임광수 회장 및 8부의 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한다.

이번 평의원회는 첫날 전야 심포지움에서는, 그 서두에 최근 북한의 과학교육실태를 돌아보고 온 김기현동문의 북한 방문기가 있은 후, 세 개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그 과제

는 1)미주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재미총동창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오홍조 수석부회장 발제) 2) 역동적이며 유기적인 조직으로 가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창회의 조직과 회칙개정이 필요한가?(강경식 회칙위원 발제) 3) 2년 후의 제 8대 집행부를 이끌고 동문들과 함께 수고하실 제 8대회장 선출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박윤수 인선위원장) 등의 문제를 참석한 동문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했으며 제 7대 수석부회장으로 봉사를 자임한 3인의(이영목, 김호원 및 이진구)동문의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가 있다.

31일 토요일에 열리는 제 12차 전국 평의원회는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와 전야 심포지움에서 제기된 새로운 과제들을 심의결정하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 7대 집행부(차기회장 오홍조, 치대 56년 입)의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중 선출될 수석부회장은 3인의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평의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될 8대회장 선출자의 과제는 현재 재미 총동창회가 당면한 재정과 조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전 미주 21개 지역동창회에 속한 7천여 동문들의 無限한 잠재력을 모아, 이제 지령 110호를 기록한 "재미서울대동창회보" 발행 사업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서로 돕고 사랑하는 미주동문들이 母校를 한국의 최고대학으로부터 창의적인 學者와 人才를 기르는 세계적인 先進고등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힘을 모으고 미주사회와 조국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동창회를 발전시킬 것인가이다.

이날 마라톤 회의가 끝난 후 저녁 6시부터 열리는 미주관악후원회의의 밤에는 평의원들과 모국 순방단 미주관악후원이사 및 참석동문들이 모여 친목과 유대를 다지며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관심사를 논의하게되며, 다방한 일정에 돌고 돌고 미주지역에서 동창회의 발전에 봉사해 온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교환(交驛)하는 뜻깊은 모임이 될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제 2회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2회 특강연사로 이채진(Claremont Mckenna

College 교수, 문리대 정치학과 59년 졸)동문을 선정하였으며 이날 李동문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강연할 예정이다. 이 강연은 미국의 제 2차 이라크전쟁 종전후 다시 국제정치의 초점을 받고 있는 북한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 전반에 관하여 무력에 의한 선제공격전략을 기조로 하는 부시행정부가 펴는 대외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당면한 유효한 自主外交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참석동문들과 토론하는 우리동창회만의 행사가 될 것이다.

셋째날에는 이번 평의원회에 참석한 동문들과 남가주동창회 동문들이 참여하는 골프대회가 있고 이어, 월요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남가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서부관광이 있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7천여 동문들의 뜻있는 이번 행사를 격려하기 위하여 먼길을 온 모국 순방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진설명>**  
母校의 발전을 뒷받침하여 동문들의 열성을 모아온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의 제12차 전국평의원회의가 5월30일~6월1일까지 LA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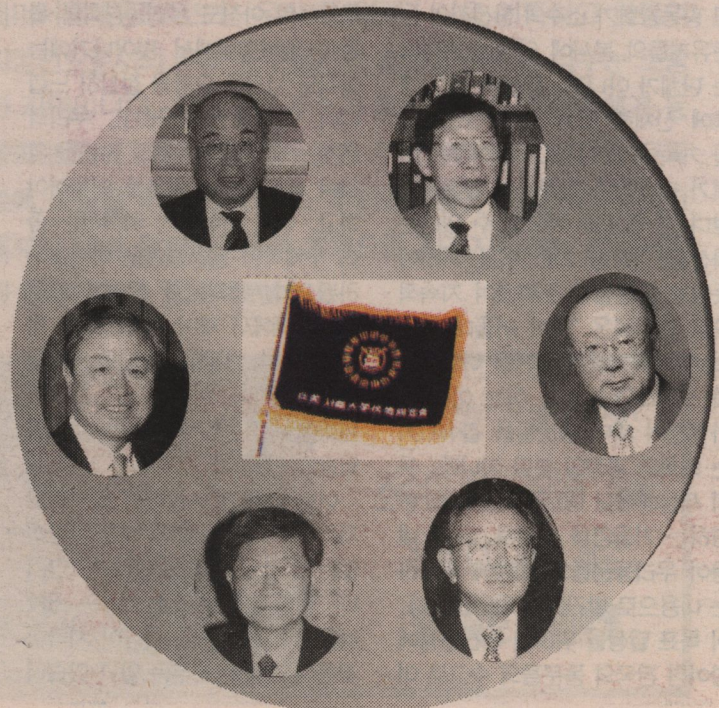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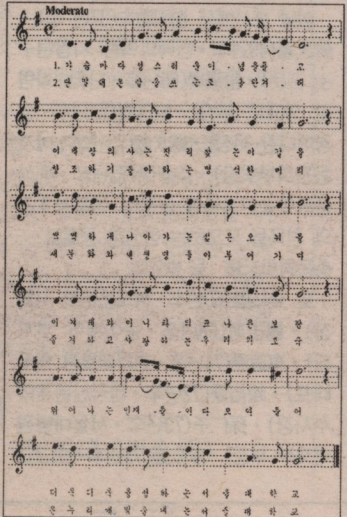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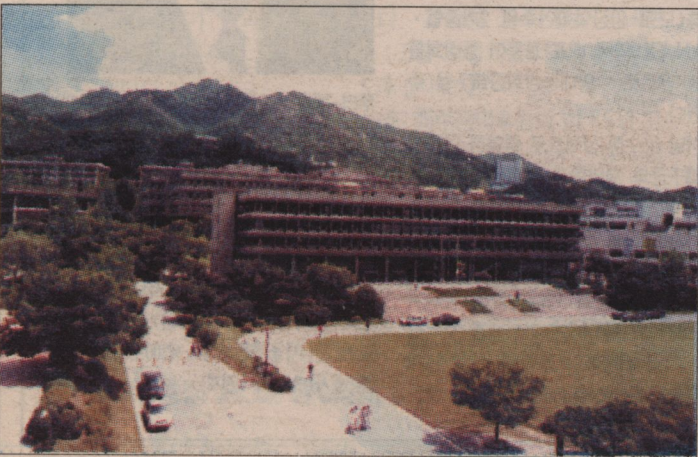


**목차**

제 1부  
총동창회 소식

제 2부  
문필과 논고 - 4면

제 3부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8면



# 12차 전국 평의원회를 맞이하며

이용락 (공대 53년졸 · 재미서울대총동창회장)

존경하는 7천여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동문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오는 5월 31일 LA에서 전 미주 21개 동창회를 대표하는 67명의 평의원과 금년에 새로이 창립된 록키마운틴즈 동



목표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질정(叱正)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동창회보의 구독료 납부자 수는 증가하여 제 6대 집행

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 12%의 독문독자의 참여율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하며 제 1차년도에 191명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전년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동문독자들의 동창회보에 대한 지원에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개척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동문들이 서로의 발전을 격려하고 熱과 精誠을 모아 母校의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제 6대 집행부의 所任을 시작하면서 우리 동창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믿는 몇 가지 일을 이루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첫째는 우리 재미 동문들이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한 家族이라는 생각 아래, 이를 기초로 하여 동문들의 동창회 활동에 대한 참여도의 증가, 둘째 재정의 자립 확립, 셋째 모교와의 공고한 유대관계의 발전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오늘의 제 12차 평의원회의가 본인이 주재하는 마지막 평의원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 목표의 현주소에 대한 본인의 소감을 평의원회에 앞서 동문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소수의 헌신적인 동문유지들의 봉사에 의하여 존속되는 단체가 아니라, 광활한 미주 대륙에 산재해 있는 모든 동문들이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를 이루는 단체가 되어야만 동창회가 발전하고 보다 큰 목표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뜻있는 동문들이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이 회보가 7천여 재미 동문들을 결속시키는 대화의 광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긍지를 반영하는 거울임을 인식하고, 그 내용이 우리동문들의 知性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발간하고 하였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편집진용에 참여한 전국의 동문들의 수고로 이

둘째 목표인 財政自立的 달성에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총동창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악후원회 이사회비와 동창회보 구독료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6대 집행부의 제 1차년도의 운영 경험으로 보아 아직도 지역동창회 별로 활동하는 지역중심주의 경향이 농후하여, 총동창회장이 선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총동창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관악후원회 이사의 수가 해마다 격감하는 현상을 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제 11차 평의원회의 전야에 있었던 Symposium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제 6대 집행부의 제 2차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역 동창회가 총동창회를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재미 총동창회의 1년 예산의 불과 6.5%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역동창회에서 부담하도록 제 11차 평의원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실천되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며 아직도 우리동창회의 활동이 地域主義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시간을 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제는 재미 총동창회의 존립을 위하여 재정자립의 목표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평의원회 전야에 있을 토론회의에서 재미 총동창회의 회칙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회칙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동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키워준 母校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를 키워준 母校 서울대학교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것을 우리동문 모두는 알고 있습니

다. 그러므로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모교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모교를 미국사회에 알리고, 서울대학교를 한국의 제일가는 대학으로부터 세계 속의 굴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동문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을 위한 첫 사업으로 시작한 "모교음대학생 미주순방 공연"이 작년에 8개 도시 9회의 공연을 통하여 2,500여명의 음악 동문 애호가들에게 관악산의 신진기예들이 가져온 화음은 우리 동문모두에게 큰 자랑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모교의 특별예산 배정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우리 미주동문들은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재학생인 후배 음악도들에게는 좋은 해외 연주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미주동창회를 활성화하는 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본인은 지난 4월중 모교 방문과 통신을 통하여 금년에도 모교 음대학생 미주 순회공연을 금년 8월경에 실시하고자하는 재미동창회의 여망을 모교의 정운찬 총장님께 피력하였으며, 정총장께서는 이를 뒷받침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모교와 미주동창회가 공동부담으로 더욱 발전된 음악회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동문여러분! 다가오는 평의원회에서 각 지역동창회를 대표하는 평의원들께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심이 결정하는 일들이 전체 동문들이 뜻을 모아 모두가 실현되어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제 12차 평의원회를 통하여 전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긍지를 양양하는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동문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합니다. 동문여러분! 가정에 이 새봄에도 가내 평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03년 5월 28일 재미서울대총동창회장 이용락(공대 53년졸)

# 자랑스런 동문들-재미동문 3인 제 13회 호암상 수상

朴弘根(90년 自然大卒), 金用民(75년 工大卒), 金城完(63년 文理大卒)



朴弘根 교수



金用民 교수



金城完 교수

재미동문 과학자 3인이 모국에서 수여하는 권위있는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보에 의하면, 호암재단(이사장 李賢宰 · 53년 상대졸)은 지난 4월 8일 2003년도 제 13회 호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과학상에 하버드대 朴弘根(90년 自然大卒)교수, 공학상에 워싱턴대 金用民(75년 工大卒)교수, 의학상에 유태대 金城完(63년 文理大卒)석좌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예술상은 영화감독 林權澤씨, 사회봉사상은 요셉의원 鮮千景植 원장이 받게 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1억원의 상금과 순금메달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시상식은 오는 6월 3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호암재단에 따르면 과학상 수상자인 차교수는 1나노미터까지 접근시킨 두 금속 전극을 분자 1개(바나듐)로 연결시킬 경우, 트랜지스터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분자 트랜지스터의 가능성을 제시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차교수는 역대 호암상 수상자 중 최연소자라고.

공학상 수상자인 김교수는 동영상과 고품질 음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영상처리 칩과 멀티미디어 디지털 신호처리기(미디어 스테이션 5000)를 개발, 펜티엄 CPU(중앙처리장치)와 NT 운영시스템으로도 슈퍼 컴퓨터급의 영상처리를 가능케 했다.

의학상 수상자인 김석좌교수는

가능성 생체 고분자 물질을 개발, 체내 대사량에 따라 약물 전달 물질로 활용되도록 했으며, 혈액응고 방지 고분자도 개발했다. 지난 83년 세계 최초의 인공심장 이식 수술에 사용됐던 인공심장 이식 수술에 사용됐던 인공심장에도 김교수가 개발한 혈액응고방지 고분자가 활용됐다. 호암재단은 국내외 각계 주요기관 및 권위자들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4개월간 걸친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면서 지난 90년 호암상 제정 이후 지금까지 모두 6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제 302호(2003. 5. 15일) 제 3면 안홍섭 기자보도

# 뉴욕 약대 동창회 후배에게 장학금 지급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繼植)는 지난 2월 22일 잠실 롯데 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동문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柳重夫(37년卒) · 韓大錫(49년卒) · 한국의약품 시험연구소 고문) · 崔鎭奭(66년卒) · 단국대학병원 약제부 부장) · 崔正樹(70년卒) · 성창메디칼 사장) · 鄭永淑(73년卒) · 여자동문회부회장) · 崔修榮(73년卒) · 前식품의약품안전국장) 동문이 동문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헌신한 공로로 총동창회장직을 받았다.

또 金裕淵(60년卒) · 여자동문회 부회장) · 韓圭興(68년卒) · 동아제약 부사장) · 車蓮澤(74년卒) · 현대백화점 약국 대표) · 趙裕燮(72년卒) · 한국산전제약 부사장) · 孫仁子(73년卒) · 서울대병원 약제부 부장) · 徐永姬(75년卒) · 모교교

수) · 林廷堦(80년卒) · 여자동문회 총무위원) · 鄭海都(80년卒) · 한국아마노우찌 제약 마케팅부 부장) · 李順孝(81년卒) · 여자동문회 편집위원) · 朴瑯浩(82년卒) · 서울대병원 약무과장) · 全順德(88년卒) ·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 金南珠(모교 임상약학연수원 2기졸업) · PANAX 약국 대표) 동문이 동창회를 빛낸 공로로 약대동창회장직을 수상했다.

이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약학과 嚴韓千군과 제약학과 承鎭善양에게 표창대 및 동창회 로고가 새겨진 벽시계를 기념품으로 전달했으며, 모교 발전기금을 기부한 崔英子(58년卒) · 李在元(67년卒) 동문과 약대동창회 뉴욕지부(회장 成善魯)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창회 산하 11개 위원회를 6개로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



부터 동창회 기금이 1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이를 기금위원회에 위탁, 운영되는 수익금은 모교 장학금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특별히 약대동창회 뉴욕지부 尹姬玉(54년卒) · 사진) 고문이 참석해 뉴욕약대 동창회가 수여하는 2백 50만원의 장학금을 모교 재학생 박석진(약학과 3년) 군에게 전달했다. <서울 총동창회보 제300호(2003년 3월 15일자) 24면에서 전재>

# 제 7대 수석부회장에 奉仕자원한 세분의 동문들

李英默(공대 63년 졸), 金好元(치대 52년 입), 李典九(농대 60년 입)

[편집자주]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를 지원하신 제 7대 수석부회장 임후보자와 이를 추천하신 동문들께 7천여 재미서울대학교 동문들은 감사드립니다. 제 12차 정기평의회를 통하여 우리 지성인들의 재

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22개 지부동창회가 하나의 有機的인 활동으로, 동문들의 발전을 성원하여 미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母校를 한국의 최고대학으로부터 세계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더

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재미서울대동창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기로 지원하신 동문 세분을 소개합니다. 소개순서는 총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 지원서가 도착한 순서입니다. <세 분의 동문들에 대한 추천서는 4면 참조>



李英默(공대 63년 졸)



金好元(치대 52년 입)



李典九(농대 60년 입)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3년 제 12차 정기 평의회 개최공고

2003년 5월 30일(금)~6월 1일(월)

LA,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7,000여 동문회원들이 母校를 高揚하고 동문들의 상호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오신 동문들과 이를 대표하는 전미주 21개 지역동창회의 평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자체 발전을 위한 관악후원회의 사업, 母校의 後進을 위한 基金 모금과 관리, 동문들간의 友情을 交流하는 場인 재미 동창회보의 질적 수준 향상, 새로운 동문들의 발굴과 각 지역 동창회간의 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체동문들의 복지증진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업에 관한 기본 방침은 평의원의 토론회와 결의에 따라 수립됩니다.

재미 총동창회 회칙 제 14조와 2002년 평의원의 결의에 따라 2003년 제12차 정기 평의원의 개최와 관련행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의원과 관련행사 일정>  
가. 전야 Symposium : 5월 30일(금) 오후 7시~10시, Hollywood Room  
- 다음 주제의 전체평의원과 동문들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

1)제 1 주제 발표자 : 김기현 동문(North Carolina Central Univ.교수),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제도 방문보고

2)제 2 주제 발표자 : 오홍조 수석부회장, 미주 이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재미 서울대 동창회의 역할정립

3)제 3 주제 발표자 : 강경식 회칙위원, 평의회 활성화를 위한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개정을 위한 회칙위원회 활동보고

4)제 4 주제 발표자 : 박윤수 인선위원회 위원장,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 제8대 회장 선출방안과 후보자 소신발표

나. 평의원 회의 : 2003년 5월 31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Hollywood Room,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3315 Wilshire Blvd. LA, CA (전화 213-381-7411) 평의회 본부 Suite 341호

다. 평의원 가족 LA 시내관광 : 5월 31일 (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라. 미주관악후원의 밤 : 5월 31일(토) 오후 6시~10시, Grand Ball Room

- 평의원, 본국 순방단 및 관악후원이사 초청 만찬

- 오후 8시부터 이채진 교수

Claremont McKenna 대학) "미국의 對韓半島정책" 에 대한 특별강연

- 오후 9시부터 동문 음악회  
마. 6월 1일(일) 골프대회 및 만찬

- 평의원, 본국 순방단 초청 및 남가주지부 동창회 골프대회 및 만찬, 6월 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소: Palm Spring Mesquite 골프장

바. 2박 3일 미서부 관광: 6월 2일(월)~4일(수) 오후 7시까지

- 남가주 동창회 주관 서부 관광 이번 평의회는 총동창회가 남가주 동창회와 협력하여 주관하는 평의원 가족을 위한 LA 시내관광과 남가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6월 2일 월요일부터 2박 3일의 서부관광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평의원님과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평의회를 위하여 임광수 본국 총동창회 회장 및 정명희 모교 부총장님 일행의 본국순방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평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가하셔서 재미서울대동창회를 위하여 일부러 멀리서 오시는 본국 순방단을 환영하여 주시고 母校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한 평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3. 3. 28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具 璟 會(의대 65년 졸) 회장 李 龍 洛(공대 53년 졸)

##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제8대회장-선출자 임후보자 공개초빙 출마의사표명 서신 5월 27일까지 제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제12차 평의회에서, 제10차 평의회 (2001.6.9, 시카고)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6인의 인선위원회 (2001.7.1일자 동창회보 제 89호 제 7면 참조)의 주관으로 제7대 집행부 임원(수석부회장 겸 8대회장 선출자와 관악부회장, 사무총장 및 감사 2인)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제 12차 평의회의 인선위원회 (박윤수, 강수상, 이병준, 오인석, 이용락 및 오홍조)는 4월 7일자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서면투표로 2003년 4월 18일 박윤수 인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차 인선위원장 주재로 제 7대 수석부회장 겸 8대회장 선출자 선거방안에 대하여 전화 및 서면회의로(2003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그 결정된 사항 (2003년 5월 6일자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문서번호 SNUAAUSA-03-079) 을 각 인선위원 및 제12차 평의원을 구성하는 67명의 평의원과 신설 2개 동창회(북키마운틴즈 및 오하이오동창회) 대표자 4명에게 개별 통지한 바 있습니다.

2003년 5월 31일 LA에서 개최되는 제 12차 평의회에서 선출하기 위하여,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발전에 봉사하실 동문들을 그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공개초빙 합니다.

아 래  
1) 임후보자는 출마의사를 표명하는 서한을 인선위원회 위원장에게 2003년 5월 27일 화요일까지 제출한다. 2) 임후보자들은 2003년 5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제 12차 정기 평의회장에서 열린 전야 심포지움장에서 출마소신을 발표한다. 3) 임후보자들은 인선위원장에게 당일 배부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한 이력서 1통, 명함판 사진 1매,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보 당회계년도 구독료를 납부한 2인 이상의 동문들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최종 출마지원서를 2003년 5월 31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인선위원장에게 접수한다. 4) 인선위원장은 그간의 위원회의 활동결과와 최종 임후보자 명부를 제 12차 평의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5) 평의회 본회의는 인선위원장의 보고를 토대로 제 7대 수석부회장 겸 8대회장 선출자를 선출한다.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12차 평의회 인선위원회위원장  
朴允洙(문리대 52년 졸)

## 동문들의 구독료로 발간되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우리 동문들의 삶을 기록하고 한국의 지성인으로서의 우리 동문들간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소중한 지면입니다. 지금까지 주소가 확인된 모든 동문들에게 동창회보를 배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문들의 성금인 구독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동문들이 취재자가 되고 필자가 되며 우리동문들의 지원으로 자조자립하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가 되고자 합니다.



"Love from Washington"

조수미 초청음악회 실황  
녹음 CD 판매 계속  
동창회보 발행財源

#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7대 수석부회장 후보자 출마서신 및 추천사

## 李英默(공대 63년졸)후보

박윤수 인선위원회 위원장님

방은호 [미주관악후원회]종신이사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추천의 말씀을 영광으로 받아드리며 만일 본인을 금번 총회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지명해 주시면 회장을 보필하여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8대 회장으로서도 그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3. 5. 21 李英默(공대 63년졸)

### ◆ 추천의 말씀

나는 이영목 현 워싱턴DC 지역 동창회장을 전 미주 총동창회 제 7대 수석부회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이 대부분의 워싱턴DC 지역 전임 회장들의 일치된 의견임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영목 워싱턴DC 지역 회장을 가까이 지켜 봐 왔으며 그가 지역 회장으로서 보여준 능력을 인정하기에 이렇듯 추천서를 올립니다. 첫째, 이영목 지역회장은 동창들의 회로애락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매 분기마다 지역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창간의 친견과 우의를 다독거리며 동창회 안건의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임원모임이라든지 연말 동창회 파티등을 주관하면서 참석인원의 규모와 내용을 크게 성장시킨바 지역 동창회를 활성화하는 그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둘째, 작년에 있었던 서울 음대전 미주 순회 음악회를 이곳 워싱턴DC 지역의 홀리스를 위한 자선공연으로 승화시키는 등의 사회봉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써 동창회를 이곳 교포들을 비롯한 이웃과 주민들에게 친숙함과 동시에 존경을 받는 열린 동창회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셋째, 작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 워싱턴 지역 이민백주년 기념사업회의 재무이사를 맡고 있으며 여러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소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단체장으로써의 능력도 입증되었습니다. 넷째, "우리들의 초상화"라는 단편소설집을 낸 것이나, 이곳 워싱턴 지역 중앙일보 "세상사는 이야기"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는 것은 그의 세상에 대한 열린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총동창회를 이끌어 갈 지도력과 "비전"이 있어 우리 조직을 경제면으로나 활동영역면에서 새로운 출발을 약속시키는 결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안으로는 동창회를 감싸고, 밖으로는 서울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보다 활성화된 동창회의 행보를 위해 의욕과 성실함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매진하는 현 워싱턴DC 지역 동창회장 이영목 동문을 확신을 갖고 추천합니다.

워싱턴DC 지역동창회 제6대회장 방은호(약대 45년 졸)

## 金好元(치대 52년 입)후보

박윤수 인선위원회 위원장 귀하

전 하트랜드 동창회장 및 현재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본인 김호원은 차기 수석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3. 5. 25 金好元(치대 52년 입) 배상

### ◆추천사

박윤수 인선위원회 위원장 귀하

먼저 지면을 통해 김호원 박사를 서울대학교 전미주동창회 제 7대 수석 부회장후보자로 추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네브라스카, 미주리, 아이오와, 캔사스, 오클라호마, 알칸소주를 총괄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하트랜드 지부회장을 맡고 있고, 네브라스카 주립대 석좌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호원 박사는 1956년 모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현재 미주 서울대 동창회 하트랜드 지부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호원 박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를 다음 세가지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박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재미한인회 총연합회 부회장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겸 연구위원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헌신적으로 공헌해 왔으며, 중서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 하트랜드 지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재미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 이사장, Kansas City 한인회장, Kansas City 의사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사회에 공헌해 왔습니다. 둘째, 김박사는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도 미주사회에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1965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국군수도통합병원 치과부장 및 박정희 대통령 치과주치의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도미하여 1980년 미주리 주립대학교에서 치과전문의를 획득하였고, 1976년부터 동대학에서 교편을 잡아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10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4월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세계 한민족 대표자회의 미국대표로 참가하여 "남북통일 후 남북한 교육문화의 과제와 진로"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셋째, 김선배님은 서울대 동문의 긍지를 더 높이는데 있어서도 남달리 노력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하트랜드 지부의 창립에서부터 현재까지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2002년에는 서울대 음대생을 초청하여 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김동문의 노고로 인해 현재 서울대학교 하트랜드 지부는 미주 여타 어느 지부보다 열성적으로 미주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또한 한인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박사가 미주 서울대학 동문은 물론 한인사회와 크게는 한미 양국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헌신할 것이라 생각되기에 주저없이 수석부회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문(상대 61년 졸, 하트랜드 지역동창회장)

## 李典九(농대 60년 입)후보

박윤수 인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인(이전구)은 제 7대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으로 출마코저합니다. 서울대 미주동문들의 두터운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며 미주동창회 사업일원인 동창회보 발행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두터운 유대관계를 맺으며 동창회와 모교발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3. 5. 27 李典九(농대 60년 입)

### ◆ 추천사

아래 서명한 사람들은 이전구(농대 60년 입)동문을 제 7대 수석 부회장(8대 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전구 동문은 뉴욕지역 동창회 제 14대 회장과 제 17-18대 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회장직과 이사장 직을 역임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왔습니다. 총동창회를 위하여서도 평의원으로서 많은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교포 사회에서도 여러 단체를 도우면서 봉사해온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입니다. 이번 제 8대 회장선출 입후보자 공개초빙에 이전구 동문을 추천하면서 그가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뛰어난 지도력을 총동창회를 성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바입니다.

2003년 5월 25일

추천인 : 김종을(사대 51년 입, 뉴욕지역동창회장), 한창섭(문리대 57년 입, 전뉴욕지역동창회 회장), 정택수(문리대 50년 졸, 뉴욕지역동창회 Golden Club 회장)

## 서울대학교 校歌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이세상의 사는 진리 찾는 이 길을  
씩씩하게 나아가는 젊은 오뉴들  
이 겨레와 이 나라의 크나큰 보람  
뛰어나는 인재들이 다 모여들어  
더욱더욱 융성하는 서울대학교  
단일해온 말을 쓰는 조출한 겨레  
창조하기 좋아하는 명석한 머리  
새문화와 새생명을 이루어가며  
즐거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뛰어나는 인재들이  
다 모여들어  
온누리에 빛을 내는 서울대학교

##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 북한난민 구제활동을 제창하며/윤상래의 11인.. 5
- 덴버에 온 음악의 천사 조수미/김봉전.. 5
- 북한 학계발 현황/윤희경.. 6
- 노무현과 부시의 만남/김재순.. 8
- 기독교 聖經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김종원·현충원의 오후/김항자... 8
- 환춘원 시절/박취서.. 9
- 아내의 짝사랑 타히티/오태희·음악을 통한 문화활동과 세계평화/서병선.. 10
- 사랑 3제/이태상.. 11
- 비타민 C 신화의 내려/김일훈.. 12
- 구한말의 개혁 독립투사 서재필/김일훈.. 13
- 룩키산맥의 동창들과 다시 만나면서/류광현.. 14
- 스승·제자 3대가 다시 쓰는 책/조순·정운찬·전성인.. 14
- 지역동창회의 활성화와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김호원.. 15
- 선배들의 마라톤다 열정적인 시애틀동창회/고희선.. 18
- 동창회 송년 모임일 기다리며/방은호·워싱턴 DC 동창회의 흐름/백순.. 18
- 비버처럼 다정한 오래된 동문들/박정성.. 19
- 우정의 필라 동창회/주기목.. 20
- 담미학원과 구당 유길준/박경민.. 21

## 祝發展

###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12차 정기 평의원회의를 통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는 7천여 동문들이 모인 22개 지역동창회가 하나의 有機的으로 기능하는 조직으로 재미서울대총동창회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꾀려하기 위하여 먼길을 오신 母校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순방단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同門들의 발전을 지원하며 미주韓人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母校를 세계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재미서울대총동창회의 제 8대 집행부를 이끌 旗手로 奉仕를 자원하신 세분의 동문들께 7,000여 동문독자들은 감사드립니다.



# 北韓難民 구제 활동을 제창하며

## 同門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우리의 韓民族은 5천년전 단군왕건의 고귀하신 혈통을 이어 받은 단일민족으로 같은 언어와 생활풍습, 그리고 같은 문화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매우 특별한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건데는 불행히도 무지한 임금이나 무능한 위정자의 실정으로 국력은 약해졌고 그로 인하여 여러 열강들의 침략과 압박을 너무나도 번번이 받아왔으며 근대사에 이르러서는 일본제국의 잔인하고도 치욕적인 36년이라는 긴 세월의 압제정치 밑에서 굴욕과 살상을 받았으며 조국광복 후에는 38선 내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서 남북으로 갈라서는 역사의 비극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다행히도 南韓은 민주주의와 진보적인 경제정책으로 급속한 성장을 한 반면 北韓은 공산주의의 탄압정책과 봉쇄적인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그 국민은 기아선상에 헤매고 있는 바 지난 10여 년 간만 해도 1-2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취재 보도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거의 20억불에 도달하는 물질적 원조를 주었던 바, 그로 인하여 얻은 것은 핵무기의 위협일 뿐, 그 원조가 국민생활을 더 낮게 한 것이 아니고 다만 탄압을 더 초래하였다는 보도를 우리는 듣고 있을 정도로 북한 동포의 생활은 그 상상을 불허하

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정치와 경제상태를 도와주고자 많은 북한의 동포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무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세계 인권 옹호 단체의 보고입니다. (Human Rights Watch의 website인 <http://hrw.org>에 실린 "Invisible Exodus"를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북한을 벗어난 난민들을 기다리는 것은 동포(중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의 냉대와 낮은 타국(중국)의 싸늘한 인심일 뿐, 실형 운이 좋게 거처를 찾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난민들은, 남자는 보수도 없는 노동을 하는 것이 예사이며, 여자들은 인신매매, 강제 결혼, 성적 노예로 전락하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바 中國은 1982년부터 1951년 UN 난민지위협약과 1967년 난민의 정서의 회원국으로 난민들을 보호, 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관리에 따른 재정부담을 피하고 북한 정부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난민들을 적발, 체포, 고문을 하고, 돌아가면 처형이나 종신 노동수용소에 유배되는 등의 뻔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는 등의 非人權적인 처사를 자행하고 있으며 南韓 정부조차도 이에 대해서 묵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모교인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우리는 자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우리와 한 핏줄의 동포들이 고통과 死境속에서 헤메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하겠으나, 중국으로 밀입하여서 어려운 생존을 하고 있는 우리의 북한 난민들은 우리가 도울 수 있으리라 믿어 여기에 그 방법을 열거하여 봅니다.

첫째, 대외적인 북한 난민 구제운동을 편다:

- 1) 유엔 난민기구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여 북한 난민들이 국제적인 법적보호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UN산하의 임시 수용소 설치 추진한다.
- 2) 1951년 UN 난민지위협약과 1967년에 체결된 난민의정서에 의거 중국 정부가 탈북난민을 구제, 보호하도록 중국정부, 주미 중국대사관과 각 지역 영사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 3) 북한 난민의 참담한 실정을 각 지역의 미국 상,하원의원에게 전달, 인식시켜 탈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미국 정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 4) 한국 정부에 강력한 제의를 하여 북한난민 구제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우리 동창회 자체의 난민 구제 운동을 편다:

- 1) 지역동창회를 통하여 미국 내에 산재하여 있는 종교단체(교회등)를 접촉하여 난민구제 모금운동 전개

2) 지역동창회를 통하여 한인사회와 난민구제 모금 운동 전개

3) 지역동창회를 통하여 동창회자체 내의 난민구제 모금운동 전개

셋째, 세계인권옹호단체를 접촉하여 우리가 난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한다:

- 1) 현금 송금
  - 2) 난민 실태보고 및 구제 활동보고
- 탈북난민문제는 지난 3,4년 전부터 북한의 기근(饑饉)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하게 표면화되어 왔으며, 현재까지의 미국내에서의 그 구제활동은 대부분 워싱턴 DC 지역의 교육기관(대학) 및 종교단체(교회)등의 한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개되어 오고 있으나, 재원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탈북난민들의 처절할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구제운동의 필요성과 도움이 급박히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그 발족 이래 여러 난관을 뚫고서 오늘에 이르는 훌륭한 시민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명실공히 우리가 조국을 위하고 한민족의 선두가 되는 "올바른 일"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명실공히 우리 동창회를 살아있고, 보람있는 한인사회의 모범이 되는 단체로 이끌어 가는 요체가 될 여기에 적으며, 여러 동문들의 솔직한 양심에 호소하여 함께 난민 구제 운동에 동참하기를 권유하며 이를 위하여 탈북난민 구제를 위한 조직초안을 제의합니다.

2003년 5월 28일

윤상래(수의대 62년 입), 박경민(의대 53년 입), 이재신(공대 57년 입), 정정욱(의대 60년 입), 윤희경(문리대 62년 입), 윤용훈(공대 67년 입), 김동희(간호대 62년 입), 홍지복(간호대 70년 입), 이강원(공대 66년 입), 한병의(문리대 60년 입) 강경식(문리대 55년 입), 변종원(공대 77년 졸)

첨부: 탈북난민구제 위원회 조직안 (초안)

★ 가칭 "재미서울대학교동창회 탈북난민구제 위원회"는 그 조직으로 議長 1인과 3개 小委員會를 구성하며 각 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외활동 소위원회
  - UN 기구 접촉 ● 중국정부, 대사관, 영사관 등의 공관 접촉 ● 미국의 상,하의원 접촉: 각 지부 동창회 ● 한국정부, 대사관, 영사관 등의 공관 접촉
2. 재미서울대학교 자체난민구제 활동 소위원회
  - 각 지역 종교단체 접촉. 각 지역 동창회: Slide shows, 강연, etc. ● 한인사회 접촉- 각지역동창회 ● 동창회 자체내 현금운동-각 지역동창회
3. 세계 인권기관과의 연락소위원회
  - 기금 보낼 곳 선정 ● 기금 사용 내역과 구제활동보고

# 텐버에 온 音樂의 천사 조수미

김봉전 (공대 68년 입, 록키마운틴즈 동창회장)

5월 13일 밤에 텐버시의 뵈쳐 음악홀에서 열린 조수미 텐버 초청음악회는 교민 역사상 기록을 갱신하는 많은 청중을 동원하고 성황리에 끝났다. 평소애 뵈쳐 홀의 음악 공연, 주로 폴로라도 심포니 교향악단을 위주로 오페라 및 발레이 댄스 등의 음악 공연을 가끔 관렷했지만 이번처럼 많은 한국 교민이 참석하란 적은 목격 한 적이 없다. 사실은 2,600석의 이 音樂堂은 한국 교민의 참석은 거의 없는 것이 평상시의 모습이다. 텐버에서는 조수미 공연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뜻 깊은 공연이 되었다. 본인은 평소애 누구 못지 않게 고전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즐겨왔으며 특히 조수미씨의 음악은 그동안 음반으로만 들어오다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기에, 그리고 기대를 훨씬 넘는 감격적인 공연이었기에, 전문 음악 평론가가 아니지만 두서없는 칭찬글을 이 자리에 나누어 보고자 한다.



연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노래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목소리 음색의 아름다움과 콜로라투라 기법과 음악의 심미적(Aesthetic) 표현, 무대 연기력, 그리고 이날 입은 의상과, 또한 피아노 반주자 빈센조에 대한 배려 및 짧은 바이얼린 특별 연주자 오주영에 대한 따뜻한 격려가 보여주는 조수미의 따뜻한 가슴과 인간미의 성숙등은 음악의 마에스트로서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 있는 그 무엇이, 바로 天使로 느껴지게 된다.

이 날 조수미씨의 첫 번째 곡목은 일명 "Twinkle, Twinkle, Little Star"로 잘 알려진 주제와 4개의 변주곡과 카덴자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은 인간의 목소리를 마치 다른 어떤 악기와 다름없이 연주되기를 요구하는 성악의 기교를 요구하는 곡이며, 엄청난 게 넓은 음역과 순식간에 높고 낮은 음역으로 이동을 하며 각종 트릴을 하는, 스위 콜로라투라 기법의 고난도 음악이다. 조수미씨는 이 음악을 마치 이날 공연의 조율 연습인 것처럼 아주

쉽고 편안하게 들려줌으로써 그의 coloratura 소프라노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Villanelle(북가)에서는 풍부하고 서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였다.

두 번째 그룹의 곡들은 가벼운 뮤지컬과 재즈풍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 순회 공연의 폭 넓은 층을 수용하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조수미씨는 세계 정상급의 오페라 가수로서의 성악 뿐 만이 아니라 역시 걸 맞는 무대 연기도 보여 주었다. "Once Upon a Dream of Jeckyll and Hyde"(by Wildhorn)과 "My Fair Lady"의 "밤을 세고 춤을 출 수 있었다"(Loewe 작곡) 등을 평온한 태도와 화사하고도 풍부한 표현으로 또 다른 음악 장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간 휴게시간 직전의 마지막 곡은 특별 출연으로 바이얼리니스트 오주영의 연주가 있었다. 오주영은 이제 21세로, 줄리아드의 최고의 바이얼린 교수인 도로서 딜레이 등의 私事를 받았고, 11세부터 세계 각국의 우수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정상 음악인으로 촉망을 받는 한국의 희망주이다. 그는 연주시 삼성재단에서 세계적인 名器 스트라디바티우스를 지원 받고 있다. 이날 연주한 사라사테의 작곡 칼렌 환상곡 25번을 오주영은 뛰어난 기법과 열정적인 연주로 매

력적인 선율을 선사하여 청중들의 감정을 받았다.

휴식시간 이후에는 한국 가곡들이 연주되었다. 첫 번째 동심 초에서는 중간에 약간의 음정 조정상의 어려움이 있는 듯 하였는데 아마 1마일 高度의 텐버에서 산소 감증을 겪지 않았나 싶다. 2번째 곡인 김동진의 "가고파"에서는 느리고 鄉愁를 불러일으키는 서정적인 표현을 잘 했고, 3번째 이흥렬의 "꽃 구름 속"에서는 조수미의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4번째의 "아리 아리랑"은 이 역시 콜로라투라 곡으로 조수미는 전혀 무리없는 목소리의 호트러질이 없이 그러나 절제된 熱情을 풍부한 음성에 실어 모든 청중들의 열광적인 감정을 받았다.

다시 특별 연주자 오주영의 비탈리의 삭콘느 G단조의 연주가 있었다. 이 곡은 느리고 장중하며 우수에 젖은 음악으로 연주기법도 요구되지만 보다 더 음악을 예술적으로 해석하고 그를 표현해야 하는 곡인데 오주영의 연주는 완벽하게 이 곡을 해석하여 청중의 환호를 받았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그룹에서는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오페라 이야기들 중의 "인형의 노래"가 먼저 연주되었다. 등뒤에 달린 손잡이로 태엽을 감으면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인형의 노래로 우스우면서도 경쾌한 음악을 아름답게 노래했다. 이날 공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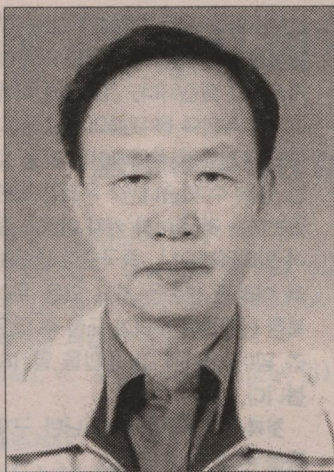
대미로 스트라우스의 '봄의 왈츠'를 열창하였다. 반복되는 모음부와 저음부 사이의 신속한 이동이 왈츠의 율동을 타고, 화려하고, 가벼우면서도 우아하게 표현되어 콜로라투라의 창법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열광하는 청중에 대한 답례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섬세하고 화려한 熱情으로 노래했고 "Amazing Grace"에서는 청중들의 흥에 겨워 내는 배경음(background humming sound)으로 극적인 무대가 되었으며 맨 마지막 제창곡으로는 "보리밭"의 청중과의 중창으로, 이곳 록키마운틴의 텐버일대 지역 교민들의 가슴에 깊은 마음의 연결을 심고 끝났다. 이번공연을 계기로 텐버에서도 더욱 잦은 조수미의 공연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이날의 피아노 반주자 빈센조는 세계정상급의 성악가들의 단골 반주자로 조수미의 연주에 함께 호흡을 같이하며, 훌륭한 공연에 기여하였다. 우리는 이날의 공연을 주관한 중앙일보사에 감사와 치하를 보낸다.

이날 텐버시를 처음으로 공연차 온 조수미 동문을 환영하기 위하여 록키마운틴즈 동창회는 본인과 유광현(문리대 불문과 58년 입), 고길산(약대 69년 입)과 배병욱(음대 58년 입)등 문 등이 모여 꽃다발을 전달하였고, 우리동문들은 자랑스런 조동문의 공연으로 이날 더욱 뿌듯한 긍지를 느꼈다.

# 北韓核 개발 현황

尹熙卿(문리대 66년 졸)

<편집자주> 필자는 문리대 化學科를 졸업한 후, 空士 敎官으로 복무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원으로 재직후 渡美하여 University of Detroit에서 化工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Rockwell International 과 Ford Motor Company를 거쳐 Johnson & Johnson에서 Senior Research Fellow로 재직하였다. 이 글에서 尹박사는 미국언론의 官邊의 보도와는 달리, 北韓核開發의 技術의인 측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北韓核 위협의 實體 규명을 시도하고있다.



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거론하였다. 북한은 연료봉을 원자력에서 꺼내기 시작하고 (Pu를 추출하겠다는 암시), IAEA 회원가입 철회를 선언함으로써 남. 북이 각각 전쟁을 준비하는 6.25 사변 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카터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金正日 主席을 방문, 극적 타결을 보았다. 그 내용은 북한은 IAEA 요원을 배출하지 않고 영변의 핵 시설 동결에 동의하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하며 제3차 北·美 회담을 갖기로 약속한 것이다. 김主席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한 사망으로 예정된 남. 북간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Ⅲ】北·美 합의서와 북한의 핵 역량 평가

김정일을 새 영도자로 맞은 북한은 제네바에서 제3차 北·美 회담을 가져 1994년 10월에 역사적인 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에 서명함으로써 "北核危機"를 평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基本合意書의 주요 내용은 1) 북한은 모든 핵시설의 가동, 건설을 동결하며, 미국은 북한에 두개의 100만KW 용량의 輕水爐를 건설한다. 첫 경수로 완공은 2003년을 목표로 하며 건설 완료 시까지 50만 톤의 중유를 매년 공급한다. 경수로 건설비는 20년간 無利자로 상환한다. 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 정상화에 노력한다. 3개월 이내에 交易와 投資 장벽을 낮춘다. 외교 정상화 첫 단계로 연락사무소를 가지며, 점진적으로 大使級으로 관계를 높인다. 3)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북한과 남한은 대화를 시작하고 남, 북 비핵화선언을 한다. 4) 양측은 NPT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북한은 NPT 회원국의 자격을 유지한다. 이 합의의 骨子는 北韓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적, 외교적 대가를 얻고 美國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凍結한다는 것이었다.

輕水爐 建設사업을 위해 "韓半島에너지기" (Korean Penin-

sular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를 설립하고 경수로 사업비 총액 46억불 중 한국이 32억, 일본이 10억, 나머지는 10여개국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합의서 이행은, 북한으로 볼 때 매우 지지 부진하였다. 첫 원자로 건설은 2003년이 목표였으나 그 완공이 2009년으로 지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기대하던 정치적 경제적 혜택도 전무한 형편이었다. 한편 미국이 북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유일한 이유인 핵개발은 완전히 동결되어 있는 실정이 되었다. 더욱이 클린톤 퇴임 후 2001년에 집권한 부시행정부는 합의서 자체를 공갈 협박(脅迫)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을 과묵기 사용 표적 국가중의 하나로 삼고 더 나아가 "惡의 軸"의 一員으로 몰아 이라크 다음의 政權전복 대상국임을 시사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와중에 北韓이 결정적 失手(?)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현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인도와는 앙숙인 파키스탄이 개발한 핵탄두를 인도까지 쏘아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에서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파키스탄이 개발한 濃縮 技術과 교환 할 것을 북한이 수락한 것이다.

美國은 북한이 1998년부터 파키스탄에서 濃縮 技術을 도입한 증거를 포착하고, 작년 10월 미 외무 차관보 Kelly를 평양에 보내 비밀 핵무기개발 실행은, 1994년의 북미합의서의 기본원칙에 명백한 違反이므로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 危機를 구성하는 핵심적 쟁점인 Kelly 방문시의 北·美간에 가진 정확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美國은 북한이 자체로 핵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北韓은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2003년 4월 11일 Harvard 대학 주최 北核 學術대회에서 Washington Post 기자 출신으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Oberdorfer는, Kelly와의 직접 대화에서 당시 北韓은 이 문제에 否認도 承認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이 하버드대학의 학

술대회 내용에 관해서는 웹사이트 www.koreaconference.org 참조].

日本과 中國 측 소식통도 같은 견해를 표시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공식적으로는 농축기술을 북한에 이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002년 11월에 미국이 重油의 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은 IAEA 감시권 축출과 핵시설 凍結 확인장치를 제거하였고, 금년 1월에는 NPT 탈퇴를 선언하고 "영변 2호"를 再稼働 하였다. 또한 2004년도 미국 예산에는 KEDO 출연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가 死文化 되었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비량 끝 전술과 미행정부의 대화 거부로 한반도의 위기가 점차로 고조되고 있다.

美國의 모든 言論은 북한이 한 개 내지 두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정 사실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확실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변 2호"의 원자로의 用量(연료량)과 총 稼働 時間에 의거하여 生成될 수 있는 Pu양을 이론적으로 추정된 듯 하다.

1994년 핵동결 직전, 클린톤 행정부는 북한의 핵보유에 관해 상반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 즉 CIA는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국무성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에 가장 많이 기여한 러시아는 북한은 핵탄두가 없다고 믿고 있다.

Pu핵폭탄은 U핵폭탄보다 고도의 제조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어, 북한이 아직껏 핵폭발 실험을 실행한 적이 없으므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제조기술 정도에 따라 핵탄두 한 개 제조에 소요되는 Pu양도 크게 달라짐으로 추출한 Pu양을 근거로 보유핵탄두 수를 추정(推定)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1~2개 보유설은 最惡의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1945년 미국이 나가사키에 투하한 "Fat Man" 이라 명명된 원자탄은 약 6kg의 Pu로 제조된 것으로 21,000톤의 TNT에 상당하는 破壞力으로 45,000명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7면에 계속>

### 【Ⅰ】북한의 핵발전 시설의 실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北韓의 핵위기는 7천만 韓民族의 역사상 큰 전환점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번의 미국의 대이러전쟁 종전 이후 다시 국제적 긴장에 근원으로 대두되는 북한 핵문제는 북한이 自力으로 1986년에 건설한 5000Kw 용량의 소형 原子爐 "영변 2호"와 관련된 것인데, 이 원자로의 소월의 詩 "진달래 꽃"에 나오는 평안북도 영변에 위치하고 있다. 南韓에 있는 16개를 포함하여 전 世界에는 현재 400개 이상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한의 원자로 영변 2호가 문제가 된 이유는 원자로가 동시 연료봉(燃料棒)에서 副產物로 생성되는 플루토늄(Pu) 239 (질량수=양성자수+중성자수)를 추출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 소유하였으리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원자로의 핵폭탄의 폭발 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원자핵의 분열반응을 조절함으로써 반응시 생성되는 열로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하거나, 醫療用 방사능 원소를 만드는 등 주로 평화적인 용도로 쓰인다. "영변 2호"의 연료는 천연 우라늄(U) (0.7%의 방사능 U 235 과 99.3% 비방사능 U 238의 혼합물)을 쓸 수 있어, 북한이 연료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南韓의 원자로의 輕水爐이며 이는 爐의 열(熱) 전달매체가 보통 물인 輕水(重水는 수소원자가 질량이 큰 동위원소로 되어 물의 질량이 큼)를 쓰기 때문에 불인 이름이다. 경수로에 쓰이는 연료에는 방사성 U235의 함량이 3.5% 정도 되어야 한다. Pu와 더불어 90%이상의 고순도의 U235도 핵폭탄 제조에 쓰이며 천연 우라늄으로부터 그 함량을 높이는 분리공정, 즉 우라늄농축을 하여 생산한다. 보편적인 농축방법으로는 천연우라늄을 불소와 반응시켜 U235과 U238을 각각 불화우라늄으로 바꾼 후 이 두 기체의 질량 차이를 이용하여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것이다.

### 【Ⅱ】北韓과 핵非擴散 조약

北韓은 1985년 핵비확산 금지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로부터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南韓에 배치된 핵무기의 철거, 韓·美 합동군사훈련 (Team Spirit) 중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금지확약 등의 요구 조건을 들어 1991년 말까지도 북한은 그 협약의 가입을 거부하였다.

북한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남한은 1992년도 韓·美 군사훈련 중지를 약속하고, 南, 北간 "韓半島 非核化 선언"을 하였다. 1992년 초 뉴욕에서 가진 北·美 협상을 통하여 체제의 안전 보장을 받고 북한은 IAEA와 사찰 협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5월에 시행된 IAEA의 사찰 결과 북한이 IAEA에 보고한 것 보다 많은 Pu 추출(抽出)을 실행한 의혹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IAEA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다른 핵시설의 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그 곳이 軍事施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IAEA는 강제적인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협약에 의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는 "武力挑發"에 해당한다고 협박하고 NPT 조약철회를 선언하여 위기를 조성하였다. 1993년 6월 뉴욕에서 가진 제1차 北·美 회담을 통하여 양자간의 협상을 계속한다는 조건하에 북한이 NPT의 철회를 보류하면서 이 위기를 넘겼다. 7월에 가진 제2차 北·美 회담은 북한이 미국에 輕水爐 建設등을 요구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이 끝났다.

두 번에 걸친 회담을 통하여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사찰에 합의할 수 없게 되자 IAEA는 유엔



영변발전소는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가?

<북한핵 6면에서 계속>

[IV] 北核문제에 대한 北政策

北韓은 공산권의 몰락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감소로 經濟가 지난 수년간 매년 축소되었고 天災地變으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수요의 삼분의 일인 백오십만톤을 매년 외부에서 수급되어야 하고, 發電량도 남한의 십오분의 일 밖에 안되어 양수기조차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안은 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군사적으로 정권교체를 추구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북·미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북·미간의 兩者 직접 협상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현재 미국과 북한이 전쟁 상태로 되어 있는 휴전협정을 대체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국이 북한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어 체제 보장을 얻는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 유엔주재 北韓대사는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에서 경제적 利得을 전혀 추구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는 점도 주목할 만점이다. 북한은 미국이 '악의 축'의 하나로 선언한 것은 침략을 위한 前奏曲이어서 미국과의 직접협상이 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美國의 對北韓 安保政策의 根幹은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이후 미국은 합의서를 위한 북한에게 새로운 협상을 통하여 또 다시 利得을 주게 될 수 있는 兩者간 직접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는 동아시아 지역 문제임으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인접국가와 함께 多者間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미국은 兩者회담이 지지부진할 경우 한국등에서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고 그 부진에 대처할 좋은 방도도 마땅하지 않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北韓이 협정을 재차 위반할 경우 독자적으로 무력을 행사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多者間에 의한 합의일 경우, 북한의 불이행시 유엔을 통한 제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미 행정부는 불가침조약의 체결 반대 이유로 미상원에서 인준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 영향력 있는 바이든 의원은 행정부가 案을 상원에 보내면 99% 인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조약 체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현 부시행정부의 對外 강경정책은 신보수파(Neo-Conservative)라고 불리는 강경우파인 Chenny, Rumsfeld, Wolfowitz(국방차관), Rice(국가안보 보좌관)등이 주도하고 있기 때

문이다. 대북 강경노선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로 클린턴 행정부 때에는 미국무성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와 定期的인 대화를 가졌으나 부시행정부는 지난 2년간 일체의 대화를 단절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현 행정부의 기본 국방전략은 2001년 초에 의회에 제출한 비밀문서인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엿볼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간의 미국 핵무기전략과 그 전력태세를 다루고 있다. 1990년 이전 冷戰시대의 美國의 유일한 敵手였던 蘇聯의 핵위협에 대비해 중점을 둔 봉쇄전략(containment policy)은 21세기 유일한 超強大國이 된 미국의 국방 외교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특히 9·11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害를 가할 수 있는 敵은 하나가 아니고, 그 공격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軍事力도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은 다양한 적에 모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핵무기의 개발과 실험의 계속은 물론 특수 용도의 재래식 무기, 예를 들면 無人전투기, 공중발사 順航 미사일 등도 함께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서는 北韓을 中國등 다른 6개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 공격 표적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그 國防費가 미국 다음의 군사 강대국 8개국의 軍費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이며, 대화를 통한 外交보다 막강한 軍事力에 바탕을 둔 대외정책을 펴고 있다. 한편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적에 대처하는 전략을 다룬 '대량살상무기 대처전략'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에서는 종래의 전략인 공격을 받은 후 몇 배의 더 큰 보복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점을 敵에 인식시키는 단순한 抑制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武器를 먼저 쓰지 못하게 막으며("Deny") 또한 그 流通을 차단("Interdiction")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 國益에 필요하면 일방적인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美國은 이러한 국방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러 국제조약에서 탈퇴하거나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소련과 맺은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에서 탈퇴하였고, 핵실험금지조약인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와 Genocide 등 인간의 근본 권리에 대하여 흉악한 죄를 범한 범법자를 다루도록 한 로마협약(ROME ACCORD)이라고 불리는 국제형사법정(IN-

TERNATIONAL CRIMINAL COURT) 그리고 탄산가스의 대기 방출을 제한하려는 동경협약(KYOTO PROTOCOL) 등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V]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對應 韓半島의 주변국들은 對話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 中國은 북한에 대하여 식량원조의 40%, 석유의 70%를 공급하는 등 가장 큰 영향력이 있어 미국의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1,000억 불의 黑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한편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무력도발 등 최후 수단을 쓰거나, 혹은 자생적으로 붕괴되면 2백만의 북한 難民이 만주로 피난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처신이 어려워 北·美 양자간의 직접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 현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져 중국이 군비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위험도 있다.

日本은 북한의 핵개발은 절대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고, 多者間 협상안을 지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하여 북한과 새로운 합의를 구상하고 있다. 일본인 북한 피납자의 현실이 밝혀짐에 따라 일본 국내의 대북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서 북한이 요구하는 賠償金 등 경제지원이 핵 문제 해결 전에는 불가능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전역이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들어 동해에 미사일 요격선을 파견하고 미국과 협조하여 미사일 요격망의 설치를 추진하고, 인공위성을 통한 북한 감시등을 강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 전에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다 상실하여 北美 兩者간 협상의 중개자로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나 진전이 없다. 러시아는 한반도와 연결되는 철도망과 연해주 등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한국, 나아가 일본까지 공급할 수 있는 가스관의 설치를 위한 27억불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어 한반도의 사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력이나 제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당초에 추구하던 北·美 兩者회담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多者회담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뚜렷이 알려진 타결책은 없으나, 北韓과 美國간의 깊은 不信으로 일괄 타결은 힘들어, 상호주의적 방법을 추진할 것이다.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의 주한 美大使 Mr. Laney가 제시한 타결안과 유사

하리라 짐작된다. 이 案은 먼저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이 되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전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한다. 다음으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고 일체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중단, 포기하고 약간의 경제원조를 받는다. 이어서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 군사력을 감축하며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대일 보상을 받기 시작한다. 남.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며 유럽이 참가하여 두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러시아와 중국도 함께 경제원조와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北·美 불가침 조약을 하지 않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과 미국이 새로운 경제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 다분히 미국의 현 입장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VI] 맺는말

이 危機의 해결 관건(關鍵)은 과연 무엇인가? 필자는 對이라戰 勃發 전에는 北韓의 의도가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거나, 혹은 對外 협상수단으로 핵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체제보장과 경제 및 정치적 보상과 바꾸려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만약 북한의 의도가 後者이면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과거 세 차례의 위기해소 방안과 같이 북·미간의 직접협상을 통하여 북한의 안전 보장을 미국이 약속하는 형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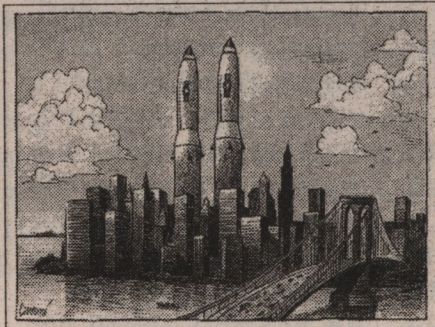
그러나 부시정부는 이번 이라크전쟁에서 보인 바와 같이, 대량살상무기 보유와는 상관없이 유엔 결의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先制공격을 하여 후세인 政權을 전복시켰다. 따라서 현 위기의 최종 해결 방향도 북한의 핵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시행정부의 향후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정책 선택을 놓고 내부적으로 심히 兩分되어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신보수파인 매파가 북한이 '惡의 軸'의 一員 이므로 핵무기와 상관없이 무력으로 정권을 바꾸려는 정책을 추구하면, 한반도에서의 全面戰은 불가피하게 된다.

단지 미국의 북한에 대한 武力 사용은 이라크전의 경우와 같이 용

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무력 사용 정책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그 이유는 공격목표로서의 북한핵 시설에 대한 情報 미비와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북한의 철저한 방어망 시설 외에도, 미국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에 필연적으로 따를 남한과 일본에 대한 가공(可憐)할 만한 北韓의 報復力이다. 軍事分界線(DMZ)에 숨겨진 長距離砲 11,000문과 2,500개의 多發 로켓트는 한 시간에 50만 발의 포탄을 서울에 퍼부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군사전문가들은 전쟁 개시 90일 이내에 민간인 백만명, 美軍 십만의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美軍의 일본 주둔을 이유로 100개 정도의 보유로 추정되는 "노동미사일"을 日本으로 발사하여 일본을 전쟁에 끌어들이 수 있고, 이는 세계 2위의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등 동아시아 경제의 심한 침체로 이어져 世界經濟에 미칠 파장은 크고 오래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韓半島 전문가들은 戰爭 발발의 가능성을 半半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참화가 일어난다면 7천만의 한민족이 바라던 統一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를 수 있을지 모르나, 지난 30년간 이루어 놓은 경제적 발전을 한 줌의 잿더미로 바꾸어 놓아 韓民族 전체의 悲劇이 될 것임으로 모든 수단과 지혜를 모아 이를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백만 미주 한인 모두는 미국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도록 촉구하는데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바라는 평화적 해결책은 美國은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을 武力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北韓은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포기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확인할 수 있는 검증에 응하고, 한국을 위시한 주변국은 북한이 겪고 있는 食糧難의 단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교역을 증대하고 시설, 생산 투자를 약속하는 것이다. 금번 한반도 위기가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북한 체제 개선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전회위복(轉禍爲福)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帝國의 平和정책은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화원작지는 시카고대학의 알려져 있지 않은 학부학생임.>

# 노무현과 부시의 만남

김재순(51년 상대졸 · 서울대 총동창회 명예회장)

노무현과 부시의 만남-그런대로 별 잡음없이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미국을 찾은 것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조야에서는 '반미주의자'라는 선입감이 없지 않았다. 회담을 마치고 나서 한 부시 대통령의 말 "피차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대였다" 이렇듯 꽤 인간적인 정다운 평을 내렸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람도 많았으리라.

태평할 때 난(亂)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등소평이 한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결코 태평일 수 없고 매일 매일이 난세(亂世)처럼 어지러운 터이다. 이럴 때 한미 수뇌 회담을 보는 눈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동서고금의 역사는 우리 한

반도를 아시아의 폴란드라 했다. 즉 전략적 요지라는 뜻이다. 전략 없는 나라는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일까.

"전략이 필요한 것은 확실한 우선 순위다" 이 말은 키신저의 말이다. 그는 또 "우선 순위를 감정(好不好)이 아니라 이해관계(利害關係)의 타산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가 이익의 무한 추구의 연장선상에 외교(外交)가 있고, 제 나라의 국익이야말로 외교를 측정하는 잣대이다. 현실적으로 전략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우선 순위로 어떤 목표를 먼저 설정할 것인가. 오늘날의 세계 추세를 바로 봐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



결정적 주요성 등.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가가 가장 부심해야 할 문제는 민족주의-내셔널리즘의 관리(管理)이다. 이것에 실패하면 지난 날의 일본이나 독일의 전철을 밟게 된다.

회담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그리고 한미간에 신뢰를 구축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자평하였다.

최고 지도자들의 신뢰관계-바로 이것이 선험할 수 없는 국가의 큰 이익이 아니겠는가. 동갑내기 대통령끼리 서로 친구처럼(퍼스트 네임으로) 호칭하는 날을 기대한다.

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물결, 그리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미국의 힘. 그

# 현충원의 오후

김향자(약대 65년 졸)

아버님은... 작은 상자 속에 한 비둘기 흰 보자기로 곱게 접어 파스해 가슴에 품고 갑니다

철마가 뛰는 고동 소리를 들읍시다 조국은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사랑하며 내 나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용감한 대장부는 어느 날 다 망했던 한 나라가 하루아침 일어나는 큰 기적을 보였습니다

계룡산 양지 바른 언덕에 남기신 흰 가루 이제 민족이 지켜 줄 것입니다 발길 떨어지지 않는 먼길을 갑니다 팔아이는 슬픔을 묻고 세멘트에 묻으며...



선친 流岩 金興濟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묘역 안장식에서 2002년 11월 1일

# 기독교 聖經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

金宗元(문리대 69년입,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창세기 1:27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 구별은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구별



神學校 졸업식에서의 필자 가족

입을 말해준다. 이 성적 구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에 고유한 것이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종에 의해 구별된다.

이 인간의 구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양극성과 구별이 인간의 性에 있어서 본질적이라는 뜻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들 간에 서로 보완적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구별된 것은 서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성자와 성령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다.(Gen 2:18) 성의 구별이 하나님의 형상에 본질적이고, 또 보완적인 성질을 지닌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상대방을 적대자로서가 아니고, 동료로서 필요로 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라는 말씀으로 창조

의 이야기를 끝을 맺는다. (Gen 2:24) 여기에서 우리는 두쌍의 짝을 발견한다: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 구약학자인 Phyllis

Trible은 천지창조의 記述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적한다.

첫째, '각각의 짝은 하나의 평등적인 단위이다: 하나는 창조의 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역할의 평등이다. 둘째, 어떤 역할이든, 즉 남편과 아내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막론하고, 비록 그들이 성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다. 역할은 부수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데 자유롭기 때문에, "결혼은 사람들이 충분히 남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남자와 여자간의 역할들이 부수적인 것처럼, 또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특징이나 속성들은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인 유형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역할 관계를 특징지어려고 시도하지 말아

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은 언제나 신실한 지도자이어야 한다거나, 아내는 항상 수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아니된다.

남자와 여자의 평등은 그들이 순서적이 아닌, 동시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사려 깊은 성경해석은 창세기 2장의 최초로 창조된 인간을 원래의 지칭하는 말은 남자도 아니고, 최초의 사람도 아니고, 흠으로부터 만든 피조물, 즉 흠 피조물인 '아담'이다. 즉 그는 생물학적인 남성일 수는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런 인간적인 남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남자를 뜻하는 단어인 'Ish' 가 창세기 2장의 창조이야기에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단어 사용의 기교가 언급되어 있다: Ha-adama는 흠이다; Ha-adam은 흠 피조물이다. Trible의 말에 의하면, 창세기 2장의 최초의 인간 피조물인 Ha-adam은 '사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인 것이고, "단지 수술 후에 이 피조물은 처음으로 자신을 남자로 드러낸다." 물론 수술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그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음을 말한다. (Gen 2:21-22)

신약에서는, Paul은 전통적인 랍비들의 해석을 따라서 1 Tim. 2:13에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라고 했지만, Eph 5:22-32에서는 Paul은 그리

스도를 간주하기를 "창세기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 모두의 하나의 육체의 근원"이러한 Paul의 태도의 모순성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설명이 된다.

1 Tim 2:12-13에서는 Paul은 여자가 남자보다도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이단적인 견해를 시정하고자 한다. Paul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라고 디모데전서 2:12에서 말하고 있다. 일견 이 본문은 여자가 성직에 임명되는 것을 금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에베소에서 Paul은 한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들중 어떤 자들은 여자가 그들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신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Paul은 에베소에 만연되어 있는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반박하고자 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인도에 기초하여, 우리는 여자를 구별하여 성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dmund Hill이 말한 것처럼, "여자가 성직자로 정당하게 서품되

어서는 안된다거나, 실제로 그럴 자격이 없다는 어떠한 교리적, 신학적, 계시적 이유도 없다."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그리고 동시에 창조되었음을 보았다. 그러나 최초의 불순종에 뒤이어, 그리고 저주와 斷罪의 결과로, 남자와 여자 모두 ha-'adam이라는 순전한 피조물성으로부터의 공통의 창조라는 균형과 호혜성을 상실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Eve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Gen 3:16) 그러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원죄의 결과를 역전시켰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때처럼 다시 서로에게 평등하다.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이니라."(Gal 3:28)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워지고, 모든 인간 관계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표와 목적에 다시 부합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남편과 아내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론하고 모든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등한 상대로서 더욱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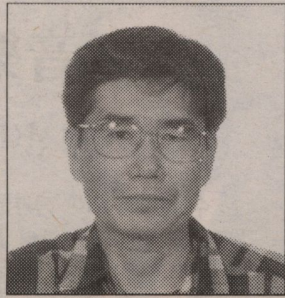
# 含春苑詩節

### 박취서 (약대 64년졸)

며칠 전에 옛날 사진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대학 2학년 때 동창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진은 나를 40여년 전의 대학시절을 다시금 회상하게 해주었다. 내가 1960년에 입학한 藥大 교정에는 含春苑이라는 이름의 조그만 동산이 있었는데 이 동산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는 교수회관, 대학신문사, 약대건물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文理大 쪽으로는 醫大 건물이, 그리고 창경원 쪽으로는 대학병원과 의대 간호학과 女學生들의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 주위를 그 때는 연건동, 동송동 그리고 원서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있었다. 종로 5가에서 이화동을 지나 혜화동 로타리 쪽으로 연결된 소위 大學路를 중심으로 醫大 쪽으로는 중앙공업 연구소와 法大, 그리고 법대와 대학본부가 나무요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으며, 문리대 교정은 대학본부와 같이 大學川이라 불리우던 청계천 지류를 따라 울타리를 형성하면서 위치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美大와 의대 그리고 약대가 자리잡고 있었다.

매년 봄이 되면 大學街에는 그 청계천 지류를 따라 울타리 쪽으로는 노오란 꽃이 만발하였고, 문리대 교정에는 향기 짙은 라일락과 마로니에 나무들 밑으로 긴 의자가 곳곳에 있어 나무그늘 밑에서 여름의 더위를 식혀주고 젊음의 열기를 달래주는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있었다. 가을에는 그곳 대학가 주위의 마로니에 나뭇잎들이 落葉이 되어 떨어지는 모습이 또 하나의 운치를 더해주는 풍경이었으며, 그 아래에 앉아서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던 문리대 학생들은 강의 틈틈이 휴식을 취하면서 젊음과 사랑, 인생과 학문 그리고 時局을 논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던 시절이었다.

1960년 입학하자마자 얼마 안되어 4월 19일 첫 강의가 김성환 老教授의 영어 시간이었는데, 이 때 약대 학생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노교수와 면담을 요청하면서 강의는 중단되었고 곧이어 학생회장의 데모의 당위성에 대한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 시절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 때문에 극도의 정치불안 속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는 暗雲이 깃들고 있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그 전 날 고려대에서 정치강좌 집단예의한 학생들의 구타에 이어 4.19의거라는 학생혁명으로 번져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날 아침 나도 데모하



자는 학생회장의 열띤 연설을 듣고 데모에 참가해서 의대생들의 뒤를 따라 지금은 청와대라고 불리우는 경무대 앞까지 시위를 계속했으며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들까지 합세하여 데모대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그 때 경무대 앞에서 학생시위는 대학중의 대학이라고, 자부심이 강하던 문리대 학생들이 주도하였는데, 때마침 경찰들의 무차별 사격으로 앞서있던 문리대 학생들이 총탄에 희생되면서 학생데모는 걷잡을 수 없이 서울과 지방으로 번져갔고 급기야는 4월 26일에 대학교수들의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자'는 시국선언문 낭독 등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대통령 下野라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공백기 가운데 나의 大學生活은 시작되었다.

여기에 실린 사진은 1961년 5월 15일 대학 2학년 때 生藥學이라는 과목의 야외실습차 八堂에 가서 꿈꿨던 그 시절에 동창들과 같이 야외실습 후 그곳에서 뱃놀이 등을 하면서 하루를 즐기고 찍은 사진이다.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 우리의 젊음은 미래에 대한 한없는 꿈으로 부풀어 있었으며 하루하루의 대학생활을 含春苑이 있는 대학교정에서 키워가고 있었다.

이 이튿날인 5월 16일 새벽 나는 중앙청 근처인 사지동의 큰 이모부님 댁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銃聲에 잠이 깨었다. 이날이 바로 4.19가 있는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민주당의 張勉 정권이 무너지는 5.16 군사혁명의 날이었다. 나의 대학 1, 2학년 시절은 이렇게 어수선한 정치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되어 그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대학생활을 끝내게 되었다. 그 시절 문리대 앞에는 學林이라는 다방과 進雅春이라는 중국식당이 있었고 미술대학과 원서동 쪽 골목으로는 驕川이라는 다방과 棋院, 당구장 그리고 막걸리집 등이 있어서 그 근처에 모여 있는 미대, 의대, 약대, 법대, 문리대 학생들과 의예과, 치의예과 학생 그리고 he 대학에서 온 청강생들의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격동하는 政治的 時流 속에서도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던 젊은 대학생들의 삶과 철학을 激論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함춘원시절 八堂에서 생약학 야외실습 후 기념촬영 (단기 4294년, 1961년 5월 15일).

그 시절 學林 다방은 여러 가지 古典음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E라는 젊은 아가씨가 커피와 차를 나르면서 교장 선생처럼 생긴 안경 쓴 주인 아주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으며, 많은 대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곤 했었다. 젊은 학생들은 그 아가씨에게 차와 음악을 주문하면서 人生과 學文을 논하고 未來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었다. 나는 그 아가씨와의 데이트를 몇 번의 신청 끝에 成事하여 창경원 뒷 담장길, 비원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 길들을 같이 걷곤 했었다. 얼마 후에 그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지금 그 아가씨에게는 그녀를 짝사랑하던 어느 문리대 학생이 軍服務 중이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더 이상 그 아가씨와 데이트하지 말라는 엄명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데이트 신청을 못하고 병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音樂을 듣겠다는 핑계로 그 아가씨를 보러 갔던 기억이 새롭다.

나는 그 아가씨를 짝사랑하던 문리대 학생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궁금한 심정이다. 약대의 체육시간은 문리대의 '文선생'이라는 교수님이 지도하시어서 우리들은 그때 '미라보다리'라고 부르던 문리대 정문 앞의 다리를 지나 중앙도서관이 보이던 문리대 운동장으로 가곤 했었다. 그 때 문리대 입구의 수위 아저씨는 흰색 반점이 있는 피부병이 있어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느낌을 주곤 했었다. 문리대에는 항상 憂愁 어린 표정을 지니고 있던 이 영구라는 철학교수님은 키에르케고르의 實存哲學 등 주로 서양철학을 강의하시곤 했으며, 한 때 자살소동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여류작가 전혜린의 친오빠인 전경린 교수가 수학강사로 나오곤 했었다.

1962년 대학 3학년 시절에는 그 때 문리대에 교환학생으로 와있던

Miss Marian McCAA라는 미국인 여학생을 일주일에 두 번씩 초빙해서 내가 회장으로 있던 Universcope Fellowship이라는 모임에서 Bible Study를 통해서 영어회화를 공부했으며, 학생회장선거에 Y군과 같이 Running mates로 출마해서 학생회 일에도 관여해 보려고 했었다.

1962년에서 1963년까지 정치적으로는 명목상의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물러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18년이라는 장기 집권의 틀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었다. 1963년 가을 학기에는 상대에서 이현재 교수가 강사로 나와 경제학을 강의했으며 그 해에는 또한 약대 학장으로 계시던 홍문화 교수께서 무감독 시험제 (Honor System)를 실시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含春苑교정에서 학생회 주최로 축제가 있었고, 또한 서울대와 梨大의 합동쌍쌍파티가 빛깔 만발하던 창경원에서 있어서 나는 이대에서 불문학을 전공한다는 아가씨와 짝이 지워져서 하룻밤 젊음의 낭만을 마음껏 발산하기도 했었다.

흰 고무신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그 고유의 흰 턱수염을 자랑하던 할석헌 선생의 문리대 강당에서의 민정이양 등 그 시절 군사정권을 비판하고 젊은 학생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시던 강연회가 있기도 했었다. 또한 우리 약대 동기생들은 매년 강화도 마니산, 설악산, 그리고 경주 불국사 등으로 소위 수학여행을 같이 떠나면서 學友들간의 우의를 다지기도 했으며 나는 IPF 라는 약대 club에 참가하여 강원도 간성과 동해안 화진포 쪽으로의 '농촌계몽'이라는 명목으로 旅行을 떠나기도 했었다. 또한 문리대에 있던 유도부에서 1년 가까이 유도의 낙법 등 기본수련을 배우고 학생회에서는 그 당

시 연식정구가 유행이었는데 정구 부장의 직책을 맡아 약대주최의 정구대회를 주관하기도 했으며 졸업당시에는 약창회라는 모임의 회원으로서 시내 다른 약대생들과 교분을 가지기도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문리대 학생들이 대학중의 대학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기개는 대단하였고 나도 '세느강'이라고 불리우던 그 大學川을 중심으로 한국대학생의 知性이라고 자부하던 학생 중의 하나가 된 기분으로, 4년이라는 세월이 젊은 시절의 熱病을 앓으면서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 젊음과 꿈 그리고 낭만 맡던 4년 동안의 含春苑 대학시절이 나에게 인생의 황금기이었고 지금도 그 시절의 일들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그 시절에는 무엇이랴 할 수 있을 것 같은 만용(蠻勇)이 있었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등 文學서적을 탐독하면서 대학졸업 후의 인생영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회의하던 시절이기도 하였다. 지금 되돌아보니 벌써 44년이라는 세월이 그 꿈 많던 含春苑동산에서 시작해서 강물처럼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시절의 사진 하나 하나의 주인공들은 다들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만나서 그들 나름대로 살아온 삶을 서로 얘기해보고 싶다. 애 모두가 보고 싶은 얼굴들이다. 그리고 그 꿈 많고 가슴 설레던 含春苑詩節로 다시 되돌아 가보고 싶다! (필자는 현재 SAV-ON DRUGS에 재직하며 연락처 ☎ 714-680-4112)

동문들의 구독료로 발간되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 아내의 짝사랑 타히티

오테히(의대 64년 졸업, Yale대 교수)

Man who has no mood even after seeing Tahiti is hopeless. anon.

(타히티를 보고 나서도 목석 같은 사람은 한심하다.)

타히티는 지리학을 전공한 아내가 연애시절부터 짝사랑하던 남태평양의 작은 섬이다.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타히티로 간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서두르는 바람에 혼사가 오히려 지연되기도 하였으니 짝사랑의 정도를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만일 신혼여행을 타히티로 갈 수 있었다면 우리 부부는 아마 그곳에 눌러 앉아 프랑스 시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아무튼 결혼한지 32년이 되어 20세기가 저물던 그 해 12월에 비로소 타히티 여행길에 오를 수 있어서 결혼서약을 지킨 셈이라 속이 후련하다.

하와이 항공 DC-10 이 타히티행 유람선과 첫째 그룹 300명을 싣고 아침 10시에 로스앤젤레스 공항(LAX)을 이륙한지 8시간 반이 지나 타히티의 파피티 공항(PPT)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프랑스 폴리네시아 입국수속을 마치고 기다리던 버스에 올라 르네이쌍스 유람선이 정박해 있는 항구에 도착, 승선하자 선장의 환영인사가 유람선에 울려 퍼졌다. Welcome aboard! Maeva, Manava! (신사 숙녀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다음 날 승선한 둘째 그룹 300명과 함께 600명의 선객이 승무원과 종업원을 합쳐 모두 1,200여명을 태운 거대한 유람선이 10일 간의 일정으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자, 에메랄드빛으로 단장한 산들이 청록색 바다에 반사되어 흥분과 스릴을 자아내며 지나간다. 한없이 펼쳐진 잔잔한 바다 위에 돛단배가 남태평양의 이국적인 낭만과 폴리네시아의 신비로움을 싣고 갈매기 따라 유유히 떠다니는 모습이 한 폭의 풍경화가 되어 눈앞에 가물거린다.

프랑스 폴리네시아 군도(archipelago)는 유인도와 무인도를 통틀어 울창한 118개 섬이 웅기웅기 모여 앉아 남태평양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크기가 제주도의 60% 정도인 타히티(17s.149w)가 가장 큰 섬이다. LA에서 비행기로 8시간 반이 걸리는 4,000마일 거리인데 하와이와 같은 시간대(Time Zone)이며 계절은 정반대이다. 그러나 적도에 가까워서 절기에 관계없이 항상 여름 날씨가 계속된다.

타히티의 공용명칭인 프랑스 플

리네시아는 < 타히티, 무리아, 후아히니, 라이티아, 보라보라 > 다섯 섬을 공동체(Society)로 포함하는데 섬마다 낭만적인 별명이 붙어있다. 세기가 바뀌기 전에 R-3 유람선이 주선하여 둘러본 다섯 섬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1) 사랑과 낭만의 섬 타히티는 인구 6만에 수도가 파피티(Papeete)이다. 영어가 불편없이 사용되고 프랑스어와 타히티어가 공용어인 현대적 도시이다. 야채시장과 식물원, 고갱 뮤지엄이 이색적인 시내에는 중국인(12%)을 비롯하여 지방 프랑스인(6%)과, 본토 프랑스인(4%)이 거주하고, 원주민(78%)은 대부분 바닷가에서 살고 있다. 큰 섬(Tahiti nui)에 작은 섬(Tahiti iti)이 종방울처럼 이어진 섬 주위를 배를 타고 돌면서 암초로 둘러싸인 기암절벽을 쳐다보면 숨막히게 아슬아슬한 풍경이 매혹적이다.

(2) 신비의 섬 무리아(Moorea)는 바닷물이 화산 내부로 깊숙히 흘러들어가 만들어진 섬으로 진주양식장이 유명하다. 주홍색 산호초로 완전히 둘러싸여 휴일이면 축제가 열리는 이른바 파라다이스로 섬마을 사람들의 온정과 친절이 천연적 과일과 꽃향기 따라 스며나온다. 얇은 바닷물에 무지개처럼 반짝이는 열대어가 떼를 지어 실재없이 떠다니는 모습을 스노클링(snorkel)로 즐기고 비단결 같은 모래밭에 앉아 저멀리서 돌고래가 솟아 오르는 광경을 바라보며 이 섬 특유의 과일주스를 시음하다 보면 어느새 피크닉은 끝난다.

(3) 이든의 동산 후아히니(Huahine)는 타히티에서 북쪽으로 170 km 떨어진 아주 작은 섬이다. 한 없이 넓고 얇은 바다에 산호초로 둘러싸인 은빛 해변이 황홀하다. 바닐라와 바나나, 수박이 재배되고, 선사시대 유럽식 석기 교회가 40개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침실만한 불모지에 몇 개 안 되는 돌조각이 전부인 교회이지만 원주민의 성지로 옛날 한국의 서낭당을 연상시킨다.

(4) 타히티에서 200 km 떨어진 라이티아(Raiatea)는 성스러운 섬이라 불리는데 신이 탄생한 곳이다. 하와이와 뉴질랜드의 문화가 이 섬에서 흘러 들어갔다는 자랑이 대단하다. 바닐라와 파인애플 농장이 들어선 이 섬은 푸른 나무 숲이 무성한 계곡에 절묘하게 떨어지는 아연한 폭포수가 너무나 신비하여 신의 탄생지라고 믿고도 남을 것 같다. 끝 없이 펼쳐나간

원시림의 해변가를 4x4 트럭으로 한바퀴 돌고나서 쌍동선(catamaran)으로 뱃노리를 즐기다 멀리서 기다리는 유람선으로 돌아온다.

(5) 마지막으로, 보라보라(Bora-Bora) 섬은 말바다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연초록의 잔잔한 바닷물이 손짓하는 로맨스의 섬이다. 타히티에서 서북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섬은 이차대전 당시 미국 해군의 기지였다. 기관포 한 대가 아직도 오테마누(Otemanu)산 중턱 포진지에 옛 모습 그대로 남아 하늘을 겨냥하고 있다. 오테마누 산 모습이 신비한 구름 속을 뚫고 푸른 바다에 채색되어 눈앞에 떠오르는데, 유람선이 특별히 주선한 50피트가 넘는 호화스런 야트(yacht)에서 바라보는 남태평양 저녁노을의 아름다움은, 사진 한 장이 천 마디 말보다 낫다라는 격언을 실감케 한다. 마론 브란도, 단 멜로, 잭 니컬슨 같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 섬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다.

폴리처 수상작가 James Michener(1907-1997)는 보라보라 섬을 둘러보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불렀다. 반세기 전에 그의 로맨스 소설 Tales of the South Pacific(1948)이 출간되자 이듬해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Musical로 공연되고 십년이 지나자 할리우드에서는 영화 South Pacific(1958)이 제작되었다. 한국에서 1963년에 수입하여 남태평양이란 제목으로 서울에서 상영하자 꿈 많은 연애시절 아내의 심금을 무척 울린 것 같다. 영화의 주제가, 남태평양의 이국적인 멜로디 Bali Hai 가 서울에서 한 때 유행하였다.

끝으로, 타히티는 불후의 화가 Paul Gauguin(1848-1903)이 폴리네시아 원시문화에 매혹되어 일생을 보낸 곳이다. 파피티 시내 고갱거리에 일본식 목조 건물로 조출하게 단장한 고갱박물관에는 19세기 후기인상파 고갱의 희귀한 걸작품들이 폴리네시아 원시사회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진열되어 있다. 영국 작가 Somerset Maugham(1874-1965)은 고갱의 생애를 The Moon and Sixpence(1919)로 집필하여 고갱의 이름을 영원히 남겼다.

어느새 열흘이 지나, 태평양 상공을 밤새도록 날으는 LAX행 비행기 속에서 잠이 들었다. 꿈을 꾸면서 그림을 그린 파란빛 고갱의 생애를 잠결에 되돌아보는데 아침 햇살이 눈부시는 활주로를 요란하게 미끄러지는 비행기가 짝사랑에 홀린 선잠을 흔들며 깨웠다.

타히티어 안녕. (0902)

## 音樂과 世界平和

서병선(음대 65년졸, 뉴욕예술가곡연구회 회장)

수 천명의 귀한 생명들이 무참한 승화되어야 한다.

죽음을 당한 9.11테러 사건은 온 세상을 경악시킨 인류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큰 비극이었다. 테러의 공포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평화를 갈망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마음은 테러의 공포로 그늘이 졌다. 그 보복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으나 소련과의 10년이란 장기 전쟁에 지쳐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또 한번 전쟁의 처절한 비극을 맞게 된 것이다.

수세기를 걸쳐 되풀이 되어오고 있는 동안 인도의 북부 캐슈미어 지방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 갔으며 수 개월전 발발 때 1,000여명이 살해된 모습래프 현투교도 간의 잔인한 종교적 갈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끊임없는 피의 보복전! 굶주림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중국 땅으로 건너가 붙잡히면 가혹한 고문과 처형이 뒤따르는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서 매일 매일을 숨어 살아가고 있는 30만 탈북 난민들의 고통! 등 지금 이 세상은 온갖 고통과 비극이 난무하는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희망이 안 보이는 절망적 위기! 그 원인을 찾아 치유하여야 한다.

인류 역사가 직면한 오늘의 비극은 인류정신의 부재가 그 근본 원인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지금 극도로 발달한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의 압도적인 노예화 영향 속에서 인간이 위축되고 인간정신이 크게 훼손당하는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적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문화의 배가운동이 절실한 것이나 오늘의 세계가 가고 있는 실상은 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기에 인류의 비극은 견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개체의 삶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목적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행복에 있다. 행복의 주인은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는 진정한 인류정신이 파급되어갈 때 세계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6월 2002 월드컵 경기를 주최했고 4강이란 장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외세의 침략과 6·25 전쟁, 민족분단... 등 수난의 역사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여오던 약소국가인 우리 한국으로서는 나라의 경사이자 한국인의 우수성을 만방에 보여준 쾌거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가 자축하는 소비적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월드컵의 목적인 세계평화로



Seobyeon

근래들어 올림픽 경기 때마다 올림픽의 순수한 뜻이 나날이 사라지고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대 국가란 이기집단의 각축전으로 전락하고 있는 슬픔을 경험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

한 많은 나라들의 운동선수에 대한 엄청난 사례로 체육의 근본정신을 해치고 물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반문화적인 추세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그릇된 흐름을 막아내고 문화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류정신문화의 위기상황을 당면할 때 우리는 희랍의 저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하게 된다. "音樂은 體育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靈魂이 肉體를 만들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육보다는 음악이, 육체보다는 정신이 위에 있어야 한다."

□ 딸 실비아가 6살 때 일어났다. 어느 7월의 하루, 우리 부부와 딸 세 식구가 업스테이트에 있는 와킨스글렌 국립공원을 찾은 적이 있다. 아름다운 세네카 호수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등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오후 2시경 푸른 숲으로 뒤덮인 7월의 싱그러운 날, 굽이굽이 산길을 타고 맨해튼 집으로 향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마음이 되어 우리는 "나는 수풀 우거진 청산에 살리라. 나의 마음 푸르러 청산에 살리라..." 우리 가곡 '청산에 살리라'를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3시간동안 내려오면서 "자장가", "가고파", "들국화", "어머니의 마음", "과수원길", "반달" 등 가곡으로부터 동요까지 계속해서 목이 설 때까지 부르는 동안 어느덧 집에 도착한 일이 있다. 가곡은 사랑의 노래다.

가곡을 부르는 동안 기쁨이 넘치며 온가족이 사랑으로 뭉친다. 이러한 가곡부르기 운동이 온세상으로 파급되어갈 때 세계평화는 올 것이다. 이는 노래를 사랑하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소중한 문화운동이자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된다.

4강을 이룩한 장쾌한 정신으로 비극과 고통이 난무하는 오늘의 절망적 세계를 '대~한민국'을 외치던 뜨거운 가슴으로 열차안고 가곡보급운동에 모두 힘을 합할 때 진정한 인간사랑이 꽃피는 아름다운 세계는 열릴 것이다.

(2002년 10월 12일)

# 사랑 三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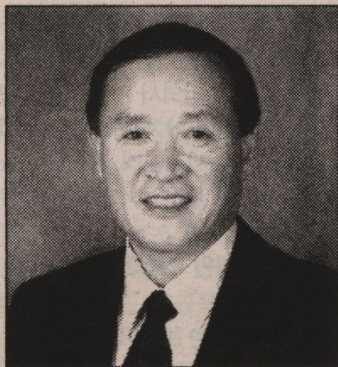
李泰相(문리대 59년졸)

## 情事는 가슴의 일(Ⅰ)

세상에 정말 거짓말처럼 들리는 신화같은 인화(人話)도 말고 소설 같은 대설(大說 또는 大設?)도 흔히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는 외국의 실화이지만 이런 예기는 고급 동서 언제 어디에서나 있다.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92세 할아버지가 증손녀뻘인 20세 부인에게 임신까지 시킨 꿈같은 이야기다. 허비 알베르또는 3년 전 당시 17세의 처녀와 결혼하는 데 성공, 3년간 단꿈에 젖은 신혼생활 끝에 신부는 마침내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알베르또 노인과 신부 마리아의 만남은 마리아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자원봉사자로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였다. 그는 당시 부인과 사별한 후 11년째 독신생활을 하던 중 옥조에서 바다에 미끄러져 엉덩이를 다치면서 병원신세를 지고 있었다. 퇴원한 후에도 노인은 소녀의 따스한 손길과 포근사근한 미소를 잊을 수 없어 수화기와 펜을 들었다. 전화와 편지를 통해 "그대는 내가 지금까지 본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녀석을 부렸다. 노인이 의지할 데 없어 그러려니 생각하고 소녀는 전화로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하고 위로의 답장을 쓰게 되었다. 그러자 노인은 사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꽃과 선물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끝없이 보내오는 선물과 열정적인 求愛에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굳힌 마리아가 가족에게 결심을 밝히자 그 반응은 불문가지. "네 할아버지가 되고도 남을 노인에게 시집가겠다는 말이 되느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은 요지부동.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이 서로가 좋아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마리아는 처음부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평소 책을 통해 남자 나이 80-90세가 되면 정자수가 크게 줄어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겪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밤만 되면 그는 나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침실에서 그는 젊음이 부럽지 않은 기운의 청년이니까요." 20세 부인 마리아의 말이다. "젊은이 이상으로 나에게 힘을 솟구치게 한 장본인은 바로 마리아이지요.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은 나



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며 92세 남편 허비는 그의 굵은 엄지손가락을 푹푹 세워 싱글빙글 이란다.

## 용기와 신념만 있으면(Ⅱ)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로 시작하는 노래 <얼굴>의 가수 윤연선(51)이 27년 전 첫사랑과 다시 만나 극적 결혼을 해 화제다. 둘은 각기 25살 때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나 남자부모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10년 전 이혼한 남자가 최근 윤씨의 데뷔 30주년 공연 준비인터뷰 기사에서 윤씨가 아직도 '미혼'임을 발견, 윤씨를 다시 찾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또 거짓말처럼 들리는 정말 소설 같은 예기도 있다.

60여 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옛 연인을 만나 결혼한 여인이 있다. 1931년 영국의 웨스턴 목서에서 한 집에 하숙하고 있던 두 청년 남녀가 사랑에 빠졌으나 여자쪽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그다음 해인 1932년 처녀 엘튼드 그리프스는 총각 베이질 타이트의 곁을 눈물로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60여 년간 엘튼드는 "단 한 시도 그를 잊은 적이 없으며 단 한 순간도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최근에 있었던 결혼식에서 밝혔다. 84세가 된 엘튼드는 "죽기 전에 그를 찾아보리라" 마음먹고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잡지에 사람 찾는 광고를 냈는데 광고가 나간 지 일주일도 안돼 옛 애인 베이질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로부터 몇 번의 연서를 교환한 끝에 이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결정, 드디어 "생애 최고의 행복"을 맛보며 노인랑 노인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젊은 날 내가 어머니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생애는 너무나 비참했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베이질과 같이 살게 되었으니 지난날의 보상을 모두 받은 셈이다. 그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전부인 까닭이다."

이렇게 지난날을 회고하고 노신부 엘튼드는 행복한 결혼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고 한다.

오, 각성할지이다  
오, 명심할지이다

세상의 부모들이여  
세상의 자식들이여  
천하의 선남선녀여  
우리 가슴 뛰는 대로만 살자  
세상에 못할 짓 가운데  
가장 못할 짓이 있다면  
가슴에 못박는 일 아니라

그 누가 책임질 수 있으리오  
하늘도 땅도 조상도 부모도  
그 아무도 책임질 수 없으리  
너와 나의 모든 행과 불행을

천당과 지옥이 따로 없다  
너와 내가 같이 가는 곳이면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곳이면  
너와 내가 같이하는 순간이면  
그 어디 연제라도 천국이다

천사와 악마가 따로 없다  
너와 나를 갈라놓는 사람이면  
우리 가슴에 못박는 사람이면  
부모이든 형제자매이든 벗이든  
다 적ियो 원수요 악마이다

너와 나를 남과 북, 동과 서  
너와 나를 선과 악, 흑과 백  
너와 나를 남과 여, 노와 소  
너와 나를 분리시켜놓는 사람  
그 누가 되었든 죄다 악마이리라

세상에 누구 말을 믿으랴  
세상에 누구 뜻을 따르랴  
진리는 가까이 있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너와 나 자신뿐이리

네 숨은 내가 내 숨은 내가  
네 삶은 내가 내 삶은 내가  
네 가슴 내가 내 가슴 내가  
네 사랑 내가 내 사랑 내가  
쉬고 살고 뛰고 오를 수밖에

사랑이 모험 중에 모험이라면  
용기와 신념만 있으면 족하리라

## 아! 그래서(Ⅲ)

몇 년 전 상영된 미국영화 "잠 못 이루는 시애틀 남자(Sleepless in Seattle)"가 있다. 이 영화는 옛날 영화 "잊을 수 없는 일(An Affair to Remember)"에서처럼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극적으로 다룬 감동적인 로맨스 러브스토리다.

"잊을 수 없는 일"에서는 남녀 주연배우 케리 그란트와 데보라 커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유람선에서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각기 약혼자가 있는 몸이다. 배의 행선지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가 착륙하기 직전 두 사람은 6개월 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전망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져 마중 나온 약혼자 품에 어색하게 안긴

다. 그 동안 직업도 없이 백수군달로 살아온 케리는 엄청난 유산 상속녀를 마다하고 극장간판 그리는 직업을 얻어 열심히 일하면서 틈틈이 옛날에 그가 그림을 좀 그려 본 솜씨를 다시 살려내 데보라의 초상화를 그린다. 한편 데보라는 그녀가 전에 나이트 클럽에서 밤무대가수로 노래부르다 만난 재벌 사업가 약혼자를 떠나 옛날의 무명 가수생활로 돌아가 돈을 번다. 돈 없는 케리와 새출발하기 위해,

드디어 6개월이 지나 약속된 장소에서 케리가 밤늦도록 기다려도 데보라는 나타나지 않는다. 서둘러 급하게 달려오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앞길에서 차에 치어 병원으로 실려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케리는 실연당한 남자로 한동안 방황하던 끝에 전화번호부를 통해 데보라의 주소를 알아내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데보라를 찾아온다.

"잠 못 이루는 시애틀 남자"에서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애틀에 사는 여덟살 짜리 남자 어린이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아빠의 부인될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호소한다. "왜? 엄마가 없느냐?" 묻자 일년 반전에 그의 엄마가 세상 떠난 이후로 돌아가신 엄마만 생각하고 슬퍼하며 너무나 외로움을 다시는 아빠를 그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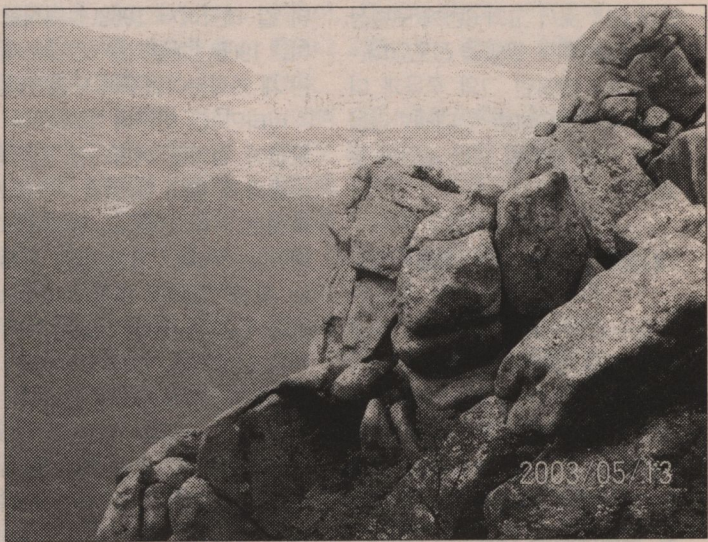
전국으로 전파된 이 생방송을 들은 미국 전 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이 전화를 걸어오고 편지를 보낸다. 그 가운데서 제 맘에 드는 여자를 딱 한사람 골라 이 꼬마가 답장하기를 오는 2월 14일 성(聖) 발렌타인의 날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 만나자고, 답

장을 받은 여자는 또한 약혼자가 있는 불티모어의 신문기자이다. 아빠보고 같이 가자고 아무리 졸라도 아빠가 말을 안 듣자 꼬마는 제 저금통을 털고 그래도 모자라서 이웃에 사는 제 여자친구 소꿉동무의 돈까지 얻어 겨우 비행기표와 택시 값을 마련 혼자 나타나 기다린다. 이 여자 저 여자의 이름을 물어 확인하면서,

女記者는 꼬마의 편지를 받아보았으나 어린이 소꿉장난으로만 여겨 잊고 있다가 마침 약혼한 남자로부터 결혼반지를 받고 저녁식사를 하던 중 창 밖으로 멀리 바라보는 불키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夜幕속에 가슴 모양의 하트♡가 뚜렷하게 돋보이는 순간 왓 채! 저기서 어찌면 그 어린이가 자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른다.생각에 결혼 반지를 남자에게 되 돌려주고 택시도 달려간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늦어 마치 막 관광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린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못 올라가게 하는 직원에게 사정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니 전망대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연히 누가 놓고 간 어린이 배낭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열어 보니 그 꼬마가 편지에 달한 곰인형이 반기듯 튀어나온다.

뒤늦게 꼬마가 없어진 것을 알고 뒤쫓아 온 아빠가 꼬마를 안고 마지막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고 놓고 온 배낭을 찾으러 다시 올라온다. 인기배우 톰 헹크스와 맥 라이언의 연기가 정말 가슴 메어지도록 눈물을 쫓는다. 아, 그래서 프랑스어로 정사(情事) 로맨스를 "가슴의 일(Affaire de Coeur)"이라 하나보다.



연인들의 전설이 쌓인 相懸비위(남해 금산 정상, 681M)에서 내려다 본 봄의 태평양. 사진 원작- 문복남

노벨 과학자들 <4>

# 異端의 노벨 二冠王, Dr. Pauling

## 비타민 C 神話의 내력

金日勳 (의대 57년 졸)

### (I)비타민 C의 신화가 무너지다

세상에는 허다한 賞이 있지만 '賞中의 賞'은 노벨상이다. 이 상만이 모든 상을 압도하는 막중한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퀴리부인은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았고(공동수상) 그의 딸 부부도 수상자가 되어 세계의 화제가 됐음은 익히 아는 바다. 그런가하면 천재 文人이자 實存主義 철학자였던 프랑스의 사르트르는 "노벨상은 작가정신을 제도 속에 묶어 넣는 불건정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학상(1964년) 수상을 거절함으로써 유명해지기도 했다.

여기에 혼자서 단독으로 노벨상을 2개나 받아 세계기록을 세워 가장 유명한 20세기 大天才가 있으니, 1954년 化學賞(수상공적 사유: "FOR HIS RESEARCH INTO THE NATURE OF THE CHEMICAL BOND AND ITS APPLICATION TO THE ELUCIDATION OF THE STRUCTURE OF COMPLEX SUBSTANCES") 과 1962년 平和賞에 빛나는 닥터 폴링(Dr. Linus Carl Pauling, 1901-1994)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노벨상이 아니라 그가 바로 "비타민 C 神話"의 창조자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비타민 C가 한때 미국에서 만병통치약이 됐다는 사실이다. 그의 비타민 C 학설은 노벨상 수상자라는 有名稅를 무기로 미국시민의 宗教처럼 되어 몇 천만명의 信奉者를 갖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별명이 바로 비타민 氏(C)였다. 비타민 C로 해서 그의 3번째 노벨상을 점치는 이도 있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1994년 그의 죽음과 더불어 "비타민C神話"는 내리막길을 걸어, 이제 붕괴될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 (II)폴링의 生涯 - 과학 · 평화 ·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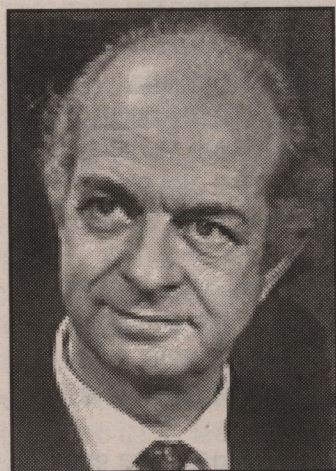
Science and Peace and Health는 폴링이 말년에 쓴 책이름이며, 이것은 그의 일생의 기록이기도하다. 역사에 기록될 理論化學者에다 노벨 平和賞을 받은 平和主義者요, 말년에 노망할 즈음 健康長壽를 내걸고서 "비타민 C神話" (다음부터 C라 약칭함)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세기의 천재 폴링은 1901년 미국 시골 오리건주에서 태어나 어

릴 적 아버지를 잃은 후, 苦學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오리건주립대)을 마쳤다. 계속 칼-텍크(캘리포니아 공대)에서 化學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30세에 이미 50개의 권위있는 연구논문들을 발표했다. 그는 스위스에 건너가 量子力學을 공부하여 1939년 이를 化學분야에 응용한 연구서 "화학종합론"이라 할 저서, The Nature of the Chemical Bond and the structure of Molecules and Crystals을 출간하여 역사상 가장 가치있는 과학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에 포함된 그의 이론(DNA 구조)을 인정받아 1954년 노벨 화학상을 수여 받았다 (이때 문학상수상자는 해밍웨이였다). 그는 "Molecular Disease"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Ortho-molecular medicine"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科學을 창출했다.

폴링은 연구소에만 갇힌 外國學者가 아니고 대외적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행동가로 1945년 이후 反核運動에 지도적 역할을 했다. 노벨 수상자 52명과 세계과학자 1만 명을 규합하여 그들의 서명을 얻어 UN에 제출하고, 세계전면 軍縮을 주장했다. 그의 한 동료는 "닥터 폴링 천재의 핵심은 學問에 대한 그의 대담성(boldness)에 있다"고 평했는데, 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사회활동에서도 대담성을 보였다. 저술가로도 잘 알려진 그는 반전서적인 "No More War"를 출간하였다. 이러한 그의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196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이다. 1927년부터 재직했던 칼-텍크에서 1963년 퇴직했으며, 1966년대부터는 건강문제는 새 과학분야연구에 도전했다.

비타민 C 연구에 몰두하여 C요법이 감기를 예방하고 심장병, 뇌졸중과 癩의 유발을 막는다는 학설로, "비타민C와 감기"(1970년)라는 책과, "기본 좋게 長壽하는 방법" (How to live longer and feel better, 1986년)이란 책을 선보였다. 그리고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라"(Take C in heaps)고 국민을 계몽선전 했고, 그 자신 비타민 C를 매일 3Gm씩 시작하여 晩年에 가서는 13Gm까지 복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의사 들은 의사 아닌 그의 행위를 "돌팔이 놀음"이라고 불렀다. 醫師들 눈에 비친 天才의 末路는 아깝게도 老矣이었다.



특히 그는 반전 반핵운동과 비타민 C를 통한 건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言論을 조종하는 방면에도 天才性을 발휘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반대중의 호응은 대단하여 그를 세기의 영웅이며 천재 의사로 대접했다. 그는 죽기 몇 년 전에 일본의 哲人이며 創價學會장사자인 이계다(池田大作)와 공저로 生命(In Quest of the Culture of the Life, 1990년)라는 책에 "Science and Peace and Health" 라는 副題를 달아 출판했다.

### (III)비타민 C와 美中國交

폴링 연구에서 대량의 C(1알 1Gm 이상)를 계속 복용하면 감기 바이러스감염을 예방케 한다는 보고는 일반국민에게 크게 고무적인 기쁜 소식이었다. 그의 비타민 C는 닉슨 訪中으로 중국과의 국교 재개에도 간접적이거나 크게 공헌했다.

毛澤東은 중공전문가며 연안시절부터의 知己로서 외부세계에 중국 內戰과 중국 공산당의 성격을 알린 계기가 된 Red Star의 저자인 Edgar Snow를 1970년 말에 초대하여 미국과의 교류의사를 전했다. 그 결과는 이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키신저 外交를 거쳐, 1972년 닉슨의 중국방문이 성사되고 국교재개가 이루어졌다. Edgar의 手記에 의하면 그의 방문당시 毛주석은 감기로 오래고생하고 있었다. 毛主席 부탁으로 Edgar는 미국에 장거리전화를 걸어 감기나 독감치료를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Pauling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래서 Pauling의 추천대로 비타민C 대량치료를 받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일 후에 모택동은 완쾌했다(筆者註: 모택동은 만년에 파킨슨병이 있어 일단 감기에 걸리면 오래가는 체질이였다. 그리고 감기는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절로 치유되는 병이다!) 감기를 떨친 모택동은 "우리 중국 의사 모두 영타이려! 감기하나 못 고쳐! 나 너무 고생했어! 미국의사 남버 원이야!"를 되풀이했

다고 한다. 결국 모택동도 비타민 C 신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돌과리의사(면허증 없는 닥터 Pauling)처방이 美中國교 재개를 성사시키는데 일등공신 노릇한 셈이다.

### (IV)비타민 C神話의 내리막길

비타민 C는 生體에 유익한 항산화제(anti-oxidant)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20년간 여러 대규모 연구를 종합해보면, 폴링 이론이라 할 "대량의 비타민 C 보조제는 감기, 심장병, 뇌졸중과 암등을 예방한다"는 종전의 설이 아무런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대량 비타민C 보조제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제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다(최근 연구는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폴링 연구소에서는 매일 비타민 C 200mg 이상 복용을 권유하는데, 이분량은 미국정부와 전문의학회에서 권장하는 "1일 과일과 야채 5회 serving" 중에 들어있는 C 섭취분량과 같다. 그런데 다량의 과일 야채섭취가 심장혈관질환과 암 등의 위험도를 낮추지만, 비타민 C 보조제복용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효과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1970-80년대에 폴링 팀이 시행한 "암 말기환자에 대한 C 대량투여 (1일 10Gm 이상) 연구"결과 환자 생존을 연장시키고 말기 환자의 삶의 질(QOL)을 높인다고 했다. 그러나 Mayo 클리닉에서 실시한 RCT는 실험집단이 그 對照群(C를 복용 않는)보다 이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암 환자에게 C 투여가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지만, C 투여를 암에 유효한 다른 치료(화학요법

과 방사선 등)를 대치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미국 癌學會(ACS)회의에서 암 환자에게 C를 투여하면 암세포육성을 助長시키거나, 암 치료효과를 줄인다는 보고도 있다.

"Vitamin C and Cancer"라는 광범위한 조사보고서가 그의 사망 1년 전인 1993년 미국에서 출판된 바 있다 (Rev. Prat., Jan, 1993). 비타민 C와 암 문제에 관해 세계에서 권위 있는 132개의 연구문헌을 분석평가 한 논문인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발암물질은 외부환경인자로 인해 생기는 일이 많으며, 어떤 비타민은 이러한 외부인자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역학조사에서 이 보호작용을 인정하는 데이터가 무수히 나와있지만, 애매하거나 부정적인 데이터도 많다. 그러나 현재(1993년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는 실험 연구결과 몇 년 내로 비타민 C가 암 치료에 유용한 보조제가 될 것이 기대된다."

이와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신 醫學은 폴링을 외면해버렸다. 그의 비타민 C 이론은 어디까지나 천재적 直觀으로 이루어진 기초과학연구결과에 불과하고, 임상적 과학에 바탕을 둔 EBM (evidence-based medicine)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는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s)가 아니고 역학적 연구조사(Cohort study)도 없었다. EBM에서는 大家나 天才들의 주장을 별다른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며, EBM이 지배하는 현대의 학에서는 폴링의 "비타민 C 신화"는 무너지고 있다.

## 祝發展

開拓者 동문들의 삶을 기록하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

ARBOR ENGINEERS & PLANNERS, LTD.

4935 N. ELSTON AVE.

CHICAGO, ILLINOIS 60630

☎(773)286-8806 · FAX(773)286-8912

BEEPER(312)688-8407

鄭昇圭 (공대 64년졸)

SUNG K. JUNG

Licensed Architect

Licensed Structural Engineer

Licensed Professional Engineer

## 書評

## 구한말의 개혁 독립투사 서재필

李庭植(펜실바니아대학 정치학과 명예교수), 구한말의 개혁 독립투사 서재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년 4월

## 敵期에 나온 서재필 전기

한국인 최초로 현대학을 공부한 의사요 한국근대화운동의 선구자이신 서재필 박사는 우리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뿐만 아니라 한국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개혁가요 지도자이다. 宗主國 중국만 받들던 조선양반사회에서 태어난 그는, 못난 전통의 족쇄를 벗어 버리고 독립해야 한다는 주권의식을 강조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통한 국민계몽으로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사상과 민주주의개념을 보급하여 전통봉건사회타파를 고취시켰다. 독립신문으로 시작한 한글위주의 언론일치교육은 은둔의 나라가 선진국문화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세 젊은 나이에 이미 봉건사회개혁을 위한 갑신혁명의 주역이 되고, 조국근대화의 집념으로 일관한 생애가 그의 일생이다. 조국이 근대화에 성공하여 세계의 先進國 되기를 열망했던 서재필 사상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었으며, 수구세력인 전통사회로부터 미련 없이 탈각하는 일이었다.

서재필 사상을 접하면서 서평자는 "자기역사를 찾는 것 보다 미래의 꿈을 즐겨야한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생각해 본다. 켄케목은 옛 것을 차버리고 새로움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 서재필 사상의 가르침이다. 남북한관계를 비롯한 다난한 국제정세와 전통의학과수 등 사회갈등이 뒤얽힌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서, 조국근대화과학화를 호소한 개혁가이며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고자 하였습시다. 독립투사인 서재필 박사 같은 지도자가 지금 절실히 갈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서재필 연구가며 한국근대사의 권위자인 이정식 교수의 역작 '구한말의 개혁 독립투사 서재필'의 발간을 보게되었으니, 한국의 독서인을 위해 크게 경하할 일이라 하겠다.

## &lt;증거에 바탕 둔 역사전기&gt;

저자는 미국에 잘 알려져 있는 정치학자이자 저술가로, 미국정치학회의 최우수저작상 수상자이다. 중국에서 소년기를 보낸 그는 일본어 중국어에 통달하며 그의 많은 저작은 우리 동양 3국(한중일)에 관한 것이고, 이 분야의 국제학계에서 첫손꼽는 정치역사학자다. 李교수의 한국어 저서로 김규식의 생애, 서재필의 미국망명시절이 있고, 이승만의 젊은 시절을 비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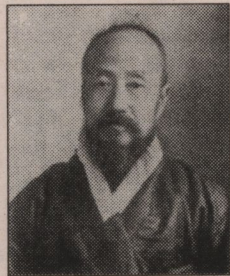
한 英文저작의 한국어 번역판들이 나와있다.

그의 학자적 역량으로 보아 서재필 전기집필의 최적임자 일 뿐 아니라 책에서 저자 자신이 언급했지만, 저자와 서재필은 활동연대차이로 서로 만난 적은 없으나, 직접간접으로 특별한 인연과 유사점을 갖고 있다. 무일푼으로 낫선 땅 미국에 와서 고학한 이력이 서로 비슷하며, 만년에 서박사가 다시 의사교육 받던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저자는 반생을 정치과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필라델피아 근교의 서박사 거주지(현재 기념관이 있음)근처에 살며, 서 박사 딸(작고)과는 서로 가족처럼 지나는 사이였다. 이러한 연고로 그는 서재필 기념관설립책임자 직책을 맡아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으며, 1세기 전 미국에서의 서 박사의 발자취를 추적조사해서 1984년 "서재필- 미국망명시절(서울, 정음사, 1984)"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의 말미에 쓴 글 "서재필의 행적을 찾아서"에서 그는 1959년부터 1980년까지 자료수집 차 그의 발자취를 따라 방방곡곡 찾아다니던 기나긴 Odyssey를 적었다. 서재필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장소나 인물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내어 그에 관한 기사나 서류나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다.

이번에 출판된 전기는 학계의 모든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그의 전기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하고 또한 개혁사상가와 독립투사로서의 서재필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니, 말하자면 서재필 사상과 일생의 집대성이라 하겠다.

필자는 저자와 오랜知己요 이웃사촌으로서 긴 세월동안 그의 학문을 옆에서 지켜보는 영광을 가졌다. 그가 쓴 전기는 전적으로 과학적 자료수집 및 인용과 현지 답사확인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쓴 전기를 필자는 "증거에 바탕을 둔 사회과학" (Evidence-based Science) 책이라고 주변친지들에게 말해왔다. 그런데도 저자는 책에서 너무나 주석을 많이 달고, 문헌인용을 자주해서 독자에게 미안하다고 썼다. 서평자는 그와 전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는 자기원고를 보내주며 특수분야에 대한 의견을 묻고 특히 의화문제를 확인하는, 겸손하고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저술가다.

흔히 위인전 영웅전기는 자자의 표현에 따라 사실이 과장되고 심지어는 픽션화되어 인간을 초인적으로 신격화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서재필

이 박사가 쓴 전기는 어디까지나 사실(事實)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과학

자의 글이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서평자는 미국의 일본역사학자 Herbert P. Bix 교수가 쓴 Hirohito of Japan을 소개한 Y씨의 책평을 읽고, 박열 열사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었다. 마치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Theodore White가 그의 저서 (In Search of History)에서 상해 홍구공원 폭탄사건에 대해 쓴 영타리 추측기사처럼, 동양사정에 어두운 미국사람인지라 잘못된 추측기사도 가능하다는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李 박사와 대화하는 중 이 의심을 말했더니 대뜸 그의 반응이 "미국학자는 언론인과 다를다. White는 언론인이라 경솔하게 그런 실수 할 수가 있었지만, Bix는 학자입니다"라 하는 대답이었다. 그 후 바로 Bix의 두터운 책을 구해서 통독했더니, 결국 책을 소개한 Y씨가 잘못 인용했음을 알게되었다.

이렇듯 이 박사는 독선적인 학자가 아니며 동료들을 보호하고, 책에서 보듯 한국 사회학계의 지기들의 글을 높이 평가하며 많이 인용하고있는 진솔한 학자임을 말하고 싶다.

## 책 내용

440쪽이나 되는 방대한 책 내용을 다 소개하기란 불가능하며, 다만 관심을 가진 여러분의 一讀을 권장하기 위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이번 책은 4부로 나누어있어, 제1부에서는 갑신정변이 실패하여 미국망명길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李博士에 의하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에서 일본식 개혁을 모색했던 이유를 서재필은 다음같이 말했다. "歐美의 文明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열강들이 몇 백년동안 경쟁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졌는데, 일본은 한 세대동안에 그것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개화당은 자연히 일본을 모델로 택하여 백방으로 노력한 것이다". 三天下의 정변이 실패한 후 망명의 길에 올라 미국대륙에 첫발 디딘 모습을 서재필 자신이 표현하기를 "우리는 태평양의 거친 파도에 밀려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표착한 쓰레기처럼 외롭고 가엾어 보이는 존재들이었다"고 했다.

제2부는 미국유학생에서 한국최

초의 洋醫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맨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다음 장 참조).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 할 제3부는 애써 취득한 미국의사를 버리고, 한국말엽에 귀국해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통해 활동하는 내용이다. 저자의 글을 인용해본다.

"20세 나이로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망명길에 올랐던 서재필이 洋醫가 되어 되돌아와 그토록 큰 역할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었다. 윤치호는 서재필 선생이 "압박 받는 한국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배재학당에 다녔던 이승만은 서재필로부터 "서양나라 시민들은 그들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고있다는 사실을 생전 처음 듣고 가슴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신홍우는 서재필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조선에 처음으로 가져다주었다고 했다. 서재필은 독립신문 논설에서 서울과 지방의 차별대우를 철폐하라는 글을 발표하고, 세계에서 제1 불쌍한 백성은 조선백성인데 그 중에도 조선시골백성이라 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관찰사와 군수는 백성을 시켜 뽑게 한다고 알렸다."

구한말 조선의 개화세력은 일본의 후원을 받고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친일파였다는 비난과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일본의 후원을 받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세가 조선의 불행이었다. 서재필이 1898년 귀국해서 처음 발표한 글에서 "나는 조선이 장차 강대국의 하나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한 것처럼, 그가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한 방법을 써서라도 조선이 선진국대열에 동참하기를 소원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에 속았던 開化黨의 愛國心を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이 박사를 비롯한 후세 역사가들은 말하고있다.

서재필이 미국에서 터득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이라는 것과 "관리가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래서 그의 소신은 조선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하여 국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재필이 귀국 후 국민과 관리의 계몽과 교육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저자는 논평한다.

제 4부에서는 서재필은 꺼져 가는 조선에서 쫓겨나 2차 망명하게 되고, 외로운 미국생활을 한다. 62세에 다시 의학재수를 하여 의사생활에 돌아갔으며, 1947년 83세에 미군정의 고문관이 되어 노구를 이끌고 귀국했다가 조국의

분단을 슬퍼하며 미국에 되돌아간다.

## 의사 서재필

부모형제와 처자들이 처형당한 후 처참한 과거를 잊기 위해 타국(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 택한 직업이 의사라고 書評者는 짐작해왔다. 그러나 사실인즉 의사직업은 그가 고학으로 대학에 다니면서 일하던 장소와의 우연한 인연으로 맺어진 직업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때 마침 수도 워싱턴의 군의학의 의학(군의학)도서관에서 동양 의학서적의 목록을 만들고 정리하기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해독하는 사람을 필요로 했으며, 여기에 일본 군사학교 유학생경력도 어려서 한문 고전을 통달한 서재필이 가장 적임자였다. 종일 의학문서와 대면하는 중 의학에 흥미를 갖게 됐던 것이다. 여기서 훗날 군의감 Walter Reed 박사(세계굴지의 미국 육군병원의 이름은 그를 기념하기 위한 것임)도 만나게 된다.

서재필은 주경야독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에 나가, Corcoran 야간대학을 마치고 1889년 Columbian 대학(현 조지 워싱턴 대학)의 야간 의학부 학생이 되었다. 그리하여 1892년에 28살때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M.D. 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불안한 祖國의 정세는 그를 의사직업에 안주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2차 망명 후 의사와 거리가 멀어진 그는 사업가(인쇄업을 하는)로 변신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되었다. 그러다가 3·1운동 이후 그는 조국독립운동에 모든 정력과 재산을 바치고 보니, 노년기에 접어들어 그는 가진 것 없는 빈털털이가 되어버렸다. 가족 부양을 위해 62세(1926년)나이에 그는 펜실바니아 의과대학에 재수 학생이 되어, 다시 의사자격을 얻었으며, 65세에 병리학 전문의가 됐으니 과연 그는 비범한 인물이었다.

20여 년의 의학공백과 70세 노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미국 의학 잡지에 5편의 논문을 남긴 그의 탁월한 두뇌와 강인한 노력은 우리를 감탄케 할 따름이다.

그는 80세가 지난 뒤에도 필라델피아 근교, 현재 그의 기념관이 있는 미디어에서 소규모개업의를 계속하시다가 86세로 서거하셨다. 그는 지금 서울의 국립묘지에 영면하고 있다.

一生을 조국의 앞날을 염려하다가 가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서재필박사의 전기의 일독을 독자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書評者: 金日勳

# 록키산맥의 동창들과 다시 만나면서 지역사회에 奉仕하는 서울대동창회

柳光鉉(문리대 64년졸)

이년 전 Colorado Springs에 정착하자마자 형제 친척 이전에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 "너무 외롭네요. 우리 동창회 합시다" 라고 종용했던 대상 인물이 바로 이번에 우리가 선출한 김봉전 회장이다. 지난 36년간 미국생활을 하면서 역마(驛馬)살이 끼였는지 대도시만을 다섯 군데 이사하며 사는 가운데, 새 지역에 가자마자 제일먼저 두드러진 곳은 물론 동창회였다. 동창생을 찾을 수 없었던 Colorado Springs에 오자마자 처음 느낀 답답한 기분은 연못을 떠난 물고기(fish out of pond) 같았다. 그러나 할까? 우리 서울대인은 우리가 리만 주고받는 특수한 言語가 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은 시원시원 서로 말도 못하면서, 조심조심 겸손을 보이며, 피상적인 대화를 안 할 수 없는 패턴인데, 이런 때에는 나는 적응하려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래서 나는 혼자말로 우리 동창회는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임(society of mutual respect) 이므로 보통 한국사람들이 모여서 연출하는 잘난 사람 제자랑 모임(Bragging Party)과는 다르다고 독백하곤 한다. 그러나 韓人모임치고 우리 동창회처럼 교수, 박사, 의사, 목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은 모임은 없다. 우리 동창 각 개인은 모두가 뛰어난 분(over achiever)들이므로, 다 잠재적으로 獨不將軍이요, 天上天下 唯我獨尊의 귀하신 분들이니, 우리들은 처음 만날 때부터 먼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칭찬을 서로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른 모임과는 달리 어느 同門이 질시와 혐오꺼리가 될 자기자랑을 해도 그것이 듣기에 즐겁고 밋지 않은 것은, 각자가 제각기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故國에서 대기업의 理事나 部長 지낸 어느 동문이 지금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해도 동문 서로간에는 그 분은 대견스럽고 존경스러울 뿐이다.

사실 나는 내 소개를 해야될 경우가 있으면 혼자말로 마음으로는 이렇게 준비하고 싶다. "저는 나만치 卍世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바다 구경 할 수 없는 한반도의 內陸 충청북도의 증평이라는 데서 가난한 초등학교 교장의 아들로 태어나 초·중등학교시절을 고향에서 보내고 淸州高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생"이 되자,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적이 없는 人口 일만명 정도의 나의 고향 邑內에서 당시로는 큰 話題가 되었지요. 마치 科擧及第한 양, "원님"(읍장님)께서 보자는 거예요. 진한 靑色(navy blue) 校服에 노란 서울대 마크를 번쩍이며 岳長室로 步武당당하게 들어갔지요. 그때 다 좋았는데 아마 달아빠진 軍靴 짝

(oversize walker)은 과거급제한 進士격에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며칠 후 읍장님이 보낸 선물은 까만 가죽구두였습니다. 며칠 동안 머리맡에 두고 흠을 문힐새라 방안에서만 신고 다녔지요. 서울대생이었던 덕분에 쌍립동 1번지에서 태어난 "배꽃아가씨 큰배움집"의 서울 색사와 결혼했으니 그것도 卍世지요. 文理大생이 되어 "大學中の 大學" 다닌다고 은근한 자부심을 가졌었지요. 교양학부 때, Samuelson의 經濟原論을 "원어(原語)"로 읽으며 글씨 서울의 일류대학이라는 모모대학의 경영학과생들이 번역판을 가지고 써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기 0·X 高等學生들 온다." 하며 우리끼리 수군대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 헛갈리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놈의 家庭教師 노릇하며 주눅들어서 서울대인의 진가와 보람을 깊이 인식 못하고 일단 校庭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떼어놓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注目과 期待와 羨望이 대단함을 느끼며 살아온 것이지요. 결국 우리 친구들은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 열심히 살다보니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가 된 것이지요. 이런 "지도자"들 속에 끼여 형님 동생하며 學窓 시절의 향수를 달래고 時局을 논하고 情談을 피우며 나도 큰 人物이 된 양 흐뭇해질 때처럼 즐거워 한 적이 없었지요. 우리 先祖들은 꿈도 못꾸던 太平洋을 건너, 요즈음 어수선한 시절에 "미국의 平和(PAX AMERICANA)"시대를 연 세계 唯一의 超強國이며 英國보다 더 민주화된 "아름다운 나라"에서 市民생활을 향유하고 있다면 卍世라면 출세 아니겠습니까? 그때 文理大 친구들이 들으면 小市民 근성이 빼어 절었다고 물론 한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요즈음 기본 같아서는 노골적인 大國主義의 行態를 보이고 있는 美國의 오만성에 反戰데모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록키마운틴즈 동창회 定款에 婦人들을 준회원으로 한 것 참 잘했습니다. 까다로운 "서울대인"을 따라서 오만 고생 참고 살아온 아내들이 우리들 출세의 최고 공로자들이 아니겠어요? 우리동창 모임은 늘 同夫人하여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끼리 서로 부담없이 다룬대가서 못하는 웃자랑, 반지자랑, 자식자랑 마음껏 하여 stress 풀게 하시려구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구태어 하자면, 오랜 세월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저를 아직까지 그래도 끔찍이 사랑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서울대물"(동승동 뒀산에서 흐르던 맑은 鰯川)을 먹은 이유도 코지 않을까요? 이제 록키산맥의 卍神靈의 精氣까지 담은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언행은 삼십 년을 하루같이 살



아온 아내에게는 그 진실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사람의 感覺 아니겠어요? 또 각자 제 잘난 기분(elitism)을 꺾는 것은 夫婦間에도 있어요. 내가 만일 他大學 출신이었다면 우리 마누라의 內내심이 이렇게 無限할까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지난 번 朴性宙(공대 47년 입) 선배님께서 저의 Seattle에서 동창회장 지낸 경력을 왜 뺏느냐고 하셔서,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세상의 어느 지위보다도 동창회를 대표했다는 것은 저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은 100% 출석하여 무슨 일든 사양 않고 했지요. 동창회의 온갖 일(간사, 임원, 총무, 부회장) 두루 역임 하다보니, 마치 主事로 출발하여 長官이 되듯, 할 수 없이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동창회가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으니 용서하십시오. 얼마 전 중국 연변 지역에서 宣敎 사역하는 전도사로부터 기승 몽글한 얘기를 들었다. 조기 또는 정년 퇴직한 韓國의 교수님들이 와서 거의 無給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두 번째 인생의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우리끼리 모여 팔프치고 會食하며 은근히 제자랑하며 귀은 일, 좋은 일 서로 相扶相助하여 이름답고 끈끈한 유대를 발전시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주위의 韓人 移民社會가 우리를 보는 시선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嫉視보다는 우리 서울대동창생들에 대한 期待가 훨씬 크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 시애틀에서 동창회장이 되자 僑民社會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중고 컴퓨터를 10여대 구입하여 "컴맹" 퇴치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韓人會에서 기꺼이 제공한 장소에서, "서울대 동창회"의 이름으로 4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1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이것을 그 후에도 한인회의 지속적인 사업이 되게 했었다. 지금도 그때 한 수강생이 한 말 ("당신네들은 엘리트라고 '가다만 재고 뽐내는 줄만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봉사하는걸 보니 머리가 숙여집니다")이 지금도 생각난다. 이곳 덴버지역에서도 지금까지 박성주 선배님께서 교포 老人들을 위해 봉사해왔고, 노인대학 또는 노인 복지시설 설립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는 줄 안다. 또, 찾아보면 지역사회를 위하여 할

일은 많이 있다고 본다. 시민권 취득 세미나, 이민생활 영어 및 컴퓨터 강좌, 의료상담, 사업인들을 위한 조세법세미나, 양로원 위문, 장학사업 등등.

英國의 역사가 Toynbee는, 世界 歷史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상호작용의 부산물이라고 설교했다. 우리가 자주 만나서 家智를 모을 때 새로운 뜻있는 일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세울 수 있다. 만나서 의논하지 않으면 무슨 뜻있는 일이 생겨나겠는가? 서울대학교동창회의 motto인 參與, 協力, 榮光의 정신을 살려 冠岳과 록키산맥의 精氣를 받은 우리 록키마운틴즈 동창회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아름답게 피어 나아가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나는 고국에서 盧武鉉 대통령 정부의 출현을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대 동문들의 머리에 힘입어 당선된 大統領袖에서, 大學平準화란 이름 아래, 그 두뇌집단(brain trust)을 배출한 서울대학교 폐지론이란 발상을 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爲政者들로부터 특하면 韓國

을 세계 10대 先進國으로 進入시킨다는 목표를 많이 들어왔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수한 많은 人才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런데 현재 世界의 先進國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干城들을 많이 배출한 Oxford, Cambridge, Harvard, Princeton, Sorbonne 같은 세계 최고수준의 高等教育機關에 힘입은 바 크다면, 韓國은 서울대를 폐지하고 世界의 先進國으로 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싶다. 그런데 서울대인들이 한국사회의 주요직위를 獨占 현상을 社會不條理의 근원으로 보는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미친 사람 널뛰듯이 일관성 없는 文教政策 當路者의 신경질 같기도 한 이러한 서울대 폐지론의 발상을 간파할 수 없는 이유는, 서울대인들이 관련된 부정적 언론 보도를 우리는 심심찮게 보기 때문이다. 이를 때일수록 우리 7,000여 在美동창생들은 美洲사회에서도 동창들간에 좋은 일을 위하여 상호 격려함으로써 母校의 진정된 영광과 발전을 위하여 겸허하게 처신할 것을 서로 다짐할 때라고 생각한다.

## 스승 · 제자 3대가 다시쓰는 책



### 경제학원론

- 조순·정운찬·전성인 교수 '경제학원론' 7판 함께 펴내

조순(趙淳·75) 서울대 명예교수와 조 교수의 제자인 정운찬(鄭雲燦·55) 서울대 총장, 또 정 총장에게 배운 전성인(全聖寅·44) 홍익대 교수 등 '학문 3대(代)'의 지적 협력이 학계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세 교수의 이름을 달고 이번주 유곡출판사에서 나온 '경제학원론' 7판을 두고 하는 말이다. 74년 조순 교수가 집필한 '경제학원론' 7판을 두고 하는 말이다. 74년 조순 교수가 집필한 '경제학원론'은 수많은 대학에서 교과서로 채택된 베스트셀러. 경제학도가 아니더라도 사회과학에 관심있으면 한번쯤 들춰보는 필독서였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신(新) 고전파의 주류경제학을 현실과 연결시켜 쉬운 문체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교수가 88년 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부임하기위해 학교를 떠나면서 이 책이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 쏠아지는 최신 이론과 급변하는 경제현상을 수용해야하는데, 이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떠맡은 게 조교수가

양성한 대표적 후학으로 손꼽히는 정 교수였다. 조 교수는 대학 졸업 후 한국은행에서 일하던 정 교수를 등 떠밀다시피 미국 유학을 보낼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

정 교수의 수정 보완을 거친 '경제학원론'은 '게임이론'과 '일반균형이론'등을 추가하고 40개장(章)을 34개 장으로 줄이는 등, 대폭 개편, 90년 제 4전정판으로 선보였다. 조순교수는 제자 이름에 당연히 정운찬 교수 이름을 등재해 이 책은 공저(共著)가 됐다.

세월이 또 흘렀다. 소장학자로 스승과 이름을 나란히 했던 정 교수도 어느덧 50대 중반의 중견학자가 됐고, 작년에는 서울대 총장에 취임,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됐다. '경제학원론'을 다시 손보는 역할은 정교수의 제자인 전성인 교수에게 넘어왔다. 전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회계 금융론' 전공자. 83년 '경제학원론' 개편 당시, 대학원생으로 교정과 색인 작업에 참가한 경력이 있었다.

'경제학원론'이 지금까지 얼마나 팔렸는지는 조교수도 잘 모르는 듯했다. 그는 '10여만권쯤 나가지 않았을 까요?'하고 되물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판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세대차이 때문에 대화조차 어려운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문 3대가 한 자리에 모여 책을 내게 됐으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올해로 출간 30년째 되는 '경제학원론'의 제자란에는 물론 전교수의 이름도 올라가, 3인 공저가 됐다. <자료원=한국고등교육재단 뉴스레터, 2003년>

# 지역동창회의 활성화와 재미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

金好元(치대 52입, 전 하트랜드 지역동창회장)

### 序論

오늘 이 자리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미래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다양한 생활 여건속에서 지리적으로 산재한 동문들의 유대와 결속을 다지며 재미 총동창회라는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正體性을 지니며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것을 생각해 볼 때 창기부터 지금까지 총동창회를 이끌어 오신 심포지움 발제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미려이어나 본인의 평소 생각을 몇 가지 오늘의 토론의 과제로서 제기 하고자 한다. 본인의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의 활동 경험과 재미 동창회보 지면을 통하여 느껴지는 총동창회의 운영상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들 토론의 과제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문제를 대별하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結構, 財政에 관한 것과 총동창회의 未來와 관계된 과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Heartland지부의 경우 현재 KS. NE. IA. OK. AR. MO 6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캔사스를 중심으로 하여 그 분포 거리를 보면 다름과 같다.

NE(Omaha) - 198 mile (3.5 시간); IA(Iowa City) - 321 mile (5시간 45분); OK - 332 mile (6시간); MO (Columbia) - 136 mile (2시간); MO (St. Louis) -255 mile(4.5시간); AR (Little Rock) - 412 mile(7.5시간)

이상과 같은 거리와 시간대의 동문들이 살고 있어서 현 하트랜드 지부의 경우 위 각 지역별로 지부를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역동창회를 보다 활성화하며 총동창회의 하부조직으로서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Heartland의 경우, 각 지역이 회칙에 규정된 지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 학생수가 많아서 유동인원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평의원회에 65명[12차 평의원회 정원 67명]의 의원 중에서 채 과반수도 못되는 28명만 참가하고 어느 대도시는 7명의 평의원중 1명만이 참석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의 개선 없이는 재미 총동창회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결속력이 강한 지역동창회가 구성되어 총동창회 평의원회에 대표된다면 총동창회는 활성화되리라 본다.

### <평의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현재 평의원회는 총동창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운영기관이다. 그런데 현재 평의원을 평가할 때 총평의원수가 65명[12차 평의원회 67명]인데 정원의 절반도 참석하지 않는 부진한 평의원회의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각 지부동창회의 의사가 총동창회의 활동에 충분히 반영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평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지부동창회를 활성화하고 평의원회 회의에 참석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평의원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평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부별로 예정된 평의원 숫자에 따라 최소한의 평의원 회비를 지역동창회 예산으로 연초에 총동창회에 납입하고, 3일간 계속되는 평의원회에 참가하는 여행 및 숙박경비는 총동창회의 예산으로 지출한다면 평의원회의에 평의원들의 출석율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조직에도 그 성공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규모에 대하여, 소위 경제학에서 제기하는 規模의 經濟란 이론을 생각하게 된다. 結構이란 무조건 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웃동문들간에 相扶相助하는 지역동창회의 결속력을 재미 총동창회란 일견 추상적인 조직에 동력원으로써 도입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역 동창회를 적절한 규모의 단위로 재구성할 것인가란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는 각 지역 동창회가 총동창회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인가 이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지역동창회 숫자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새로운 지부 창설, 캐나다 지역동창회의 영입 및 현재의 대도시 광역동창회를 분할하여 상호간에 친근하고 결속력있는 규모의 단위로 분할 재조직할 것을 제의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도시등에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단과대학별 동창회를 총동창회의 평의원회에 대표되는 하부 조직으로 영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적정규모의 지역동창회를 조직하여 그 숫자를 증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 위하여 하트랜드 지역동창회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고자 한다.

현재 Heartland지부의 경우 회비로 일반동문들은 \$30 학생동문들은 \$15로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총동창회에서도 이와 같이 회비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동창회와 협력하여 그 회비 징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B <지역동창회 분담금제도>



현행 분담금제도는 재미 총동창회 본부에서 그 지역의 동문들 숫자를 감안하여 책정한 것인데 금액으로 따져 보면 지역동창회의 회비제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있다. 즉 재미 총동창회 지원금, 모금 총동창회 지원금을 위한 배정된 분담금이 그것이다. 현재 재미 총동창회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정권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판국에 이 분담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 C <관악후원회와 100만원 母校돕기 모금 위원회>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미주 관악 후원회와 母校 돕기 100만원 모금 위원회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총동창회의 지도력이 二元化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함이 합당할 줄로 본다. 또한 모금운동이 각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혼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축소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미 동문들의 愛心으로 母校를 돕는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의의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총동창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총동창회 자체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위에 있지 않는 지금의 여건을 감안할 때 外來內劑의 체제를 현실화하는 일이 절실하여 그 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 3. 총회와 평의원회의 중소도시 개혁문제

지금까지 총회나 평의원회의를 대도시 중심으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중소도시도 포함시켜 순회회의를 갖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이러한 시도는 회원수가 적거나 또는 지역적으로 고립된 지부들과의 유대 증대에 따른 총동창회 활성화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4. 회원의 노령화와 1.5세대의 영입 문제

재미 총동창회의 회원들의 노령화와 젊은 회원들의 계속적인 영입문제는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지리란 많은 우리 자녀들과 동창회와의 관계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미국에 산재하고 있는 韓人계 기독교회는 1.5세대 2세대들을 위해 영어권 예배나 미사를 별도로 드리고 있다. 이는 자라나는 후세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한인계 교회가 몇 세기 동안이나 지탱되어 나갈 것인가 의문시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구성 회원이 老齡化 되어가고 있는 서울대동창회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현재 1.5세대에는 소위 Korean-American Coalition이라는 조직이 있으며 이 조직이 美主流 사회와 정계에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

<편집자 주> 이 글은 작년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 前夜에 있었던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10주년기념 심포지움 발제논고였음.

심포지움 주제: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제언"  
2002년 6월 14일 금요일 오후7시  
Oak Brook Hills HOTEL, Court A-C room, Oak Brook, IL

나 이들은 현재는 뚜렷한 실적을 이룬 바는 없으나 그들은 이미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Identity)을 실감하고 미주류 사회에 동참하고자 조지력을 다지고 있다. 이는 우리들이 칭찬하고 공감대를 구성하는데 조금도 인색하면 안 된다고 본다. 이 문제는 여기서 성장하고 있는 많은 동문 자녀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미 총동창회의 미래의 사업과제로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본인은 얼마 전에 미주한인총련 주최로 Washington D.C.에서 Kore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 행사는 많은 교민들로부터 호응과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1.5세대들은 그들의 존재를 일컬어 '미래의 主役이자 希望의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 (1983년 3월 9일 UCLA의 Asian-American Center와 Korean Youth Center에서 가진 The Hankook American Cultural Community Seminar 자료집에서). 또, 현재 Korean-American Coalition(KAC) 사무국장으로 있는 Charles Kim은 1.5세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한국의 전통, 역사, 문화 및 선조들을 잘 이해하고 실제적인 가치로 수용하는 세대를 말한다' (This transition generation is a generation which appreciates the tradition, history, culture and ancestors of Korea, and in addition, accepts practical values).

즉, 그들이 제안한 1.5세대는 '1세대와 2세대의 중간에 위치한 세대로 한국사회와 미국사회를 이해하며, 英語와 韓國語를 모두 구사함으로써,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기성세대와 미국에서 태어난 청소년 세대를 모두 이해할 뿐만 아니라, 두개의 상반된 文化적체계의 價値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세대 개념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1.5세대의 주역으로서 韓人社會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1세대로나 2세대로 분류되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우리 재미동문들이 처한 현실을 주목하고싶다. 즉, 재미동문들은 美主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국인이지, 한국인으로서 미국내의 한인사회 내에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인의 文化遺産을 완전히 망각하고 美國文化에 동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로서 지난번 평의원회의에서도 약간 논의된 바 있지만, 재미서울대총동창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1.5세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동창회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을것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동창회에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자연적인 세대교체에 따른 동창회의 조직기반의 보존을 위해서도 이론제는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들자면 흔히 지역동창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 同門 자녀를 우선하는 것을 당연시하는데 장차 이들은 과연 서울대 동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인가?

5. 재미 총동창회 회관건립의 필요성  
동창회의 영구적인 존속이 긴요하다고 볼 때 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분석해본다  
현재까지 총동창회 회장은 대도시에서

순번제로 역임해 왔다. 그 원인은 첫째 인력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총동창회의 운영을 뒷받침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주요 사업인 동창회 회보 발행의 뒷받침에 큰 몫을 차지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동창 회관 건립이 지금의 AMA(미국 의사협회), ADA(미국치과의사 협회)등이 Chicago에 본부를 두고 있고 임직원들이 상근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이사나 회장은 다른 지역이나 도시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선출하여왔다. 만약 우리들 동창회가 이러한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이상적인 동창회가 되고 회장이 바뀔 때마다 회보 발행 등 모든 것이 잠시 동안 중단되거나 편향적인 방향으로 편집노선을 취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창회원들의 재정적 능력을 외부로 소비하기 이전에 미주동창회 발전에 관심을 둔다면, 재미서울대동창회관 건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6. '知的奉仕團' 및 학술교류 방안

최근 신임 모교 총동창회장의 취임사에서도 다시 언급되었듯이 이진부터 재미 총동창회는 모교를 발전시키는 우리 동문들의 노력이 일환으로써 가장 지적봉사의 개념을 거론해 왔다. 이에 본인은 몇가지 전초적인 시안을 토론의 과제로 아래와 같이 제기하고자 한다. 1) 학술 교류를 위해 재미 동창들이 母校의 교육 및 연구과정에 참여하거나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며, 2) 母校에서 연사를 구성하여 미주순회 세미나나 순회 예술공연을 개최하며 3) 방학 기간 또는 교수진의 안식년을 이용하여 교환교수 형식으로 모교와 미주동문들이 재직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과 교류를 추진하며 지역동창회의 봉사활동에 참여

### 맺는말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인의 소견은 우리 동문들 모두가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미주대륙에 새로운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뿌리를 내린 우리들은 우리 동문들의 자체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를 키운 모교를 한국의 최고 대학으로부터 세계화의 시대에 있어 세계적인 선진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우리 재미동문들의 역할을 근린의 형제 자매의 상부상조의 정을 나누는 지역동창회의 기능을 넘어서서, 내실있는 자체동창회의 안정성을 최우선순위로 가져와야 된다. 이번 심포지움이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를 역동적인 조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여러 동문들과 함께 소망하면서 본인의 발제를 마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祝發展

재미서울대동창회보  
AESOP DISPLAY STUDIO, INC.  
GRAPHIC DESIGN & ART  
SILK SCREEN PRINTING  
1741 N. Western Ave.,  
Chicago, IL 60647  
☎ 773-772-8482 Fax : 773-772-8744  
E-mail  
aesop.display@worldnet.att.net

임이섭(미대 59년 졸)

SNUA OPINION LEADER

# 항생제 내성 일으키는 유전자 발견

우리 나라의 항생제 내성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균과 항생제의 싸움에서 세균이 완승을 거두고 있고 항생제를 파괴시키는 효소를 분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슈퍼 박테리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세균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패혈증에 감염될 경우 치료제가 없는 지금으로서는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최근 영동대 연구진에 의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됐다.

충북 영동대 생명공학부 李相喜(88년 自然大卒)교수 연구팀은 병원성 세균에서 26개의 새로운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을 발견했으며 특히 CMY-10과 CMY-11 유전자의 발견으로 이들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의 진화과정과 전이기작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의 화학요법학회지인 「Journal of Antimicrobial Chemotherapy」와 미국 미생물학회지인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에 보고됐다. 위 연구를 통해 얻은 이들 유전자의 발현 산물인 단백질의 X-ray 결정 구조를 토대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세균이 항생제 유입 억제

세균은 크게 그람음성균과 그람양성균으로 나뉘는데 병원성 그람음성균은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페스트, 장간막 림프절염, 창상 감염 등을 일으키고, 병원성 그람양성균은 균혈증, 심내막염, 수막염,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 등을 유발한다. 그람음성균 치료에 임상적 효능이 있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엮피실린이 처음 소개된 이후, 최근 계속해서 개발된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이들 균종에 의한 감염증의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그러나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게되자 이에 내성을 가진 세균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균이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은 다음의 네 가지 기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세균 스스로가 항생제의 유입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세균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송단백질인 포린을 통해 세포 내부로 유입된다. 내성 세균은 바로 이 포린을 제거해 항생제의 출입구를 봉쇄한다. 둘째는, 변형된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세포 내부로 들어온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세균에 있는 페니실린 결합 부위에 결합하여 세균이 세포벽과 합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세균을 사멸시킨다. 그런데 내성세균은 페니실린 결합 부위를 변형하여 유입된 베타-락탐계 항생제가 결합되지 못하도록 한다. 세번째는, 베타-락탐계 항생제를 분해하는 베타-락탐아제 효소를 생성하는 것이다. 내성세균은 플라스미드나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이용하여 항생제를 파괴시키는 효소를 분비하는데 이는 내성기작 중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유입된 베타-락탐계 항생제를 세포 밖으로 방출시키는 기작이다. 내성세균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펌프와 에너지를 이용하여 세포내부로 들어온 항생제를 방출한다.

베타-락탐 환 구조를 가진 항균제를 베타-락탐계 항생제라고 하며 임상적으로 흔히 이용되는 것은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모노박탐, 카바페넴 등이다.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독성이 낮으면서 넓은 항균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생제이다. 따라서 이들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 많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항생제 자주 사용은 내성을 가진 세균을 양산하는 결과 초래

세균이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기전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베타-락탐 환 구조를 분해하는 베타-락탐아제 효소의 생성이다. 이 효소는 아미노산 서열의 상동성 비교를 토대로 A, B, C, D형으로 분류된다. 독일의 Merck社에서는 A, C형의 효소에 견디는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본 연구실에서는 수년 전 병원성 장내 세균에서 내성핵의 가장 중요한 기작인 베타-락탐아제 효소 유전자를 선별하는 방법(RFLD)을 개발했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A형 효소를 발견했다. 세파마이신이나 제3세대 세파로스포린을 분해하는 새로운 C형 효소 유전자의 발견은 새로운 항생제 개발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 병원성 세균으로 전이 활발

영동대 생명공학부 연구팀에서는 12개 대학병원에서 분리한 56개 항생제 내성 병원균에서 새로운 C형 효소 유전자를 연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발견된 CMY-10과 CMY-11은 C형의 베타-락탐아제 효소 유전자이며 발견된 효소의 특성은 페니실린, 2세대 세파로스포린, 3세대 세파로스포린, 모노박탐 등을 분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유전자는 플라스미드에 존재하며 다른 병원성 세균으로의 전이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또한 이들 유전자의 조절부위에는 다른 유전물질 전위요소로의 전위를 매개하는 부위가 발견돼 더욱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유전자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89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였는데 한 환자의 창상검체로부터 분리한 병원체에서 CMY-1 유전자가 발견됐다. 그 이후 2세대 세파로스포린, 3세대 세파로스포린, 모노박탐 등의 항생제 사용 빈도의 증가로 인해 내성 유전

자도 CMY-1에서 CMY-10으로, CMY-10에서 CMY-11로 진화됐다. CMY-1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어 CMY-10이 형성됐고 CMY-10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어 CMY-11이 형성됐다.

위 연구에서는 이들 유전자의 발현 산물인 단백질을 순수 분리하여 결정을 얻고 그 내성 기전을 규명했다. 이러한 일은 그 감염증의 치료지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이다.

## 새로운 항생제 개발 시도

항생제 내성유전자인 CMY-10, CMY-11의 단백질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X선 회절을 이용한 X-ray crystallography를 사용하여 단백질의 결정 구조를 밝혀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X선 회절 결과를 검증기에서 얻은 다음, 이들을 MIR(multiple isomorphous replacement), MR(molecular replacement), 또는 SIR(single isomorphous replacement with anomalous scattering) 등의 방법들을 통해 위상을 결정한다. 결정된 위상을 이용하여 전자밀도 지도를 만들고 있다. 이는 이미 알고 있는 아미노산 서열들을 결정된 각 전자들의 위상에 맞추는 방법으로 단백질의 구조 모델을 결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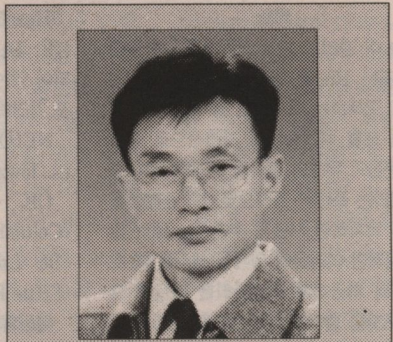
결정된 단백질구조는 CORELS, PROLSQ 및 XPLOR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도계산 → 모형의 수정 → 정밀화 계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밀화된 구조모형을 구하고 이를 분석할 것이다.

## 유전자 은행에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

X선 회절을 이용하면 신규 항생제 및 저해제와의 복합결정구조의 3차 구조를 알아볼 수 있다. 베타-락탐아제 효소와 베타-락탐계 항생제 및 저해제들간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활성부위 또는 결합부위들의 잔기들이 규명된다면, 이들을 토대로 새로운 항생제의 분자설계(structure based drug design)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용한 항생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서울대 자연대 생명과학부 李啓準교수님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 과제로 5년간 계속 지원 받고 있다.

최근에 서울대 의대의 12개 대학병원에서 수집한 임상세균 중 베타-락탐아제 효소를 분비하는 51개의 내성세균으로부터 B, D형의 새로운 유전자가 발견됐으며 그 중 B형인 VIM 유전자는 항생제 카바페넴을 분해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VIM 유



李相喜

- 1988년 모교 자연대 미생물학과 졸업
- 1990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1993년 모교 대학원 박사학위
- 1993~1995년 美 위스콘신대 약대 박사후과정
- 1995~현재 영동대 생명공학부 교수
- 2003~현재 (주)엠비바이오텍 R&D 연구소장

전자를 갖고 있는 내성세균에 대한 치료제는 지금까지는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효소들에 대한 분자설계를 통해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Merck社와의 국제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 가족에 전파가 더욱 심각

현재 항생제 내성균주 은행은 한국과 학제단의 지원으로 서울여대에 설치돼 있으나 우리 나라의 내성 유전자 정보는 아직 충분치 못하며 유전자 분양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항생제 내성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과 사용 및 효과적인 감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크게 도움이 된다. 항생제의 적절한 선택을 위해 항생제 감수성 검사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는 감수성 검사를 위해 디스크 확산법, 액체배지 희석법 등이 사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항생제 내성유전자 은행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 내성 유전자들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 이를 이용하여 내성 유전자의 유무를 묻는 내성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더욱 정확한 감수성(내성)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내성 유전자 정보와 유전자의 분양은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기초를 제공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로서는 외국 기관에서 유전자를 직접 구해오기는 매우 어려워 균주를 가져올 경우, 고가의 분양료를 지불하고도 세균 통관시에 많은 시간적 지체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놀라운 사실은 내성 유전자는 인간의 병원체에 확산되고 있는 것보다 가족의 감염원에 전파돼 있는 정도가 더욱 심각하며 그중 일부는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점이다. 이들 유전자에 대한 정보도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내성세균의 현황 분석, 내성 유전자 정보의 축적, 유전자 분양이 가능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 은행에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일 것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 미동부 지역 최대 골프전문 백화점 그룹 New York Golf 센터 그룹

회장 이 전 구 / Rhee Jun Koo

## Golf 인생

###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쥐욱 뽑으시고 백스윙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공에 정성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스씩 찰싹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 2. 예의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가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 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동에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일세

###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보면 청개구리 공이란 놈 곰배팔이 팽이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맞은 두꺼비가 웅덩이로 뛰어들 듯 돌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 말고 초연함을 잃지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하소

### 4. 과욕은 금물

핸디를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여덟개 기회있고 일흔두번 기대있네 조금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 놈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드니 썩크뽀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하나 전홀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아닌 업보라네

###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거리 남은거리 수학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있나 그린 위에 팔락이는 핀을 슬쩍 노려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옥하고 내려치면 공이란 놈 날라가서 그린 위에 꽃힌다네

###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밭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놓을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보세 자기 것을 계산하고 내가 나를 감독하고 백에라도 단 한 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에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 7. 운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이뤄 기적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홀인원은 못할소냐?

###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여덟 홀 한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님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딱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 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 듯이 없어졌네

### 9. 가정

하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백년을 살아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마소 천사같은 마누라와 토끼같은 우리새끼 저녁밥상 차려놓고 아빠오기 기다리네

시인 이 전 구

New York • Manhattan • Chelsea Piers • Long Island • Port Chester • Valley Stream • Nanuet  
New Jersey • Fort Lee • East Hanover • Saddle Brook • Waldwick • Edison • Springfield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212-564-2255 Fax. 212-244-6941 www.nygolfcenter.com

동창회 소개

워싱턴주 소식

선배들의 "마라폰타" 열정 이어 재건 도모

高義善(법대 68년졸, 동창회 부회장)

거친 이민의 항해 속에 상아탑의 왕자들... 선배들이 마라폰타를 열정적으로 재건하는 모습이...

李惠淑(문리대 63년졸) 동문 등 맹렬한 선배들도 회장으로서 초창기 기틀을 다지는데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1년 회비가 1달러인 시절에 5달러로 5배의 증가를 가져오기까지 무려 십여 년이란 풍상을 겪었고, 오늘날 60달러로 올랐지만 60배의 신장은 가져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李惠淑 회장 (문리대 68년졸)



2002년 8월 동창회 आयुर्विही에 모인 시애틀 동문들.

달리일 때의 선배들의 뚝뚝 똬친 단합의 시절은 세월이 흘러 점점 여러 분야의 사회 활동 속에 지부동창회의 존재가치는 희석되기도 했다. 우리도 활발한 골프회와 장학사업의 의지도 있었다.

우리가 재미있게 모이면 되지, 다른 동문들은 그저 오고 싶으면 오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 곳 인디언 추장들의 회의하는 방식과 만나는 법을 배워간다.

서 그저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기만 한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자 갈 길을 간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었던 기쁨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2002년에는 관에서 온 許允行(사대 65년졸) 동문이 회장의 바톤을 이어받아 봉사했고, 黃秀澤(의대 71년졸)에 이어 2003년 李惠淑(문리대 68년졸) 동문이 회장으로서 봉직하며 지부 동창회는 활활 불꽃을 시작했다.

워싱턴 DC 소식

서울대동창회의 흐름

백순(법대, 62년 졸)

"선배님, 서울대동창회 연말파티가 있는데 참석하시지요."

시골(Knoxville, Tennessee)에서 오래 살다가 이 곳으로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날 차가 스캐일링하러 갔다가 마침 워싱턴지역 서울대동창회장을 하고 있는 L치과의사로부터 초청을 받고 얼마나 흥분하였는지 지금도 기억이 새롭다. 같이 갔던 아내에게 편지를 맞을 특별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서도 아니고, 더구나 잊어버릴 수 없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런 것은 더욱 아니다. 단순히 멀리 수학여행을 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돌아온 자체에 안온함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이와 같이 그저 정도로 초청내용을 몇 번 반복할 만큼 흥분했던 것은, 서울대학 하면 생각나는 오래된 교실과 먼지가 자욱한 교정에서 만나니 같은 젊음을 보냈던 시절이 나를 흥분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깨끗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이발도 깔끔히 하고, 파티복을 멋지게 걸친 아내와 함께 서울대동창회 연말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많은 선배로부터 인사도 받고 음악과 불빛이 찬란한 파티장의 분위기를 대하면서 역시 대도시의 동창회가 다르구나 하는 감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창한 프로그램과 자랑스러운 연설 등을 기대했던 나에게 약간의 실망을 안겨 준 것은 스테이크로 호떡디너가 끝난 후 사교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사교춤이 얼마 지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려니 하고 기대를 하였지만 자정이 넘어 파티가 다 끝날 때까지 사교춤이 파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물론 나 자신이 사교춤을 추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잔치를 몰려다니기 바라만 보면서 멍청이같이 불안한 자리를 지켜야 하는 나의 죄도 있었겠지만, 사교춤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서울대동창회 모임은 주로 동문들간의 친교가 주된 목적이었던 사실이 문제였다.

서울대 동문들 주관한 열성파(?) 회장이었다. 그래서 워싱턴 동창회의 이름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동창회의 지경이 확장되는 시대가 열렸다. 서울대동창회가 그 지경을 확장해 나가면서 동문들의 구성이 다양화되고 또한 젊은 동문들이 동창회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당시 H회장은 동문발달을 위해서 교회마다 모임마다 뛰어다니며 동문 찾기 작전(?)을 진두지휘한 이전시절과 동창회장이 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세계화의 추세에 걸맞게 워싱턴지역 서울대동창회에도 조그마한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란 서울대 동창회 안에 머뭇지 말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사회에도 관심의 방향을 돌려 보자는 것이었다. 그 첫 행사로 M회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울대 동문 음악인을 초청하여 워싱턴지역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공연을 성공시켰다. 커다란 공연장에서 그 유명한 서울대 동문 소프라노 가수가 "그리운 금강산"을 부를 때, 서울대 동문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워싱턴 한인동포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합창을 목이 터져라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울대동창회의 한 회원이 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동문합창단을 초청하여 워싱턴 DC 빈민가의 무숙자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구제사역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는데 노력한 C회장도 서울대동창회의 지역사회화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1986년 가을에 이 곳으로 이주하여 왔으니 금년으로 벌써 17번째 되는 셈이다. 오는 해부터 동창회에 발을 들여놓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참석하면서 좋은 동문 선배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웠고, 워싱턴지역 서울대동창회의 시대적 변화, 즉 서울대 동창회의 친목강화 시대에서 출발하여 전국화 시대, 지역확장 시대, 그리고 지역사회화 시대 등등 변천사를 생각해 보면서 워싱턴지역 서울대동창회가 앞으로 걸어 나아가야 할 방향 두 가지 길을 마음 속에 짊어오았다.

하나는 어느 동창회에도 부가된 같은 과제이겠지만, 워싱턴지역 서울대동창회의 내적강화와 확장을 위하여 동문 모두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사업과 일에만 과몰입 있는 동문들을 연명의 고하를 막론하고 발굴해내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 오래 거주한 동문들의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새로 이 곳에 오는 동문들을 찾아내고 안내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둘은 동창회 밖으로 눈을 돌려 동창회가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지성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명칭에 알맞게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하여 봉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동포들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미국 주류사회에 적응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화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외부지향적인 단체와 조직이 언제나 성장하는 모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다. 워싱턴지역 서울대동창회가 바로 이러한 외부지향적인 모델이 되도록 동문 모두가 힘을 써 보기로 하자.

워싱턴 DC 동창회 送年모임을 기다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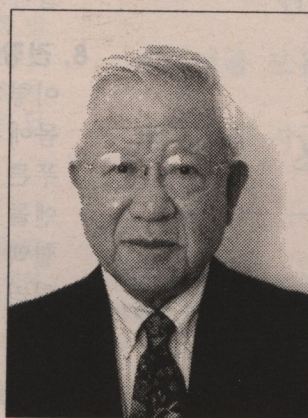
방은호(약대 45년 졸)

마음이 들뜨고 어딘지 모르게童心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니 확실히 크리스마스나 설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추수감사절이 지났으니 공중에는 왕창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으로 가득 차고 모두들 선물 준비로 바쁜듯 온통 祝祭기분이다. 물론 요즘은 테러니 이라크 사태로 많이 뒤숭숭하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대로 흥겨워짐은 웬일인가? 내 나이 80을 내년으로 맞으니 좀 자중하고 좀 빠도 무관할 터인데 말이다. 그런데 이 때가 되면 완전히自我를 잃고 철없이 마구 젊어지기만 한다.

금년에 특히 더 흥분되는 이유는 다름아닌 우리 워싱턴 지역 서울대동창회의 연말모임 때

문인 것이 분명하다. 한참 보지 못한 同門들을 만나면 그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거기에서 춤도 신나게 출 수 있는데 빠지다니 천만에 말이다. 그 뿐일까? 금년에는 우리가 자랑사과 아끼는 음악대학 동문 후배들이 마련하는 작은 음악회도 준비되었다하니 萬事를 제하고 꼭 참석하겠다. 정말로 멋지고 오래도록 추억에 남을 모임이 될 것이 확실하다. 순서를 보아하니 기막히게 훌륭하다. 격조 높은 음악인 후배 동문들의 무보수 봉사 출연이다. 비싼 돈내고 가는 Kennedy Center 보다 더 충실하고 좋다고 하면 좀 과장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이 입증될 것 서슴지 않고 장담한다. 모든 동문 선배님들 꼭 참석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 일을 마련한 이영목 회장과 임원 및 출연하는 음악인 동문 여러분께 우선 먼저 "Bravo!" 라고 외쳐본다. 그리고 Santa에게 부탁하는 나의 유일한 所望사항은 많은 동문들의 기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만나고 보고 同門愛를 나누며 즐기자!

(이 면의 방원호/백순동문의 글은 워싱턴 DC 동창회 뉴스레터 2003년 2호에서 전재)

### 하트랜드 소식

## 동창회 이사회 개최 예정

### 새 임원 선출 및 골프대회 6월14일, Kansas City

2003 년도의 Heartland 지부 Kansas City 에서 열린다. 이번 동창회 이사회가 6월 14일 이사회에서는 올해 정기총회에 대

한 계획, 장학사업보고 및 재정 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며 또한 2004년부터 새로 지부 동창회를 이끌어 나갈 임원진을 선임할 계획이다.

또한 당일 오전에는 이사회에 앞서 동문들의 친선 도모를 위한 골프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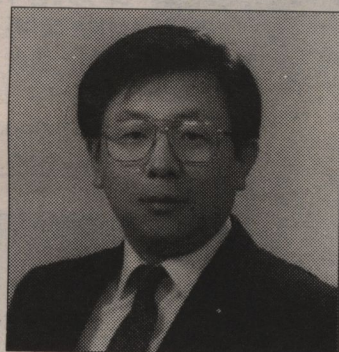
2001년 정기총회에서 6개주에서 모인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 동문의 밤에 온 동문들.

## 장명우 동문 "Dental Caravan" 시작

### 5월12일부터 네브라스카 4개도시

네브라스카 치과대학 장명우 동문은 (치대 83입, 네브라스카대 치대교수, 사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네브라스카주 4개 도시를 돌며 "치아 移植 (implant)치료의 최신 知見" 의

주제로 지역사회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한 순회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강연은 매년 5월 "Dental Caravan" 이란 이름으로 지역 특성상 보수교육이 힘든 지역을 돌며 행하여진다.



## 미주사회로 뻗어가는 하트랜드 동창회

[편집자주: 캔사스시에서는 2002년 8월 5일에 캔사스시에서 열린 母校음대 순회 연주단의 미주내의 두 번째 공연을 기념하여 하트랜드 지역서울대동창회를 동창회에 경의를 표하고 (salute) 순회 연주단의 음악도들을 환영하여 공연일인 8월 17일에 이 날을 서울대하트랜드 지역 동창회의 날로 하트랜드 시장 Kay Barnes씨는 선포하고 이 선언문을 연주장에서 공포하였다. 아래는 이 선포문의 전문이다.]

캔사스시 (미주리) 시장의 하트랜드 지역 서울대동창의 날 선포문(全文)

### Proclamation

Whereas, on August 17th, 2002 the Heartland Alumni Associ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ill sponsor a Scholarship Benefit Concert performed by student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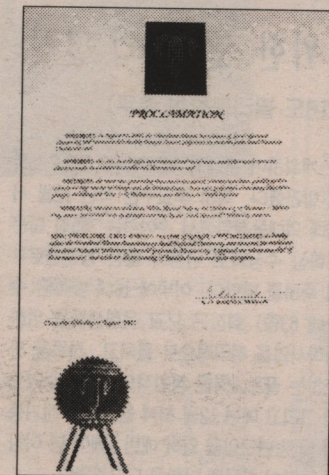
Whereas, the concert will offer instrumental and vocal music, and will include western classical music in addition to traditional Korean music ; and

Whereas, the musicians presenting the concert are award winners who have par-

icipated in countless competition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y have performed with many illustrious groups, including the New York Philharmonic and the Boston Symphony; and

Whereas, the concert will be at White Recital Hall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 - Kansas City, and is the second stop on an eight city tour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Now, Therefore, I, KAY BARNES, MAYOR of KANSAS CITY, MISSOURI, do hereby salute the



Heartland Alumni Associ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elcome the musician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will perform in Kansas City. I applaud the talent and skill of these musicians, and wish for an evening of beautiful music and great enjoyment.

KAY BARNES, MAYOR  
Done this fifth day of August 2002

### 오레곤 소식

## 82년 창립, 비버처럼 다정한 오레곤 동문들

朴昌成 (사대 76졸, 2001년 오레곤 동창회 회장)

북쪽으로는 워싱턴주, 동으로는 아이다호, 남으로는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 서로는 태평양에 접하고 있으며, 콜롬비아강을 경계삼아 美 서북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오레곤은 1859년 31번째로 미합중국에 가입했다. 또한 오레곤 지역은 52개 주 가운데 아홉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땅의 52.3%가 연방정부 소유이다. 특히 다양한 지형과 수려한 경치를 자랑, 방대한 산림을 주요 자원으로 갖고 있어 농업지역으로 유명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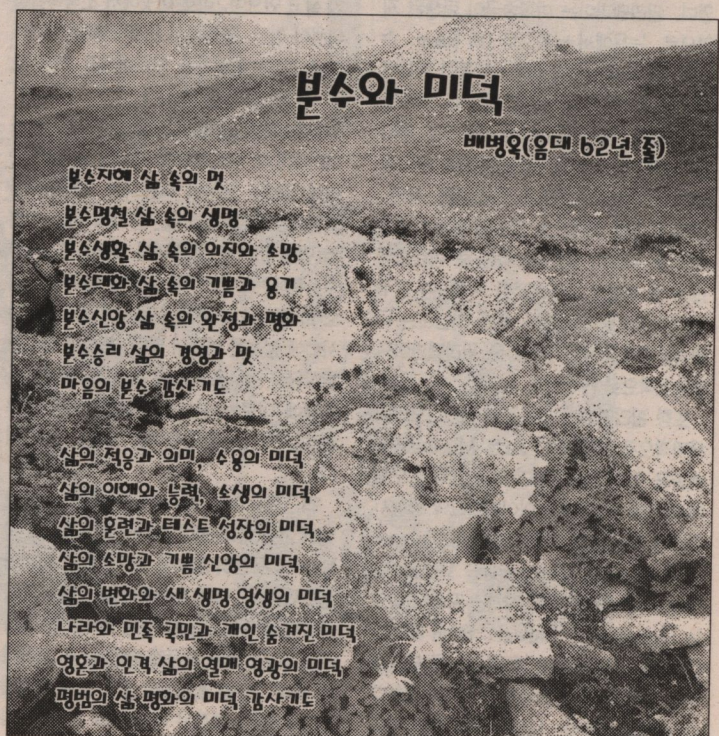
이 지역을 오레곤(Oregon)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과거에는 콜롬비아강을 허리케인이라 불렀으며, 이를 불어로 "Auragan"이라 하여 여기에서 오레곤이라는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서는 수중생활을 하며 댐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포유류 동물인 비버(Beaver)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별칭으로 Beaver주라고도 한다.

오레곤 지부 동창회는 1982년 3월 李殷相(상대 56졸), 趙亨遠(수의대 59졸), 崔東根(문리대 61졸) 동문의 의기투합해 그 해 4월 첫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1대 회장에 발기위원이었던 崔東根 동문이 선출됐다. 현재까지 19대 회장이 오레곤 지부를 진두 지휘하며 동창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6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오레곤 지부는 1년에 두 차례의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가장 큰 행사인 골프대회는 매년 여름에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되고 있으며, 연말에 열리는 정기총회겸 송년회 모임에는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특히 2001

년 9월 22일에 열린 골프대회에 鄭泰勳(공대 72졸) 전임회장이 1위를 차지, 金鎭國(음대 73졸) 동문이 메달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뜻깊은 동문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오레곤 지부 회원 대다수는 40~60대 동문들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가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한인회장을 맡는 등 한인지역 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李洛順(사대 49졸) 동문은 45년 전 이곳에 이민을 와서 오레곤 한인회의 산과역을 했으며, 초기 이민자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아 지금까지도 많은 교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鄭聖國(인문대 77졸) 동문[당시부회장]과 가장 선배이신 金相萬(음대 49졸), 陳炳基(공대 51졸) 동문, 가장 젊은 후배인 禹永倬(자연대 89졸) 동문 등이 동창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2001년도 회장을 역임한 朴昌成(사대 76졸) 동문은 1986년부터 이곳 오레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5년간 미장조과학연구소에서 한인으로서 최초로 지질학과 과학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2002년도에는 羅濟寬(공대 76졸) 동문[2002년도 재미서울대동창회 관악후원회이사]이 동창회를 위하여 수고하였고 2003년도에는 정성국 동문이 동창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좀 더 친근한 동창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레곤 지부 동창회는 매년 송년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서울대 동창회보 2001년 11월 15일자 10면 보도를 편집자가 보정한 것임)



## 분수와 미덕

배병욱(음대 62년 졸)

- 분수지에 살 속의 멋
- 분수명절 살 속의 생명
- 분수생일 살 속의 의지와 소망
- 분수대안 살 속의 기쁨과 양기
- 분수신앙 살 속의 양정과 평화
- 분수승리 살의 정열과 맛
- 마음의 분수 감사기도

- 살의 정열과 의미, 소망의 미덕
- 살의 이해와 협력, 소생의 미덕
- 살의 양력과 테스트 성장의 미덕
- 살의 소망과 기쁨 신앙의 미덕
- 살의 변안와 새 생명 영생의 미덕
- 나라와 민족 국기와 개인 숨겨진 미덕
- 영웅과 인격 살의 열매 영광의 미덕
- 평범의 살 평화의 미덕 감사기도

### 필라 소식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와

## 서재필박사에 대한 특강

서울대학교 동창회 필라델피아 지부에서는 지난 5월 17일 골프대회를 Cheltenham 소재 Ashbourne Country Club에서 제갈은 동문의 주선으로 가졌다.

여러 동문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여 지난 겨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발산하며 여름의 문턱에서 상쾌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이어서 저녁에는 자리를 옮겨 영빈관에서 시상식 및 흥선표 박사님(한국독립기념관 책임연구

원, 현 U. Penn 교환교수)의 "재미한인사회의 서재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있었다.

여러 이사분들이 참석하여, 독립운동가이자 제 1호 Korean-American으로서의 서재필 박사의 알려지지 않은 삶과 미국에서의 활동 등을 다시한번 조명하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필라델피아 지역이라 많은 동문들의 관심어린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



송재 서재필 박사

또한 그동안 적립된 장학기금으로 서울대 동문 고 홍종환 동문의 자녀인 수잔 홍양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아울러 가지면서 성황리에 마칠수 있었다.

(투고자 신영근동문)



이사회후 기념 촬영. 뒷줄 좌로부터: 신영근(약대 89졸), Mrs. 김국간, 김국간(치대 70졸), 정덕준(상대 67졸), 김용식(약대 70졸), 김세경(미대), 전방남(상대 77졸), 흥선표(연사). 앞줄 좌로부터: Mrs. 정덕준, Mrs. 김용식, 수잔 홍, 이성숙(문리대 74입), 손재옥, Mrs. 전방남

### 友情的 동창회 소개

'Philadelphia'는 그리스어로 兄弟愛를 의미한다. 필라델피아 지부 역시 형제애를 능가하는 동문애로 타 지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미합중국이 탄생된 지역으로, 뉴욕에서 남쪽으로 1백 60km, 수도인 워싱턴에서 2백 40km 북쪽인 펜실바니아주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지노로 유명한 아틀란틱시티가 자동차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1백 55만명의 미국 제 5대 도시이다. 1776년 독립선언 서명, 1789년 헌법 제정으로 필라델피아는美 건국의 본 무대가 되었고, 같은 해 미합중국 13개 주 최초로 연방회의를 개최하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했다. 이를 기념하는 독립기념관 Liberty Hall 은 필라델피아의 명승고적으로 남아있다.

또한 필라델피아 필라모닉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Arts Museum 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교육의 도시이기도 한 이 곳에는 아이비리그의 명문사립대인 펜실바니아대와 Temple University, Drexel University, Villanova University가 있으며, 작지만 정경이 나있는 Swarthmore College, Bryn Mawr College, Haverford College 등 명문대학이 산재해 있다. 한국과 기후가 비슷하다는 필라델피아에는 남부 뉴저지주와 필라

### 77년 창립...후배 유학생 위한 장학사업 펼쳐

朱基陸(수의대 75년졸, 2002년도 필라동창회 총무)

웨어주 일부를 포함해 7만여 명의 한인교포가 살고 있으며, 바로 이곳에서 조국독립을 위하여 헌신, 활동하신 松齊 徐載淵 박사의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국 사랑이 더욱 큰 것 같다.

필라델피아 지부는 1977년, 당시 펜실바니아에서 수학교수로 계시던 林德相(문리대 54졸) 동문이 대동시켜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회장은 17대의 회장 俞鏞植(약대 70년졸) 동문이다. 2001년도 지부 주소록에는 2백2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동문 대다수가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사업에 성공한 이들이 많다. 특히 집행부인 회장단을 필두로 이사회 제도를 적극 도입, 90명에 이르는 이사들이 필라델피아 지부를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동창회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13대 崔煥太(문리대 69졸) 회장이 주소록 발간 및 동창회 회칙을 개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14대 鄭惠準(상대 67졸) 회장은 'New Millenium 동문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 열띤 호응을 받았다. 또 美제퍼슨 의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15대 李憲媛(의대 61졸) 회장은 여러 차례 교양세미나

를 개최하며 문예지 '필라春秋' 및 주소록을 발간했다. 특히 李교수는 작년 12월 서울대 의대동창회에서 수여하는 제5회 합춘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많은 동문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이밖에 16대 姜英培(수의대 63졸) 회장은 모교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골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매년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열어 매년 1백여 명 이상의 동문이 참석해 단합을 도모해왔다.

17대 회장은 俞鏞植(약대 70년졸) 동문이며 지난 해 8월 22일 목요일 母校음대 순회연주단의 공연을 필라델피아에서 200여 명의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주관하였으며 새해에도 활발한 동창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지부 동창회와 마찬가지로 젊은 후배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걱정도 되지만 조국의 미래이자 긍지인 서울대가 발전하는 한 필라델피아 지부 또한 영원하리라 믿는다.

(자료원 원래 서울대총동창회보 2002년 2월 15일자 5면에 게재된 것을 바탕으로 편집자가 추가한 것임)

### 뉴욕 소식

## 뉴욕지역 동창회 정기총회 및 白球대회 6월 21일(토) 신임회장 인준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김종을, 사대 55년 졸)는 오는 6월 21일(토) 오후 6시부터 동창회 정기총회를 Lake MacGregor 골프장에서 갖고 7월 1일부터 뉴욕지구 동창회를 이끌 차기회장(현 수석

부회장 양순우, 법대 71년 입)을 선출하며 당 회계연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30분부터 동문들이 참석하는 골프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 뉴욕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2003년 6월 21일(토)

뉴욕지역 동창회는 정기총회 및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동문들과 임원여러분의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 김종을(사대 55년 졸), 이사장 노용면(의대 55년 졸)

#### ★ 총회

일시: 2003년 6월 21일(토) 오후 6시

장소: The Country Club at Lake MacGregor, 187 Hill Street, Mahopac, NY 10541

Tel: 845-628-4200

안건: ① 차기 회장 인준

② 총동창회 평의원 선출 ③ 회계보고 ④ 기타사항

#### ★ 골프대회

일시: 2003년 6월 21일

Tee-off: 12시30분(11시 30분까지 도착 바람)

장소: The Country Club at Lake MacGregor,

Tel: 845-628-4200

회비: 1인당 \$100이며, 부부참석의 경우 \$180

연락처: 914-714-0587, 212-947-0600 914-738-4511

### 祝發展

개척자 동문가족들의 소식을 기록하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이민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며 뉴욕의 변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 20년간 거주경험과 브라질 변호사 자격으로

남미지역의 정치·경제문제와 동문들의 남미지역의 투자

문제에 성심껏 자문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봉원 변호사

BONG W. YEON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1261 BROADWAY, SUITE 201

NEW YORK, NY 10001

☎ 212-779-1828

FAX 212-779-0820

E-mail: yeonbw@aol.com

연봉원(문리대 61년 입)



### 뉴잉글랜드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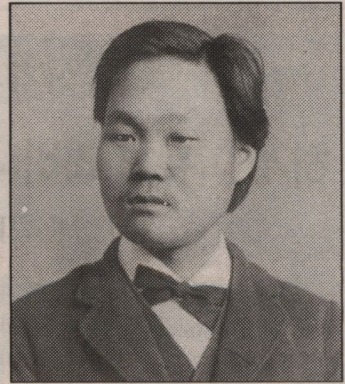
## 유길준선생 118년만에 美 高教 명예졸업장 받다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저자이며 구한말 개화기의 선각자이며 한국 최초의 國費 미국 유학생이었던 구당(矩堂) 유길준(兪吉濬·1856~1914) 선생이 118년만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市에 소재한 母校 더머 아카데미(Dummer Academy·고등학교 과정)로부터 지난 4월 1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명예졸업장을 받았고, 이날 유길준 기념비 제막식도 있었다. 구당선생이 뒤늦게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은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여 뉴잉글랜드 지방의 이민 선조들의 역사와 유적을 보존하고자 학술대회 개최등 활발하게 노력해온 뉴잉글랜드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회장 차경민, 의대 53년 입)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날 졸업식에는 구당의 후손으로서는 종손자인 유석재씨와 증손녀 향희씨와 그의 아들 김기현군등이 참석하였고, 한국인과 미국인을 합쳐 200명 이상 가까이 참석하였으

며 미국 언론에서도 보스턴 글로브, 뉴베리포트, 데일리뉴스 및 주간지인 메리맥등 4개사가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 이날 행사에는 한국어린이 2명을 입학해서 키우고 있는 조 노튼(Norton)씨는 “유길준 선생 행사는 한국계 미국인 가정에 자긍심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유견문의 일부분을 낭독한 이 학교 이지희(10학년) 학생은 “학교를 선택할 때 유길준 선생님이 다녔던 학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애착이 갔다”고 말했다. 구당선생이 이 학교에 입학한 것은 1884년 9월, 그의 나이 28세 때였다. 1883년 최초의 공식 對美 외교사절인 보빙사(報聘使)의 일원으로 미국 각지를 시찰하다 그 해 11월에 세일럼市에 머물며 당시 舊韓末 외교 자문이었던 天文 학자 피시벌 로엘氏의 소개로 그의 친구인 動物학자로서 피바디 박물관장이었던 모오스博士의 지도를 받아 英語를 배운 지 7개월만

에 영문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목표는 하버드대 진학이었다. 1884년 9월 더머아카데미에 3학년이 편입하였으나 석 달만에 고국에서 甲申政變이 일어나, 1885년 6월 귀국길에 올라, 유럽 각지를 순방하였고 그 결과를 담은 西遊見聞錄을 1887년 시작하여 1889년에 집필 완료하였다. 이 학교가 다시 矩堂선생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것은 작년 7월인데 이민사를 편찬하던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유길준의 유학 사실을 알게 되어 박경민 회장 일행은 이 학교를 방문, 명예졸업장 수여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마틴 도겟(Martin Doggett) 校長은 “근대 한국의 先覺者를 기릴 수 있어 영예로운 일”이라고 흔쾌히 동의했다. 이날 수여된 유길준의 명예졸업장은 세일럼시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이 오는 9월에 문을 열 ‘유길준 기념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지난 달 3월 22일에 열린 뉴잉글랜드 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동창회보 #109, 2003. 3. 28일자 20면 참조)에서 백린(전 하버드대 연청도서관 사서와 보스턴 한미노인회 회장 역임, 동창회 명예회원)선생이 “뉴잉글랜드 한인 유학생들이 이민사에 미친 영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유길준, 이승만 및 1910년에서 45

년까지의 유학생들에 대한 기록이 많다. 피바디 박물관이 소장한 유길준 유품과 한국 관련 유물들은 지난 94년 조선일보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유길준과 개화의 꿈’ 전시회를 통해 한국내에 소개됐으며, 이 전시회 수익금 20만달러가 바탕이 돼 유길준 기념실이 세워지게 됐다. <자료원 조선일보 2003.03.28일자 및 4.20일자 >



재학중의 유길준 선생



미국 매사추세츠주 가버너 더머 아카데미의 도서관 앞에서 19일 열린 유길준 기념비 제막식 행사에서 존 마틴 도거트 교장(맨 오른쪽)과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뉴잉글랜드 지부의 박경민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유길준 선생의 종손자인 유석재 씨(왼쪽에서 두번째), 박재선 보스턴 총영사(맨 왼쪽)가 기념비를 공개하고 있다.

## 담마학원(淡馬學院)과 구당 유길준

박경민 (의대 53입, 뉴잉글랜드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회장)

이미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오는 4월 19일 매사추세츠 주가 뉴햄프셔주와 경계를 이루는 곳인 바이필드에 위치한 사립 명문 고등학교, Governor Dummer Academy에서 한국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개화 선각자이며 유명한 <西遊見聞>의 저자 유길준 선생의 기념비 제막식과 명예 졸업장 수여식이 거행된다. 이 행사는 뉴잉글랜드 미주한인 이민백주년 기념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의 하나로 유길준 가족, 한인 동포들과 더머 아카데미 학생들, 미 주류사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머 아카데미 측과 공동으로 치러지게 된다. 작년 3월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되기 전 까지만 해도 구당(矩堂) 유길준 연구가나 학자 외에도 일반에게 생소했던 유길준의 인간성과 행적, 사상, 저술 등이 미주 한인 이민 백주년을 맞이하여 각광 받게 된 것은 참으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하와이 사랑수수발 노동자로 갤릭(Gaelic)호에 몸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 초기 이민자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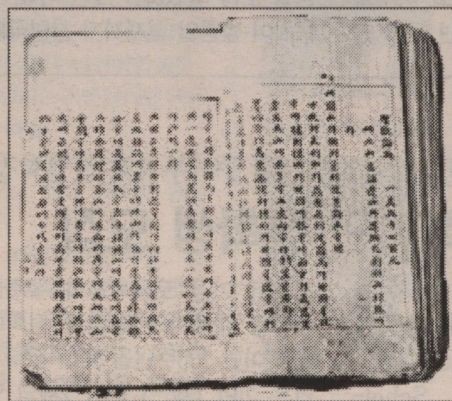
니고 조국의 광복운동에 기여했던 독립운동가도 아니다. 다만 그는 19세기말 한미 수호 통상조약의 체결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보빙사절단의 일원으로 민영익을 수행하여 미국에 왔다가 뜻한바 있어 남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던 중 당시 매사추세츠 주 학문의 대가였던 모오스 피바디 박물관장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이후 그의 소개로 1884년(29세) 9월부터 더머 아카데미에서 하버드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던 한인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었다. 그는 그러나 갑신정변의 소식을 듣고는 다음해에 학업을 중단하고 1년동안 유럽 각지의 풍물을 돌아다본 후 12월에 귀국하였으므로 그의 미국생활은 약 1년 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유길준이 한국 근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또한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에서 주목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가 19세기말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나라, 우물안 개구리와 같이 세상 밖을 몰랐던 백의 민족에게 <서유견문>이라는 명제를 통해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가 살길을 찾아 몸부림치며 방황하던 차제에 하루빨리 근대국가로 탈바꿈하도록 일깨워준 개화사상이었기 때문에 보여진다. 그는 한국인 최초의 일본 및 미국 유학생으로서 신학문을 접하고 서구의 선진문명과 직접 접해본 체험으로 쓰러져가는 나라를 기사회생(起死回生)시키려 하였으나 해는 이미 기운 후였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보스턴 생활 30년간 살아가기에 바빠 구당이 120년전 우리가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공부했던 역사적 사실에 너무나 무심했던 나 자신을 탓하는 바크다. 그러나 백주년사업회의 일원으로 일하게 된 계기로 뜻을 같이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질 뻔한 그를 세상밖에서 내 보이고 이민

후예들에게 자랑스런 유산으로 남겨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마치 이번에 있을 기념비 건립과 졸업장 수여식이 그를 알

아보지 못하는데 대한 빛을 갚는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하다. 오늘이 있기까지 흔쾌히 교섭에 응해주고 협조해준 더머 아카데미의 교장과 관계자들, 뉴잉글랜드 백주년 기념사업회의 김은한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해준 윤희경박사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그분들의 수고와 더불어 동포사회의 적극적 성원에 큰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서유견문록



1883년 민영익을 전권대신으로 한 미국파견 시절단, 뒷줄 왼쪽에서 3번째가 유길준

### 시카고 소식

## 하계 아유회 라비니아 야외 음악장에서

2003. 6. 21(토) 오후 5시

시카고 지역동창회(회장 장기남, 문리대 62년입)는 동창회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일인 하계 아유회를 예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2003년 6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Ravinia Park 야외음악장에서 가지므로 많은 동문들께서 가족 동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행사를 위하여 동창회에서 도시락과 음료를 준비 할 예정이니 가족 동반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시카고 심포니의 베토벤 연주를 감상하시며 동문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십시오. 이날 라비니아에서 있는 음악연주내용은 아래와 같다.

★ Chicago Symphony Orchestra - Beethoven Triple Pavilion @ 8:00 PM

입장권 : \$40, \$30, \$20, Lawn \$10 이날 시카고 심포니의 출연자는 Marin Alsop (conductor), Rachel Barton(violin), Gary Hoffman(cello), Jonathan Biss( piano)이며 연주곡목은 Beethoven: Triple Concerto in C Major, Op. 56, John Corigliano: Symphony No. 1 (in honor of the composer's 65th birthday)이다.

★ 이날 5시 45분부터는 시카고 심포니의 연주에 앞서 Preview Concert가 Martin Theatre에서 있는데 출연자는 Miriam Fried(violin), Paul Biss(violin and viola), Atar Arad(viola), Timothy Eddy(cello), Gilbert Kalish(piano)이며, 시카고 심포니 전속 작곡가로 활약하였던 John Corigliano의 작품이 연주된다.

지난 4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 전현 일 수석부회장(농대 66년 졸,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재무국장 겸임) 자택에서 제 2차 임원회의를 갖고 금년도 행사 사업안을 구체화하였다. 1) 춘계 골프대회는 5월 24일 토요일 11시부터 Oak Brook Hills 골프장에서 열리는데 48명으로 출전자 선착순으로 제한되니 전현일 수석부회장과 김재환 간사에게 긴급 연락바람. 2) 남가주에서 5월 31일에 열리는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제 12차 평의원회에는 평의원으로 이용락, 장기남, 전현일, 소진문, 송재현동문과 평의원 대령으로 박영규동문과 김정주동문이 참석하며 재미 동창회보 편집실에서 김정수, 홍해례동문과 박미경씨가 참석한다. 3) 하계아유회는 예년과 같은 장소에 이미 예약을 하였으나, 금년에는 하계아유회를 라비니아 야외음악장에서 6월 21일 토요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4) 동창회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선발전위원회 (선발전위원:조대현, 이광선, 이종일, 박연희, 김태기동문)의 결정에 따라 선발전공고를 7월 전에 신문에 광고하고 지원서 마감은 9월중으로 하고 장학생 선정은 10월중에 하여 11월 말에 있는 송년총회에서 5명 내지 7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5) 전영식(의대 78년 졸) 간사가 지난 1차 이사회에 이어 다시한번 동창회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호소에 따라 임원들간의 한인사회의 특성 및 이민 사회의 노령화 문제등에 관한 자유토론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봉

## 시카고동창회 제 2차 임원회의록 4월 27일(일)

사활동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6) 심명원(음대)간사는 다가오는 送年총회의 특별기획행사인 '추억의 앨범' 행사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돈독한 친목을 유지하여 서로간에 모르는 바가 없는 듯한 시카고 동문들끼리 서로 짝짝 놀라게 할만한 추억의 장면들을 담은 사진들을 심간사에게 특별히 貸出해 주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善男善女の 기억을 가진 동문들은 그 시절의 젊음을 과시하는 사진을 卍職시키기 바라며, 또 배우자들도 모르게 책꽂이 속에 감추어둔 지금은 아련한 추억 속의 사진도 빛나게 하시기 바람. 7) 시카고 동창회는 2년마다 1번씩 개정하는 전통에 따라 시카고 동창회 주소록을 새로 발간할 예정인바 많은 동문들께서 주소록에 광고계재를 바라며(광고비: \$50 또는 \$100) 주소가 바뀐 동문들은 장기남 회장(Fax:630-321-1943)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5월 11일 5시에 어머니날에 있는 시카고 심포니홀에서 있는 조수미 동문 공연에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장희장은 부탁하였다. 9) 이날 임원회의에 앞서 몇시간 전에 장기남 회장은 시카고 동창회 중흥을 위하여 발탁되어 봉사하고 있는 임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張總統 초청"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대결(?) 공간을 열어 南方에서 覇靑으로 수놓은 보물(琪花瑞草와 寶石, 안받은 사람은 땀지 모름)들을 상품으로 하사하였다.

## 시카고 동문들 광고계재로 동창회보 발간 지원 운동

최근 시카고에서 5,600부를 발간하여 미주내외의 7천여 동문가정과 캐나다지역 및 모국에까지 배포되고 있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가 금년 2월말로 발행재원이 고갈되어 남은 기간동안 4번 더 발간할 동창회보발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고 계재 운동이 시카고 동문들간에 일고 있다. 그간 재미서울대 동창회보는 주소가 확인된 미주내외의 모든 동문들에게 배포되고 있으나 그 발행재원은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구독료가 절반을 차지하며 뜻있는 동문들이 출연하는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로 충당해 왔으나 금년 들어 타

지역 동창회로부터 관악후원회 이사회비의 출연이 전년도에 비하여 절반으로 격감하여 회보발행 재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창회보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온 시카고지역 동문들은 그간 광고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이섭, 강영국 동문을 중심으로, 지난 2년간 시카고 판을 통하여 질적 향상된 재미동창회보를 발간한 시카고 동창회의 긍지를 有終의 美로 매듭짓기 위하여 예상되는 발행재원 赤字 \$10,000 확보를 위하여 동문들의 광고지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간 이에 호응하여 발행일 현재까지 강영국

\$1,000, 임이섭(\$300), 서승환(\$300), 박영규(\$100), 임현재/조중형(\$100), 전영식(\$100), 구경회(\$300), 이용락(\$500), 김윤태(\$100), 소진문(\$300) 동문 등이 광고비 및 특별 관악후원 이사회비를 추가 출연하였으며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회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시카고 동문들의 정성어린 성금출연에 감사를 드린다.

### 記事 정정

동창회보 #109(2003.3.28일자) 21면에 게재된, 조중형, 박숙동문 귀국 영전 기사 중 서울대 부속 분당병원에 "副院長으로 榮轉하시게 되었습니다"를 "臨床教授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고 바로 잡습니다 <편집자>.

### ◆동문동정◆

## 金允泰(의대 69년졸) 韓美獎學財團 중서부지회 신임회장 한미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그간 교민사회의 人才를 키우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獎學활동을 펴온 한미장학재단(KASF: The Korean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 중서부지회의 2년 임기의 신임회장으로 金允泰 동문(의대 69년졸)이 취임하였는데, 金동문은 장학 사업의 과

제로서 기금 모금확충과 우수한 장학생 수혜자의 선발로 정의하고, "이민 100주년을 맞아 장학사업은 이민 1세, 1.5세, 2세의 중심점이 되는 사업으로 이제 지도력을 갖춘 1.5세, 2세를 발굴, 주류사회 진출을 도와 지도자 양성을 할 때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회장은 많은 교민들과 동문들의 장학사업 참여를 권장하며, "개인보다는 단체에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인들은 사회 봉사를 하면 회사 차원에서 장학 기금보조를 해



한미장학재단: 금년도 한미장학재단 사업현황을 설명하는 임원들. 중서부지회장 김윤태 동문(사진 좌), 장학위원장 함성택 동문, 조원경 총무, 채규선 전회장. (사진제공: 중앙일보)

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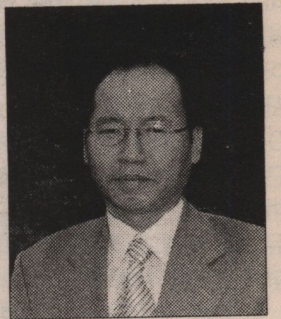
그간 한미장학 재단활동에는 시카고지역에서 지금까지 崔日柱(공대 화학과 55년졸) 동문과 금년도 장학위원장으로 수고하는 함성택(문리대 사학과 55년입) 동문 등이 봉사해왔다. 동재단에서는 금년도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에게는 500달러, 대학생 이상은 1천 달러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중서부 지역은 일리노이, 미네소타,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남북 다코다 및 위스칸신주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오하이오, 미시간, 인디애나 주는 동부지회로 관할이 바뀌었다. 장학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함성택 장학위원회 위원장 전화: 847-797-1291(O), 847-797-1304(Fax), tonyhahm@yahoo.com (자료원: 시카고 중앙일보 2003. 2. 21일자 보도)

### 동문동정.....

## 申源泰 동문,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신원태 동문(사회대 84년 졸·사진)이 지난 4월 1일자로 편집국장으로 승진하였다. 申동문은 재미 서울대동창회보가 뉴욕으로부터 시카고로 옮겨 발행함에 따라 시험판 제작과정을 통하여 시카고판의 주형(鑄型)을 제작하였다. 시카고 중앙일보에는 현재 申동문과 편집부 부장으로 李在國(자연대 88년 입) 동문이 재직중인데 李 동문도 재미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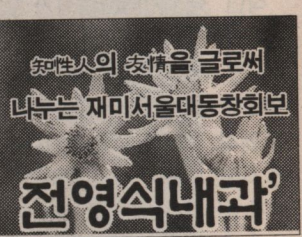
동창회보 시카고 판의 발간계획수립에 기여한 바 있다.

## 祝發展



韓美獎學會  
중서부지회 이사회  
金允泰 (MD의대 69년 졸)

## 祝發展



知性의 表情을 글로써  
너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  
전영식내과  
Hope Med Clinic  
2411 N. Milwaukee, Chicago, IL 60647  
☎ 773-486-5522  
全榮植 (의대 78년 졸)

정년퇴임 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21명이 지난 2월 28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沈在堯교수·국어국문학

60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 박사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국어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문화관광부 국어심의위원, 이종언어학회, 국립국어연구원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 등을 역임.



李鏞堯교수·국어국문학

60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 박사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국어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공헌했으며, 국어학회, 국립국어연구원장,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



韓啓傳교수·국어국문학

60년 師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 박사학위.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한국 현대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만해기념사업회 이사장, 만해학회, 중·한인문학연구회장, 한국현대문학연구회장 등을 역임.



白樂暎교수·영어영문학

59년 美브라운대학 졸업. 美하버드대학 철학 박사학위.  
64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영미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공헌. 美하버드대 객원연구교수, 창작과 비평 대표, 민족문화추진회의 이사장, 모교 영어영문학과장 등을 역임.



金允濬교수·언어학

63년 文理大卒. 스위스 후리부룩대학 독일어문학 박사학위.  
90년 모교 교수로 부임, 인국어학 및 비교언어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영남대·효성가톨릭대 교수, 한국언어학회, 모교 언어학과장 등을 역임.



鄭鏞弘교수·종교학

60년 文理大卒. 美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학위.  
82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종교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이바지. 덕성여대·명지대 교수, 종교학연구회장, 종교학회, 학술원 회원, 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



金晉均교수·사회학

61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사회변동론 및 영상사회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공헌했으며, 한국산업사회학회, 진보네트워킹센터 대표,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을 역임.



愼鎭堯교수·사회학

61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 박사학위.  
65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한국사학회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사학회, 한국사학회, 독도학회, 모교 사회대 학장·교수협의회장 등을 역임.



李寬鎔교수·심리학

62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 박사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학습심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한국심리학회, 모교 학생생활연구소장·심리학과장·심리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



趙明鎔교수·심리학

61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철학 박사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인지심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한국인지과학회, 한국심리학회, 모교 사회과학연구소장·인지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



宋熙星교수·물리학

60년 文理大卒. 美아이오와주립대학 이학 박사학위.  
67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물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한국물리학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 모교 물리학과장·이론물리연구소장 등을 역임.



沈載亨교수·지구환경과학

63년 文理大卒.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이학 박사학위.  
77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생물해양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이바지. 한국해양학회, 교육부 학술진흥위원, 모교 자연대 학장보·해양연구소장·해양학과장 등을 역임.



尹鴻植교수·지구환경과학

60년 師大卒. 美인디애나대학 이학 박사학위.  
73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태양천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美뉴멕시코주립대 교환교수, 한국천문학회, 국제천문연맹 한국위원장, 모교 천문학과장 등을 역임.



金宗相교수·컴퓨터공학

60년 工大卒. 모교 대학원 공학 박사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컴퓨터 구조와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공헌. 한국정보과학회, 국제전기전자학회, 정보통신부 전산장표준심의위원장 등을 역임.



李東寧교수·재료공학

61년 文理大卒. 美밴더빌트대학 공학 박사학위.  
74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금속가공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공헌했으며, 한국소성가공학회, 모교 신소재공동연구소장·신소재박막가공 및 결정성장연구센터소장 등을 역임.



李敦熙교수·교육학

60년 師大卒. 美웨인주립대학 철학 박사학위.  
74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교육철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 교육부장관, 한국교육학회, 세계교육한국협회, 한국교육개발원장, 모교 사범대학장 등을 역임.



秦敦熙교수·국민윤리교육

60년 文理大卒. 오스트리아 빈대학 철학 박사학위.  
83년 모교 부교수로 부임, 철학적 인간학과 사회윤리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철학적 인간학회, 모교 중앙도서관장 등을 역임.



李麗淑교수·기악

55년 音大入.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모짜르트음악 석사학위.  
83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현악실기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공헌하고 수많은 독주회와 협연, 앙상블 연주회 등 폭넓은 음악활동을 했으며, 모교 기악과장 등을 역임.



金永甄교수·의학

62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 박사학위.  
71년에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고관절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대한정형외과 생체역학회, 대한외상학회 등을 역임.



金重述교수·의학

59년 文理大卒. 가톨릭대학 의학 박사학위.  
81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임상심리학과 정신과학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인지치료연구회장 등을 역임.



池堤根교수·의학

62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 박사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병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대한병리학회, 대한의사학회 이사장, 대한의학유전학회, 한국기형학회, 대한의학회 등을 역임.

# 모교소식

## 초대 金容德국제대학원장

### 수의과대학李文漢학장 취임



국제대학원 金容德원장

지난 3월 1일 국제지역원에서 독립된 전문대학원으로 승격된 국제대학원의 초대 원장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金容德교수가 취임했다. 또 수의과대학 학장에 수의학과李文漢교수가 선임됐다.

金원장은 67년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 미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하버드대 일본연구소 연구원, 日동경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80년 모교에



수의대李文漢학장

부임했으며, 역사학회장, 한일 역사연구회장, 모교 출판부장·국제지역원 일본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李학장은 73년 모교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농촌진흥청 겸임연구관, 美뉴욕주립대 연구교수, 대한수의학회 학술위원장, 모교 수의대 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 교수협의회장에 張浩完교수

### 李昌馥교수 대학신문 주간



교수협의회 張浩完회장

지난 2월 21일 관악캠퍼스 교수회에서 열린 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張浩完교수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3월 1일 대학신문 주간에 지구환경과학부 李昌馥교수가 선임됐다.

張회장은 69년 문리대 지질과학과를 졸업한 후 벨기에 루뱅



대학신문 李昌馥주간

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환경부 환경평가위원, 모교 자연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李주간은 76년 모교 자연대 해양학과를 졸업했으며 佛과리 보르도 제1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MIT 방문연구원, 모교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자료실장 등을 역임했다.

## 행정대학원

### 비동문 여교수 채용



행정대학원(원장 吳然天)은 지난 2월 28일 서울여대 정보영상학부 禹志淑교수(사진)를 2003년 1학기부터 조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1959년 행정대학원 설립 이후 44년만에 첫 여성 교수인 것이다.

禹교수는 89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美펜실베이니아대에서 언론학 석·박사학위를 받은 뒤, 97년 뉴욕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禹교수는 서울여대 교수, 방송위원회·인터넷주소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美뉴욕주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도메인분쟁 패널리스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보기술 관련 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언어교육원

### 「플래그십 프로그램」 시행

언어교육원(원장 金聖坤)은 지난 3월 13일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에서 처음 실시하는 「플래그십 프로그램(Flagship Program)」의 시행기관이 됐다.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한국을 잘 아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UCLA가 만들었으며, 미국 학생들을 여름방학 때 국내 대학에 파견, 강의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언어를 연수시키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시행된다.

## 간호대학

### 4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가져

간호대학(학장 洪京子)은 지난 3월 4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제4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鄭明熙부총장, 의대 李宗郁학장, 치대 金重守학장, 수의대李文漢학장, 보건대학원 白南園원장, 朴容昞병원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등 1백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와 촛불의식에 이어 3학년 전체 59명은 「일생을 의롭게 살고 간호전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간호를 받는 사람

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요지의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며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는 간호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병원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3학년을 대상으로 6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선서식은 나이팅게일 정신을 이어 받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실습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식이며, 촛불의식은 재 몸을 태워 주위를 밝혀준다는 봉사와 희생, 헌신의 의미를 상징한다.

## 부처장급의 홍보부장직 신설

### 기자 출신 朴相烈동문 영입



보 기자 등을 역임했다.

향후 모교는 이미지 재창출, 외부와의 의견 교환, 능동적인 모교 알리기 등 열린 대학을 향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명예교수 20명 추대

지난 3월 14일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鄭雲燦총장, 鄭明熙부총장 등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8일 정년 퇴임한 교수 19명과 97년에 퇴임한 삼성의료원 崔圭完원장 등 20명을 명예교수로 추대했다.

모교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25년 이상 재직하거나, 조교수 이상으로 20년 또는 부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거나 모교 발전에 공헌한 교수를 명예교수로 추대하고 있다.

(鎬)

## 數理과학부 신임교수

### 李又英교수(성균관대학교 졸업)

수리과학부(학부장 韓鍾圭)는 지난 2월 14일 국내 다대학출신 박사인 李又英(48·사진)교수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모교가 타 대학 출신에 국내에서 석·박사를 마친 타 대학 교수를 정년 보장의 정교수로 채용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3월부터 강의를 맡은 李교수는 81년 성균관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관동대 교수를 거쳐 89년부터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1년 대한수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이 교수는 「토에플리츠상의 하이퍼노멀 성질세계에 관한 논문을 미수학회지에 발표하는 등 세계 유수 학술지에 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李교수는 모교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여러 대학 출신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국내 수학적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총동창회보 300호(2003년 3월 15일) 15면에서 전제

## 경제학부 초빙교수

### 하버드대 Barro 교수 특강

하버드대 Barro 교수 초청 특강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미하버드대 경제학자 로버트 배로(Robert J. Barro·사진)교수가 2003년 1학기 사회과학대 경제학부(학부장 李之舜)에서 경제성장론 강의를 맡는다. 노벨상 단골 후보인 배로교수는 초빙교수 자격으로 5월 한달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부 4학년과 대학원 석사과정 1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저명한 외국교수가 국내 대학을 방문할 경우 대부분 특강에 그쳤던 점에 비춰볼 때 배로교수가 학점을 주는 정식 강의를 맡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배로교수는 시카고대 교수를 거쳐 87년부터 하버드대에 재직중이며 『미시간지』 「비즈니스 위크」의 칼럼니스트,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 중 14권이 한국·중국·일본·아랍어 등 9개 국어로 번역, 출판됐을 정도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국내외 경제학자들과 97년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극복 과정을 주제로 대담과 논문작성에 나섰는데 이 내용이 「한국 위기와 극복」이란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서울총동창회보 300호(2003년 3월 15일) 15면에서 전제

## 數理과학부 신임교수

### 李又英교수(성균관대학교 졸업)

수리과학부(학부장 韓鍾圭)는 지난 2월 14일 국내 다대학출신 박사인 李又英(48·사진)교수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모교가 타 대학 출신에 국내에서 석·박사를 마친 타 대학 교수를 정년 보장의 정교수로 채용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3월부터 강의를 맡은 李교수는 81년 성균관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관동대 교수를 거쳐 89년부터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1년 대한수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이 교수는 「토에플리츠상의 하이퍼노멀 성질세계에 관한 논문을 미수학회지에 발표하는 등 세계 유수 학술지에 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李교수는 모교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여러 대학 출신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국내 수학적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총동창회보 300호(2003년 3월 15일) 15면에서 전제

## 경제학부 초빙교수

### 하버드대 Barro 교수 특강

하버드대 Barro 교수 초청 특강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미하버드대 경제학자 로버트 배로(Robert J. Barro·사진)교수가 2003년 1학기 사회과학대 경제학부(학부장 李之舜)에서 경제성장론 강의를 맡는다. 노벨상 단골 후보인 배로교수는 초빙교수 자격으로 5월 한달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부 4학년과 대학원 석사과정 1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저명한 외국교수가 국내 대학을 방문할 경우 대부분 특강에 그쳤던 점에 비춰볼 때 배로교수가 학점을 주는 정식 강의를 맡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배로교수는 시카고대 교수를 거쳐 87년부터 하버드대에 재직중이며 『미시간지』 「비즈니스 위크」의 칼럼니스트,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 중 14권이 한국·중국·일본·아랍어 등 9개 국어로 번역, 출판됐을 정도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국내외 경제학자들과 97년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극복 과정을 주제로 대담과 논문작성에 나섰는데 이 내용이 「한국 위기와 극복」이란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서울총동창회보 300호(2003년 3월 15일) 15면에서 전제



# 동정

## 수상

▲李載聖(46년 京城大卒·모교 응용화학부 명예교수)= 지난 3월 18일 신라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제7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수상함.

▲李基白(47년 文理大卒·前한림대 교수)= 지난 3월 7일 연세대 루스체플에서 연세대 초대 총장인 肅齋 白樂瀾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용재상 제9회 시상식에서 학술상을 수상함.

▲金允植(59년 師大卒·명지대 석좌교수)= 지난 3월 3일 만해사상실선선양회가 제정한 제7회 만해대상(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됨.

▲朴寅緒(60년 醫大卒·삼성제일병원 명예원장·한국·스칸디나비아재단 이사장)= 지난 3월 3일 한국과 노르웨이의 학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한 노르웨이 대사로부터 기사훈장 「The Knight of the Royal Norwegian Order of Merit」을 서훈받음.

▲李愛珠(69년 師大卒·모교 체육교육과 교수)= 지난 3월 3일 만해사상실선선양회가 제정한 제7회 만해대상(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됨.

▲朴在甲(73년 醫大卒·국립암센터 원장)= 지난 3월 11일 모교 연건캠퍼스 삼성암연구소 등에서 보령제약이 제정한 제2회 암학술상을 수상함.

▲金洛俊(75년 工大卒·포항공

대 교수)= 지난 3월 18일 신라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젊은 공학인상을 수상함.

▲文國現(77년 經大院卒·유한김벌리 사장)= 지난 2월 27일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주관하는 제4회 경영인대상 시상식에서 대기업부문 최우수경영인상을 수상함.

▲徐錫洪(30기 AMP·동선노대표)= 지난 3월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음.

▲朴富逸(39기 AMP·다다실업회장)= 지난 3월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음.

▲鄭文浩(47기 AMP·동국산업사장)= 지난 2월 27일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주관하는 제4회 경영인대상 시상식에서 대기업부문 우수경영인상을 수상함.

▲曹盛煥(48기 AMP·신성산건설사장)= 지난 2월 27일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주관하는 제4회 경영인대상 시상식에서 중견기업부문 우수경영인상을 수상함.

▲李長羽(51기 AMP·이메이션코리아 사장)= 지난 2월 27일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주관하는 제4회 경영인대상 시상식에서 벤처기업부문 우수경영인상을 수상함.

▲李煥成(53기 ACAD·세라젯의료기 대표)= 지난 2월 27일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주관하는 제

4회 경영인대상 시상식에서 벤처기업부문 최우수경영인상을 수상함.

## 이동·선임

▲趙光秀(53년 醫大卒·성남병원 종합검진센터 과장)= 최근 인천중앙병원 건강관리센터 소장에 선임됨.

▲朴尙植(59년 文理大卒·前외교안보연구원장)= 지난 3월 19일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장에 취임함.

▲尹正錫(59년 法大卒·중앙대 명예교수·현대일본학회 회장)= 지난 3월 1일 재단법인 세종연구소 초빙학자에 선임됨.

▲李壽成(61년 法大卒·평화운동연합 총재)= 지난 2월 27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제16대 회장에 선출됨.

▲李康淑(61년 音大卒·안익태기념재단 이사장)= 지난 3월 26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에 위촉됨.

▲玄明官(63년 法大卒·삼성일본담당 회장)= 지난 2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 겸 국제경영원장에 취임함.

▲劉常夫(64년 工大卒·포스코 회장·본회 부회장)= 지난 3월 17일 포스코 상임고문에 위촉됨.

▲李來秀(64년 農大卒·前농민신문 사장)= 지난 3월 6일 향토지

적재산본부 상임대표에 취임함.

▲吳明(66년 工大卒·아주대 총장·본회 부회장)= 최근 학계와 기업체의 품질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신품질포럼 제2대 위원장에 추대됨.

▲高興吉(66년 文理大卒·국회의원)= 지난 2월 27일 東星중고등학교 동창회장에 재선임돼 金壽煥추기경(동성중고 동창회 상임고문)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음.

▲金明子(66년 文理大卒·前환경부 장관)= 최근 모교 공대 기술정책과정 초빙교수로 임명돼 1학기부터 「환경 및 에너지 산업정책」을 강의함.

▲申仲植(66년 文理大卒·前국정홍보처장)= 지난 3월 10일 시민·사회단체인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에 취임함.

▲金英泰(66년 法大卒·법무법인 세종 고문)= 지난 3월 16일 한국건설협회 회장에 선임됨.

▲李鎬君(66년 法大卒·비씨카드 사장)= 지난 3월 13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전자지불포럼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제2대 회장에 선출됨.

▲金津中(67년 文理大卒·대구가톨릭대 교수)= 지난 3월 1일 대구가톨릭대 인문대학장에 선임됨.

▲朴仁國(67년 師大卒·동국대 교수)= 최근 동국대 대학원장에 취임함.

▲姜正一(68년 農大卒·前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지난 2월 28일 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제3대 소장에 취임함.

▲李龜澤(69년 工大卒·포스코 사장)= 지난 3월 14일 열린 포스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林吉鎭(69년 工大卒·미시간주립대 석좌교수)= 지난 3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에 취임함.

▲金勳東(69년 農大卒·신용보증기금 감사)= 최근 수원미술관에서 개최된 수원예총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

출됨.

▲金一中(70년 工大卒·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실장)= 지난 3월 20일 건설교통부 차관보에 임명됨.

▲李兢熙(70년 文理大卒·대구MBC 사장)= 지난 3월 4일 MBC 사장에 선임됨.

▲姜昌五(71년 工大卒·포스코 부사장)= 지난 3월 14일 포스

## 음대 동창회

신임회장에 韓相宇동문 추대

음대동창회장(회장 金正吉)은 지난 3월 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동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년동안 1년에 한번밖에 모이지 않는 동창회 행사가 모든 동문들이 학수고대하는 모임으로 만들고, 모교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진행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장단과 선배 동문들의 변함없는 도움이 있었기에 동창회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교 음대에 입학한 김일지(플루트 전공)·김영민(오보에 전공)·최유진(호른 전공)양과 장재혁(클라리넷 전공)·고경훈(바순 전공)군이 「Five Easy Dances」 곡을 통해 플라, 탱고, 불레로, 왈츠, 롬바등의 발랄한 음악을 선보였으며, 이시현양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박기나양

이 바이올린으로 「카프리스바스크」를 연주했다. 林殷浩사무장의 2002년 사업실적 및 재정보고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韓相宇(62년 졸·음악평론가) 수석부회장(사진)을 신임회장에 선출했으며, 감사는 유임했다.

신임 韓회장은 취임사에서 졸업한지 40년이 지났는데 그중 20년 이상을 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것이 회장을 맡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다. 무엇보다 졸업생들이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내에 귀국한 해외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7회 동문교향악단 연주회(SNU Phil)를 갖기로 확정했다. 또한 회원 명부 제작비를 순수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감안해 동문들에게 광고 협찬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총동창회보 301호(2003년 4월 15일, 25일)



## 간호대 동창회

신임회장에 俞淑子 동문 선임

간호대학동창회(회장 차명子)는 지난 3월 12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관강당에서 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임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차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간호대학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 동문 가운데 金花中(67년 졸)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런 경사도 있었다. 앞으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동문들이 되어 나라와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 고 말했다. 이날 신임회원 환영회에서 원로 동문들이 새로 임명한 동문들에게 회원메달을 전달했으며, 이나윤동문이 신임회원을 대표해 졸업생 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보니 많은 선배동문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자랑스런다. 이들을 본받아 선배동문과 함께 모교와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

이날 차회장이 모교에 나이팅게일 기장을 헌납했으며, 그동안 동창회와 모교를 위해 헌신해온 申鉉玉(49년 졸)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차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俞淑子(63년 졸·가톨릭대 교수·사진)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俞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작은 산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동창회의 회장직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 고 말하고 앞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동문간의 유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피력했다. 서울총동창회보 301호(2003년 4월 15일) 25일



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紅男(71년 文理大卒·이화여대 교수)=최근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내정됨.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3월 6일 한국신문협회 회장에 선출됨.



▲高永才(74년 文理大卒·한겨레신문 광고국장·본보 논설위원)=지난 3월 25일 한겨레신문 콘텐츠 평가실장에 선임됨.



▲南基明(75년 環大院卒·前경기도 행정부지사)=지난 3월 3일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총장에 임명됨.



▲李圭用(78년 法大卒·환경부 환경정책국장)=지난 3월 20일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朴德培(79년 自然大卒·해양

수산부 수산정책국장)=지난 3월 20일 해양수산부 차관보에 임명됨.

▲李英旭(81년 人文大卒·전주대 교수)=지난 3월 14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에 임명됨.

▲鄭永祿(81년 社會大卒·모교 국제대학원 교수)=지난 3월 19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 관계자 및 서울의 중국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결성한 「차이나 클럽」 회장에 선출됨.

▲吳龍祿(82년 音大卒·모교 국악과 교수)=최근 한국민족음악인협회(민음협) 정기총회에서 새 의장에 선출됨.



▲李章漢(37기 AMP·종근당 회장)=최근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에 취임함.

▲張學世(43기 AMP·대한해운 사장)=지난 3월 14일 대한해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선임됨.



▲具鍾泰(45기 AMP·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장)=지난 3월 5일 새천년민주당 전국국회의원직을 승계하여 제16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함.

▲車重根(51기 AMP·유한양행 부사장)=지난 3월 14일 유한양행 주주총회에서 사장에 선임됨.

▲朴英子(50년 師大卒·세계시인시낭송문학연구회장)=최근 인도 첸네이의 페니솔라호텔에서 제4차 세계시인시낭송문학연구회의를 개최하고 Va. Mu. Sethuraman박사에게 「신라 금관 세계평화문학상」을 시상함.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 사회 포럼 회장)=지난 3월 20일 롯데호텔 필름에서 모교 환경계획학과 崔相哲(64년 行大院卒)교수를 초청,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주제로 제31회 조찬특별강연회를 개최함.

▲李基俊(61년 工大卒·모교 응용화학부 교수·한국공학한림원 회장)=지난 3월 13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주)효성

秋智錫(64년 工大卒)부회장을 초청, 「우리 나라 기업의 바람직한 구조조정, 효성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CEO조찬회를 가짐.

▲李但悅(67년 音大卒·테너·성신여대 교수)=지난 3월 28일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독창회를 열어 성신여대 林憲媛(68년 音大卒·피아노)·皮虎英(83년 音大卒·바이올린)교수, 모교 金泳律(80년 音大卒·호른)교수와 함께 텔레만, 바흐, 시포어, 슈베르트 등의 작품을 선보임.

▲金學元(70년 法大卒·국회의원)=지난 3월 19일 국회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 동계스포츠 강국 5개국을 둘러보고 우리나라 유치지원 활동을 펴기 위해 출국함.

▲金潤澤(70년 經大院卒·대광 흥산 회장·양전장학회 이사장)=지난 2월 27일 제3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학사·석사·박사과정 총 10명에게 각각 1백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함.

▲玄在喜(76년 音大卒·세종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4월 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1983년 KAL기 사고로 별세한 故 吳貞珠교수를 추모하고, 자선트리기관인 요셉의원을 후원하기 위해 피아니스트 申秀貞(63년卒)·金明瑞(70년卒)·朴炫宣(75년卒)·李英伊(77년卒)·全美映·金恩熙(78년卒)·李景純(79년卒)·姜忠模·羅海鎮·朴仁微·李惠全(83년卒)·金大鎮(81년入)·嚴義卿(85년卒)·李惠恩

대표)등문이 사주오행에 따라 내 몸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꾸며 삶의 활력을 찾고 행운을 불러오는 상생조경 방법을 실제 예를 들어가며 꼼꼼히 풀어 준다.

李東문은 이 책에서 우리의 전통적 조경관은 자연 순응, 즉 자연스러움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청동거울·값 28,000원)

■간다라 미술 —李柱亨 著

모교 인문대 고고미술학과 李柱亨(84년 人文大卒)교수가 1999년 여름 서울에서 열렸던 「간다라 미술대전」에서 구성을 맡으며 제작했던 도록의 내용을 보강해 펴낸 책.

李교수는 간다라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인접 분야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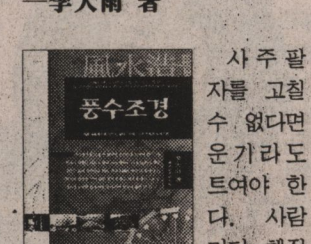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책의 서술방식에 있어서 문화사적인 성격이 강하며 주석에 있어서도 주의 수를 가능한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포괄적으로 전거를 밝혔다. (세계절간·값32,000원)



정리해 놓았다. 정치, 경제, 4·19혁명과 학생운동, 서평·수필·대담의 4편으로 나눠 다양한 주제에 대한 尹東문의 생각들이 담겨 있다.

새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정당의 개혁은 물론 각 부문의 바람직한 개혁이 지속되어야 하며,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안정과 활력을 보존하고 더욱 활기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적고 있다. (명인출판사·값25,000원)

■풍수조경 —李大雨 著



사주팔자를 고칠 수 없다면 운기라도 트여야 한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몸에 맞는 음식이 따로 있듯이 생활공간도 몸에 맞추어야 한다.

송현R&D 전문인李大雨(77년 環大院卒·풍수조경연구소

新刊

■예술가곡의 이해 —李慶淑 著



모교 음대 석학과 李慶淑(55년 音大卒)명예교수가 헨델, 바흐, 하이든, 베토벤, 드뷔시 등 세계적인 작곡가의 작품을 통해 예술가곡의 배경과 특징을 소개한다.

그리고 예술가곡의 3대 주류인 이탈리아, 독일 및 프랑스 가곡의 원류를 더듬어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근대 예술가곡의 효시인 흥남파의 「봉숭아」 등 한국가곡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를 더해준다. (선우미디어·값9,000원)

■進歩·正義·自由를 위한 노우트 —尹埴 著

대구경북개발연구원 尹埴(64년 文理大卒)원장이 81년 이후 발표한 각종 연구서의 요약 및 결론, 논문과 수필을

미대동창회 李信子회장 「섬유작업 50년」 도록 출판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자 미술대학동창회장인 李信子(55년 美大卒)우덕문화원장(사진)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예술원 미술관에서 「섬유작업 50년」이라는 주제로 작품 도록 출판 기념전을 개최했다. 섬유의 재료와 여러 표현의

섬유미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염색, TAPESTRY 등을 정착시켜온 李東문은 이번 전시회에서 자신의 평생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TAPESTRY 「한강, 서울의脈」과 「산의 정기 1, 2, 3, 4」 「희망」 「겨울의 창」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날 작품전에는 숙명여대 朴淑姬(62년卒)교수, 서울여대 朴香淑(62년卒)·李貞淑(69년卒)교수, 대구기독교대 金芝希(63년卒)·崔英子(67년卒)교수, 단국대 丁玉蘭(66년卒)교수 등 20여명의 후배 작가들의 찬조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87년卒)東문, 클라리네스트 예술종합학교 吳光浩(74년卒)교수, 바이올리니스트 金旻(64년卒)모교 음대 학장, 테너 朴世源(72년卒)·소프라노 金麟惠(84년卒)모교 교수 등과 함께 자선음악회를 개최함.

▲朴仁秀(77년 音大卒·광주시향 수석·클라리넷)=지난 3월 14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아들 재성(클라리넷)·재만(호른)군과 함께 가족음악회를 개최하여 오네게, 크루셀, 헨델, 폰키엘리 등의 작품을 연주함.

▲林天奎(81년 大學院入·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강사)=최근 음반 「I am your man」을 제작, 발표함. 이번 음반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음.

▲曹秀美(81년 音大入·성악가)=지난 4월 3일 유네스코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평화예술인(Artist for Peace)에 선정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임명장을 받음.

▲金明圭(24기 AMP·한국가스공사 사장)=지난 3월 7일 호주 ALNG사와 7년동안 약 3백 20만톤의 LNG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정리=安興燮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김영준(95년 農生大卒)군·박장희 양=4월 26일 12시 30분. \*유승훈(92년 工大卒)군·김성희 양=4월 26일 15시 30분.

#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재미동창회보 발간을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 인원	합 계
01	남가주	이병준(\$2,000, 상대 55입) 심상은(\$1,000, 상대 54입) 이종도(\$200, 공대66입) 김상호(\$250, 사범대 56졸) 오길평(\$500, 치대 61입) 노명호(\$3,000 / 종신이사비, 공대 61입) 서동영(\$200, 사범대 60입) 제영혜(\$200, 가정대 71입) 정원훈(250 상대38입)	9	7,600
02		김향자(\$300, 약대 61입)	1	300
03	샌프란시스코	정유석(200 의대 58입)	1	200
04	뉴욕(NY, NJ, PA 일부 CT)	이전구(\$2,000, 농대 60입) 김승호(\$200, 공대 71입) 윤정옥(\$1,000, 약대 50입) 강상욱(\$500, 상대 63입) 뉴욕지부동창회(\$2,000) 이준행(\$500, 공대 47입) 김상각(\$200, 상대 57입) 이운순(\$200, 의대 52입) 김용재(\$200, 의대 60입) 최영태(\$200, 문리대 67입) 이전구(\$300, 농대 60입) 이재덕(\$200, 법대 60입) 한창섭(\$200, 문리대 57입) 김용학(\$300, 법대 70입)	14	8,0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소진문(\$300, 치대 62년 졸) 서승환(\$300, 치대 61년 졸) 임이섭(\$300, 미대 59년 졸) 강영국(\$1,000, 수의대 67입) 이용락(\$5,000, 공대 53졸) 최인갑(\$200, 공대 57입) 최용완(\$200, 공대 57입) 정길화(\$200, 의대 65졸) 김기태(\$200, 의대 52입) 임춘수(\$500, 의대 57입) 김정주(\$200, 문리대 64졸) 박영규(\$300, 농대 57입) 송재현(\$200, 의대 48입) 김기태(\$200, 의대 58졸) 박창만(\$200, 공대 56입) 정승규(\$300, 공대 60입) 조대현(\$200, 공대 57입) 소진문(\$300, 치대 58년입) 장기남(\$1,000, 문리대 62입) 최호승(\$200 사범대 58입) 전현일(\$200, 농대 62입) 강영국(\$300, 수의대 67입) 송순영(\$1,000, 문리대 52입) 구경희(\$500 의대 59입)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한재은(\$1500 의대 59입) 엄무광(\$500 문리대 61입) 이용락(\$5000 / 종신이사비 \$3000 일반이사비 \$2000 공대 53졸)	29	24,300
06	워싱턴 DC (MD, VA)	방은호(\$300, 약대 45졸) 박윤수(\$1,000, 문리대 48입) 방은호(\$300, 약대 45졸) 워싱턴 DC 지역동창회(\$1,200) 변만식(\$200, 사대 49입) 신상균(\$500, 의대 52입) 이영복(\$250, 공대 59입) 권철수(\$500, 의대 68입) 박윤수(종신이사비 \$3,000, 문리대 48입)	9	7,250
07	워싱턴주	한민섭(\$200, 공대 49입) 김성열(\$200, 치대 67졸) 허유환(250 사범대 57입)	3	650
08	휴스턴	조시호(\$1,000, 문리대 59입) 김정훈(\$200, 공대 46입) 휴스턴 지역동창회(\$400)	3	1600
09	달라스			
10	미네소타	미네소타 지역동창회(\$400) 권승림(\$200, 공대 52입)	2	600
11	조지아	임수암(\$200, 공대62입) 조지아지부(\$500) 김용건(\$200, 문리대 48입)	3	900
12	아리조나	오덕겸(\$500, 의대 58입)	1	500
13	유타			
14	하와이			
15	오레곤	김상순(\$200 상대 67입)	1	200
16	기타1(서부)	록키마운틴즈 지역동창회(\$300)	1	300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오인석(\$1,000, 법대58입) 이종진(\$300, 공대55입) 오인석(\$3,000 / 종신이사비, 법대 58입)	3	4,300
19	필라델피아	이상봉(\$200, 문리대 65입) 현재원(\$200, 공대 60입) 정정수(\$200 의대 56입)	3	600
20	뉴잉글랜드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900) 김제호(\$200, 상대 56입) 강경식(\$500, 문리대 55입) 유상래(\$200, 수의대 62입)	4	1,800
21	하트랜드	김호원(\$1,000, 치대52입) 이상문(\$200, 상대 57입)	2	1,200
22	중부펜실바니아			
23	캐롤라이나	김기현(\$200, 문리대 56년 졸)	1	200
<b>일반 이사 합계</b>			<b>86</b>	<b>\$48,500</b>
<b>종신 이사 합계</b>			<b>4</b>	<b>\$12,000</b>
<b>총 계</b>			<b>90명</b>	<b>\$60,500</b>

## 이번달 납입현황

(2003년 3월 01일~2003년 5월 28일)

### 종신이사

강영빈(문리대 58입) 박경민(의대 53입)  
박병기(공대 54입) 방은호 (약대 45졸)  
서영석(의대 55입) 심상은(상대 54입)  
오인석(2회, 법대 58입) 오홍조(치대 56입)  
윤선홍(치대 64입) 이교락(의대 53입)  
이기영(농대 70입) 이병준(상대 55입)  
이세열(사대 57입) 이전구(농대 60입)  
정 태(의대 57입) 이청광(상대 61입)  
전희택(의대 60입) 윤정옥(약대 50입)  
한홍택(공대 60입) 조시호(문리대 59입)  
이용락(공대 48입) 노명호(공대 61입)  
박윤수(문리대 48입)

### 신규 일반이사

김기현(\$200, 문리대 56년 졸)  
최인갑(\$200, 공대 57입)  
최용완(\$200, 공대 57입)  
정길화(\$200, 의대 65졸)  
미네소타 지역동창회(\$400)  
김기태(\$200, 의대 52입)  
이종진(\$300, 공대 55입)  
한민섭 (\$200, 공대 49입)  
임수암(\$200, 공대 62입)  
김승호(\$200, 공대 71입)

동창회보 발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관악후원회비 출연이사

소진문(\$300, 치대 62년 졸)  
서승환(\$300, 치대 61년 졸)  
임이섭(\$300, 미대 59년 졸)  
방은호(\$300, 약대 45졸)  
이전구(\$2,000, 농대 60입)  
이병준(\$2,000, 상대 55입)  
심상은(\$1,000, 상대 54입)  
방은호(\$300, 약대 45졸)  
조시호(\$1,000, 문리대 59입)  
윤정옥(\$1,000, 약대 50입)  
이용락(\$5,000, 공대 53졸)  
박윤수(\$1,000, 문리대 48입)  
오인석(\$1,000, 법대 58입)  
김호원(\$1,000, 치대 52입)  
강영국(\$1,000, 수의대 67입)

등단없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  
발간을 지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1	남가주	293 <p>이건영(\$120, 문리대 71입) 박경순(\$120, 간호대 53입) 이근설(상대 56입) 조상문(보건대학원 71입) 박형건(문리대 63입) 임화식(치대 59입) 김지익(의대 44입) 김정빈(공대 66입) 이종도(공대 66입) 김중원(\$100 추가구독료, 문리대 69입) 김달준(약대 50입) 전낙관(사대 60입) 박해란(음대 73입) 이봉수(수의대 66입) 김진숙(간호대 72입) 김현겸(치대 56입) 전동희(공대 58입) 김성호(법대 64입) 정민영(의대 51입) 고영련(사법대 57입) 김용일(보건대학원 65입) 전병희(약대 55입) 허영진(문리대 62입) 최왕욱(공대 69입) 이채진(문리대 55입) 박진득(농대 67입) 송정자(의대 73입) 윤용길(공대 55입) 최재윤(문리대 54입) 김태윤(법대 53입, 전년도 납입, 추가납입) 이상진(법대 57입) 김선기(법대 59입) 이상욱(치대 66입) 민희숙(간호대 74입) 정만영(약대 66입) 김창덕(약대 53입) 최영순(간호대 69입) 최희봉(상대 56입) 김진호(약대 64입) 김동훈(의대 71입) 김선주(사법대 49입) 박정모(문리대 66입) 정종훈(치대 74입) 전희택(의대 60입) 박남수(문리대 74입) 김재무(상대 58입) 최수명(문리대 59입) 장동호(공대 53입) 남홍범(공대 59입) 김정화(미대 63입) 김성환(의대 71입) 김광은(음대 56입) 주 훈(음대 ?) 김준일(공대 62입) 김중표(법대 58입) 신정식(상대 64입) 박희규(수의대 55입) 김현진(농대 58입) 박재인(약대 60입) 이정규(농대 69입) 이송희(간호대 47입) 김두휘(문리대 58입) 최재권(문리대 59입) 김영배(미대 61입) 이기재(사법대 52입) 이종희(공대 53입) 박재덕(상대 52입) 강봉창(약대 50입) 선우동훈(문리대 54입) 권치균(공대 51입) 김순길(법대 ?) 서재섭(상대 53입) 신광재(공대 73입) 김태호(상대 57입) 이 승(공대 59입) 임낙균(약대 64입) 민경택(의대 61입) 호기원(치대 70입) 최순자(약대 53입) 박영근(상대 56입) 곽철(법대 64입) 최준호(치대 58입) 신정현(미대 59입) 서관석(미대 67입) 이상구(상대 57입) 이홍표(의대 60입) 방윤자(문리대 59입) 임재영(공대 59입) 박익순(\$50 수의대 74입) 김장섭(\$100 약대 44년입) 최예섭(치대 45년입) 강형운(농대 52년입) 김옥권(미대 76년입) 배호식(문리대 52년입) 이명선(상대 58입) 오인근(약대 59입) 유진형(상대 48입) 이범식(공대 61입) 최명종(음대 ?) 김재신(음대 60입) 이동성(의대 53입) 박태호(치대 66입) 탁해숙(음대 67입) 이호경(치대 63입) 홍은정(음대 70입) 이병희(수의대 75입) 노봉식(음대 ?) 오형원(의대 53입) 송길장(사법대 58입) 이정욱(공대 52입) 강배영(상대 54입) 황병찬(문리대 48입) 김창무(음대 53입) 김은희(치대 50입) 고재천(공대 57입) 김동익(법대 57입) 김광자(약대 62입) 조만연(상대 58입) 김해인(가정대 69입) 김중원(문리대 69입) 이호일(의대 60입) 강영만(상대 72입) 서동영(사법대 60입) 이동휘(공대 63입) 김태웅(의대 63입) 배재호(공대 58입) 나민주(음대 65입) 정현진(간호대 72입) 황석우(의대 53입) 윤병인(의대 64입) 박범수(가정대 70입) 윤진수(의대 57입) 노병일(경성법학전문 41입) 김생철(법대 54입) 김성복(공대 59입) 임선영(음대 57입) 안승호(공대 71입) 이원규(공대 54입) 김일선(사법대 67입) 정기정(상대 69입) 권대원(대학원 59입) 윤병현(사법대 53입) 최재현(수의대 66입) 이상학(공대 59입) 김학천(치대 71입) 노명호(공대 61입) 고용규(의대 67입) 김윤걸(자연대 77입) 임용오(의대 57입) 탁의용(상대 58입) 김상익(공대 46입) 조정시(공대 60입) 박명근(상대 63입) 정황(공대 64입) 김원택(공대 65입) 신동규(수의대 76입) 김정협(치대 59입) 도영미(사법대 52입) 김명자(치대 57입) 하기환(공대 66입) 이경호(공대 67입) 심상운(상대 54입) 이진택(경영대 72입) 서경만(의대 51입) 윤경민(법대 55입) 박취서(약대 60입) 이승재(상대 67입) 한원민(의대 59입) 홍성애(의대 60입) 신한경(약대 56입) 김정에(간호대 69입) 김원경(약대 59입) 장동석(문리대 66입) 이혜란(미술대 72입) 장진성(약대 66입) 양은석(음대 70입) 김상엽(공대 57입) 김선주(사법대 50입) 신우식(치대 ?) 신무수(치대 63입) 백만일(공대 64입) 강신호(사법대 49입) 김세담(법대 55입) 정동구(공대 57입) 고석규(치대 65입) 신우천(치대 64입) 양은혁(상대 56입) 정복근(\$100, 사법대 69입) 차민영(의대 78입) 김동호(치대 ?) 이강훈(치대 65입) 손학식(공대 61입) 김동산(법대 59입) 정경화(의대 70입) 박계영(공대 57입) 김은중(상대 59입) 이정재(수의대 45입) 김건진(문리대 62입) 오재인(치대 33입) 최호준(의대 77입) 권길상(음대 46입) 이호준(공대 55입) 오길평(치대 61입) 이현세(법대 68입) 김선명(공대 75입) 김희재(사법대 66입) 최복영(사법대 56입) 이성호(의대 72입) 김영(수의대 63입) 조성운(법대 46입) 홍진(간호대 55입) 김용채(문리대 61입) 신정자(사법대 63입) 박인창(농대 65입) 김희봉(공대 72입) 노상규(공대 60입) 송두빈(사법대 57입) 김영기(의대 54입) 김군번(법대 56입) 이난경(음대 66입) 남정우(치대 48입) 이진섭(치대 54입) 우원섭(치대 65입) 김일영(의대 65입) 한종철(치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한홍택(공대 60입) 신상화(공대 58입) 박일하(치대 56입) 박해욱(간호대 69입) 이근원(공대 67입) 임문빈(상대 58입) 조종웅(공대 45입) 엄세욱(간호대 69입) 권기상(경영대학원 72입) 육중훈(상대 67입) 강경수(법대 58입) 정원훈(상대 3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석구(공대 66입) 최수규(간호대 65입) 문덕수(공대 73입) 최승훈(상대 53입) 서치원(공대 69입) 지인수(상대 59입) 이환진(상대 68입) 임택선(공대 52입) 정재숙(약대 51입) 조우원(문리대 66입) 권순찬(공대 60입) 현승일(문리대 58입) 김낙구(상대 67입) 김재현(음대 64입) 장석현(치대) 이혜영(공대 56입) 변재삼(법대 59입) 김남숙(공대 51입) 신인자(문리대 59입) 배동양(공대 65입) 강희창(공대 57입) 장대욱(음대 57입) 원영배(미대 74입) 정지선(상대 58입) 권봉성(문리대 64입) 이태준(음대 62입) 이영주(치대 62입) 심영춘(수의대 64입) 김경자(사대 52입) 임윤택(약대 63입) 이양숙(치대 31입) 김광진(문리대 60입) 이영식(농대 59입) 안정희(미대 62입) 신보남(미대 59입) 이희영(음대 66입) 성경경(문리대 62입) 김성해(음대 71입) 곽성재(상대 56입) 추교훈(농대 63입) 이광재(공대 59입) 정희영(치대 58입) 정진화(약대 54입) 이정근(사대 60입) 권영달(문리대 50입) 서정빈(법대) 윤홍기(의대 64입) 민병완(약대 72입) 김중자(사대 61입) 신대식(상대 60입) 박한영(치대 56입) 박영순(음대 44입) 김익창(의대 56입) 전호선(수의대 67입)</p>
02		1 김항자(약대 61입)
03	샌프란시스코	4 박세록(의대 57입) 황동하(의대 65입) 정조웅(공대 60입) 홍경삼(문리대 61입)
04	뉴욕 (NY, NJ, PA일부CT)	261 <p>이현호(공대 58입) 김해암(의대 58입) 송재한(약대 65입) 이희자(간호대 70입) 전웅상(\$100, 공대 52입) 이종대(약대 65입) 박경룡(약대 63입) 김영일(\$100, 약대 58입) 우관혜(음대 63입) 임종열(미대 65입) 송기인(의대 60입) 고강희(약대 56입) 송병문(공대 66입) 윤병우(문리대 67입) 강충무(\$100, 사법대 65입) 김중현(법대 61입) 김장수(약대 64입) 이영재(상대 58입) 조달훈(사법대 66입) 최태식(\$50, 약대 74입) 이진구(농대 60입) 허병렬(사법대 42입) 이준행(공대 47입) 최일단(미대 55입) 박승규(의대 55입) 김순자(\$50, 약대 63입) 김영만(상대 59입) 윤인숙(간호대 63입) 현영수(음대 61입) 임근식(음대 54입) 최일단(미대 55입) 손주현(의대 61입) 석창호(의대 66입) 김문경(약대 65입) 김재민(약대 57입) 조희재(음대 58입) 강 효(음대 63입) 손영철(공대 68입) 이태상(문리대 55입) 유숙현(간호대 61입) 강영선(공대 50입) 홍선경(의대 58입) 한용진(미대 56입) 문미애(미대 56입) 정연희(미대 64입) 변영석(의대 65입) 신남철(인문대 81입) 김현기(공대 62입) 민준기(\$50 공대 59입) 배상규(약대 61입) 김학수(상대 65입) 장기선(약대 61입) 윤영섭(의대 63입) 최영혜(간호대 64입) 김태호(약대 63입) 서종웅(약대 70입) 조상근(법대 69입) 박대규(법대 ?) 윤준식(법대 58입) 유택삼(문리대 58입) 박경원(미대 66입) 박성일(상대 58입) 박진수(의대 58입) 강우정(음대 62입) 조시래(문리대 57입) 고석원(문리대 50입) 최승웅(의대 61입) 이병해(의대 79입) 김영덕(공대 53입) 이봉상(약대 59입) 연봉원(문리대 61입) 최정에(간호대 66입) 김관준(약대 46입) 최재홍(의대 67입) 곽선섭(공대 61입) 김익성(상대 52년입) 윤봉근(사법대 54년입) 이영숙(간호대 56년입) 최형무(법대 69년입) 이우찬(의대 58년입) 윤여민(상대 60년입) 김규화(상대 63년입) 김훈일(공대 60년입) 윤갑석(공대 53년입) 권영대(공대 69입) 송관호(의대 58입) 배병애(간호대 45입) 윤현남(공대 63입) 노경희(간호대 66입) 문길용(음대 45입) 소우영(상대 65입) 유재은(미대 71입) 반영철(\$100 약대 58입) 차국만(상대 56입) 김현중(공대 63입) 조대영(공대 61입) 정진우(의대 72입) 서병선(음대 65입) 송용길(신문대학원 69입) 김원복(문리대 50입) 손갑수(약대 59입) 임문수(공대 72입) 백윤자(간호대 64입) 김양호(의대 57입) 이기준(\$100 문리대 66입) 선우지민(약대 54입) 조문혜(약대 59입) 김항자(간호대 63입) 임석태(법대 48입) 이정애(미술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성백문(공대 61입) 선종철(의대 57입) 이대영(문리대 64입) 최석진(사법대 54입) 전재우(공대 75입) 이종성(의대 58입) 정택수(문리대 45입) 김양수(미술대 69입) 김석식(의대 56입) 박상원(음대 69입) 강상진(의대 59입) 남상대(간호대 65입) 백영복(간호대 69입) 이필영(사법대 54입) 장미숙(치대 85입) 황문하(수의과대 76입) 박건호(의대 57입) 한승원(미술대 60입) 전병삼(약대 54입) 김용재(의대 60입) 오정환(의대 55입) 이재원(법대 60입) 홍명희(간호대 61입) 이연찬(의대 52입) 허재순(사법대 54입) 김정빈(약대 54입) 조정현(보건대학원 64입) 현건섭(공대 55입) 이경태(공대 63입) 조경호(의대 66입) 라준국(공대 47입) 조성무(공대 56입) 김현희(간호대 63입) 이승호(상대 63입) 이경립(상대 64입) 조충열(의대 60입) 한호(상대 66입) 조숙자(간호대 59입) 남일우(법대 57입) 이병희(의대 60입) 최창식(의대 61입) 변광록(간호대 72입) 김광호(의대 72입) 정일하(상대 55입) 김영용(치대 60입) 조규용(의대 66입) 이정은(의대 58입) 박승영(법대 56입) 김영일(의대 69입) 최수용(상대 55입) 오준영(상대 49입) 최한용(농대 58입) 이홍제(의대 68입) 전성진(사법대 58입) 탁명양(약대 56입) 서상철(의대 56입) 최구진(약대 54입) 송재한(약대 61입) 윤정욱(약대 50입) 김우영(상대 60입) 송영순(사법대 60입) 이기영(농대 70입) 장동만(문리대 63입) 나연수(사법대 53입) 유호근(법대 71입) 김충정(상대 64입) 김주은(공대 71입) 김재현(상대 70입) 김한중(의대 56입) 이재덕(법대 60입) 권후열(상대 73입) 최한선(공대 56입) 이종호(의대 63입) 윤순철(사법대 44입) 김상각(상대 57입) 이정자(간호대 63입) 김석권(법대 61입) 이준민(문리대 60입) 변찬의(상대 63입) 나찬국(의대 64입) 김진승(문리대 53입) 성기호(의대 57입) 심정섭(의대 53입) 김기훈(상대 52입) 김희국(약대 54입) 최취웅(문리대 64입) 김병술(약대 52입) 조종수(공대 64입) 이국진(사대 51입) 전민욱(간호대 66입) 이정순(법대 53입) 최영태(문리대 67입) 노용면(의대 55입) 한용호(법대 52입) 이문휘(문리대 54입) 김세환(공대 65입) 박창익(농대 64입) 전희근(의대 54입) 이덕인(미술대 56입) 허선행(의대 58입) 김영두(농대 61입) 허용웅(상대 63입) 이영수(치대 55입) 이지현(문리대 73입) 서병선(\$50, 음대 65입) 박수성(\$120 2년치, 문리대 60입) 김승호(공대 71입) 장영자(간호대 68입) 김명승(상대 65입) 박고자(음대 61입) 이재진(의대 59입) 이유성(사대 57입) 금영천(약대 72입) 이상영(상대 55입) 김세중(공대 50입) 김정용(의대 67입) 조규용(상대 69입) 정인식(상대 58입) 이승우(약대 63입) 최철용(농대 61입) 서홍석(의대 65입) 방준재(의대 63입) 고학진(의대 66입) 장병호(의대 56입) 김창화(미대 65입) 탁명양(약대 56입) 차대웅(상대 54입) 정사열(법대 55입) 이준무(음대 65입) 신정택(약대 52입) 김완규(의대 60입) 김은섭(의대 59입) 신용재(상대 77입) 이선호(의대 75입) 육순재(의대 63입) 한인섭(약대 67입) 고춘자(간호대 60입) 박상준(약대 55입) 허선행(의대 58입) 백봉주(공대 69입) 고영수(미대 57입) 김기택(수의대 81입) 이행순(미대 60입) 방병기(의대 67입) 조영일(공대 68입) 추재욱(의대 63입) 김영철(의대 55입) 김지익(의대 71입) 신경호(의대 63입) 최수강(의대 65입)</p>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단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184 한중하(의대 58입)임춘수(의대 57입) 김인섭(음대 ?)임이섭(\$100, 미대 54입)이승훈(\$50, 공대 66입) 김이순(공대 56입) 주명순(간호대 64입) 민영기(\$120, 공대 65입) 이지연(의대 68입) 정광훈(공대 64입) 정경근(농대 59입) 신석균(문리대 54입) 박창만(공대 56입)문준호(약대 62입) 광영로(수의대 76입) 임영신(의대 52입) 정승규(공대 60입) 이인선(미대 72입) 이법세(의대 57입) 최희수(\$100, 문리대 67입) 김현규(의대 47입) 정남재(사범대 56입) 조 철(공대 49입) 홍규식(문리대 64입) 이윤모(농대 57입) 제현수(사대 65입) 이범규(공대 59입) 이소희(의대 61입) 이수인(\$120 의대 56입) 조형원(약대 54입) 김정일(의대 57입) 육태식(의대 61입) 김택수(의대 57입) 장 철(의대 71입) 남상용(공대 52입) 강태수(의대 65입) 최호승(작년도 선납) 한재은(의대 59년입) 지명식(사범대 65년입) 구자원(법대 55년입) 이영모(의대 59년졸) 이태석(의대 67년졸) 이한중(의대 61년입) 장병호(의대 66년입) 한경희(간호대 67입) 이근정(공대 73입) 이규달(의대 68입) 이종일(의대 71입) 윤호윤(의대 63입) 이한홍(의대 68입) 임현재(의대 59입) 황치홍(문리대 65입) 박영준(문리대 67입) 최순분(간호대 56입) 구형서(공대 69입) 임무광(문리대 61입) 오상현(의대 71입) 김정근(의대 61입) 한성수(의대 56입) 최인갑(작년도 선납, 공대 61입) 김영호(의대 77입) 장재찬(의대 59입) 장세근(의대 57입) 박정일(의대 61입) 조중현(의대 63입) 박숙(의대 64입) 이설희(간호대 73입) 최순강(음대 65입) 이순자(간호대 66입) 전현(문리대 60입) 이정일(농대 57입) 이소정(음대 84입) 고성서(경성사범 38입) 배건재(공대 53입) 김일훈(의대 51입) 이재홍(의대 58입) 정길화(의대 65입) 신영규(의대 57입) 이상일(의대 54입) 김승희(법대 55입) 김택수(의대 57입) 광노균(상대 55입) 송용덕(의대 57입) 김형수(농대 68입) 김우식(의대 64입) 이준기(농대 55입) 서영일(의대 68입) 강영국(수의대 67입) 김용성(상대 54입) 백영구(행정대학원 61입) 김현석(문리대 69입) 한의일(공대 62입) 김상기(문리대 61입) 배영섭(의대 54입) 임재일(농대 64입) 안정희(간호대 75입) 장시경(약대 58입) 진보란(의대 56입) 이상현(의대 64입) 김앤드류(상대 50입) 백준철(공대 62입) 김현욱(문리대 67입) 박준환(의대 57입) 박중수(수의대 58입) 이영웅(의대 62입) 장홍(문리대 61입) 고영철(의대 45입) 성홍환(\$160, 수의대 75입) 김원화(음대 72입) 서승환(치대 61입) 손기용(의대 55입) 김한철(사범대 61입) 김세중(경영대 79입) 김용우(공대 58입) 박홍근(공대 64입) 허서룡(의대 60입) 장병욱(의대 59입) 김병윤(문리대 65입) 이용락(공대 48입) 전영자(미대 58입) 하계현(공대 64입) 계명수(의대 69입) 박연희(간호대 65입) 김정주(문리대 64입) 임근식(문리대 56입) 이승자(사범대 60입) 김갑중(의대 57입) 정의철(의대 55입) 유준석(의대 53입) 조 철(\$50 공대 49입) 정 태(\$100 의대 57입) 이덕수(\$100 문리대 62입) 최승정(공대 60입) 이진주(문리대 55입) 송재현(의대 48입) 안창현(의대 55입) 우석홍(상대 61입) 서경원(공대 53입) 구경희(의대 59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유희명(\$100 의대 58입) 김정수(문리대 69년입) 홍혜례(사대 76년졸) 도상탁(\$100, 의대 56년졸) 최애옥(간호대 47입) 강화영(문리대 50입) 심기창(문리대 68입) 양희미(약대 67입) 송원희(미대 60입) 장윤일(공대 60입) 이기춘(약대 42입) 이재원(사대 56입) 백준철(공대 66입) 이재현(사대 67입) 안인숙(간호대 78입) 송성준(법대 76입) 송규구(사대 61입) 오명자(간호대 60입) 강창만(의대 58입) 김동수(공대 48입) 최해숙(의대 53입) 조영희(문리대 66입) 김호범(상대 73입) 이경미(미대 69입) 김영남(사대 53입) 이기영(문리대 47입) 강수상(의대 47입) 사남순(간호대 72입) 김우영(의대 70입) 이동하(공대 57입) 김옥자(약대 66입) 박중근(공대 61입) 송용덕(의대 64입) 이의상(\$100, 사대 58입) 오영욱(\$100, 의대 65입) 이상우(\$100, 상대 72입) 김웅식(\$100, 의대 53입) 송원길(\$100, 의대 64입) 최병두(의대 58입) 황규정(의대 65입) 원종수(의대 69입) 문광재(의대 62입) 임정희(사대 54입) 주선무(공대 57입) 이연우(문리대 65입)
06	워싱턴 DC (MD, VA)	72 정두현(의대 55입) 김진은(사대 ?) 현의생(수의대 60입) 문성길(의대 63입) 윤만중(의대 53입)김재동(인문대 70입) 김영기(법대 50입) 임필승(의대 54입) 진금삼(\$61, 약대 57입) 경국(농대 75입) 오기창(법대 50입) 장윤희(사범대 54입) 남광순(음대 64입) 심준보(상대 55입) 이재승(의대 55년입) 김기봉(공대 63년입) 조남현(의대 64년입) 문홍숙(간호대 55년졸) 변만식(사범대 49년입) 고우환(법대 57년입) 소숙영(간호대 64년입) 이내원(사범대 58입) 석규범(문리대 61입) 김중규(의대 60입) 박성태(문리대 71입) 이정섭(의대 48입) 오광동(공대 52입) 신상근(의대 52입) 김동덕(의대 53입) 김창호(법대 56입) 김창웅(법대 60입) 광홍(의대 45입) 이정희(의대 59입) 배병권(상대 55입) 김훈진(치대 ?)홍인희(공대 58입) 엄승용(농대 57입) 박경일(농대 69입) 장병규(사회과학대 76입) 최정현(문리대 50입) 조병선(의대 71입) 광태조(음대 64입) 오인환(문리대 63입) 안미애(가정대 81입) 박은희(미대 72입) 김경구(사범대 49입) 김정환(문리대 60입) 최경수(문리대 58입) 박홍우(문리대 65입)박영영(의대 66입) 전경철(공대 55입) 윤개일(약대 60입) 주 일(의대 46입)민길우(문리대 61입) 김지우(의대 56입) 김병자(법대 52입) 유덕영(공대 57입) 전희순(간호대 80입) 이영휘(상대 55입) 이태영(법대 60입) 이건형(수의대) 오혜원(약대 59입) 조요운(공대 61입) 유홍렬(자연대 75입) 최규식(상대 64입) 계병정(공대 46입) 최완열(상대 56입) 박순(법대 58입) 한기빈(공대 52입) 이영복(공대 59입) 이한승(의대 59입) 이선명(문리대 59입)
07	워싱턴주 (WA)	18 한단섭(공대 49입) 전병택(상대 69입)이경희(\$80 약대 82입) 황수택(의대 65입) 이태수(문리대 64입) 서공주(음대대학원 59입) 윤재명(의대 65입)김영일(공대 53입) 이대원(사범대 58입) 유성렬(공대 72입) 전계삼(공대 40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채태욱(법대 55입) 최두환(공대 83입) 허유환(사범대 57입) 고희선(법대 64입) 이재수(공대 65입) 조준범(행정대학원 69입) 육복수(공대 69입) 이인광(약대 77입) 전중희(공대 56입) 산용선(공대 55입)박승근(의대 59입) 탁순덕(사범대 57입) 조시호(문리대 59입) 유금영(법대 50입) 김성철(의대 61입)
08	휴스턴 (HOUSTON)	24 최광웅(문리대 73입) 이은섭(문리대 53입) 노인규(의대 57입) 이규진(약대 60입) 명인성(공대 50입) 박민자(사범대 58입) 김충열(의대 5입) 최관일(공대 54입) 강영빈(\$120 문리대 58입) 이진현(의대 67입) 김기수(사대 70입) 김광웅(공대 60입) 황해신(상대 61입) 김영창(공대 64입) 이길영(? 59입)
09	달라스 (DOLLAS)	4 권혁초(사대 52입)김태훈(공대 57입) 김인호(공대 47입) 이범규(약대 61입)
10	미네소타 (MN)	13 강선명(상대 48입) 권승림(공대 52입) 김태환(의대 58입) 권학주(치대 59입) 왕규현(의대 56입) 박상빈(공대 71입) 문일지(공대 61입) 김권식(공대 61입) 남세현(공대 67입)조형준(문리대 62입)변우진(인문대 81입) 김필주(농대 56입) 송창원(문리대 53입)
11	조지아 (GA)	15 백낙영(상대 61입) 계광무(공대 63입) 김용자(사범대 64입) 김동건(문리대 48입) 오경호(농대 60입) 김만복(문리대 72입) 유우영(의대 61입) 조덕성(공대 71입) 장병건(보건대학원 64입) 이철남(의대 50입) 백성식(약대 58입) 이관호(공대 45입) 윤민자(음대 65입) 주종관(약대 60입) 문종현(사회대 84입)
12	아리조나(AZ)	9 장원석(농대 68입) 오덕겸(의대 58입) 박성숙(간호대 59입) 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서기권(공대 70입) 박양재(약대 48입) 이용길(의대 62입)최상호(공대 53입) 유기석(문리대 60입)
13	유타 (UT)	4 김 여(\$50 문리대 54입) 이정민(문리대 48입)김이기(문리대 58입)김선원(문리대 59입)
14	하와이 (HI)	14 임양수(\$50 사범대 62입)김승태(의대 63입) 구자현(사범대 53입) 구해근(문리대 60입)최치덕(법대 59입) 김용진(공대 50입) 신동인(공대 58입) 김동립(사범대 55입) 박성재(상대 49입)박만상(\$100, 사대 50입) 황재만(농대 71입) 김창원(공대 49입) 전영표(문리대 55입) 김성열(의대 68입)
15	오레곤 (OR)	12 이철민(공대 50입) 조형원(수의대 55입)최태인(사범대 59입) 성성모(사범대 67입) 한영준(사범대 ?) 김상만(음대 46입) 나재관(공대 72입) 장윤자(공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김상수(상대 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한병기(음대 63입) 박성주(\$120, 공대 47입), 왕경자(음대 54입), 배병욱(음대 58입), 류광현(추가 \$100, 문리대 58입), 김봉진(\$100, 공대 68입)최덕상(농대 73입)
16	기타 (서부)	20 이학은(약대 57입)박종익(사범대 83입) 류광현(문리대 58입) 최원웅(약대 62입) 안동욱(자연대 72입) 이순환(의대 53입) 김갑견(의대 54입) 박용호(의대 59입) 홍지호(공대 53입)권수영(의대 69입) 김병호(의대 69입) 김우홍(의대 55입) 김현철(의대 57입) 김효영(의대 52입)
17	기타 (중부)	2 이희백(의대 55입) 윤태준(의대 59입)
18	기타 (동부 & 캐나다)	19 이수정(음대 88입) 한용현(의대 48입) 박경희(음대 57입) 박종선(공대 60입) 이종진(공대 55입)김주웅(의대 63입) 윤영욱(의대 57년입) 김정권(의대 55입) 김수산(의대 52입) 김연국(수의대 74입) 오인석(법대 58입) 김기욱(공대 79입) 조무정(약대 62입) 조동립(의대 56입) 김미현(문리대 52입) 손정호(의대 53입)정구영(의대 50입) 오서일(의대 70입) 캐나다 이병영(\$100, 공대 48입)
19	필라델피아(PA)	55 서종민(공대 64입)이정필(의대 58입)김재술(약대 62입)이행우(? 50입)김용국(의대 58입) 김사영(약대 56입) 주기복(수의대 68입) 강영배(수의대 59입) 김태영(약대 55입)정학량(약대 56입) 이승환(공대 56입) 문상규(의대 62입) 임광상(공대 57입) 장 호(문리대 69입) 박장생(의대 54입) 지재원(사범대 68입) 이만택(의대 58입) 최 환(공대 68입)송영두(\$100, 의대 56입) 오진석(치대 56입) 이규호(공대 56입) 이윤성(수의대 81입) 김화섭(의대 55입)김영우(공대 55년입) 심기련(상대 57년입) 이재희(상대 88입) 이성숙(가정대 74입) 조영호(음대 60입) 이상민(문리대 58입) 윤정나(음대 57입) 김세경(미대 62입) 김주진(법대 54입) 안지영(문리대 71입) 문대옥(의대 73입) 전방남(상대 73입) 김중규(치대 69입) 진병학(의대 57입) 서진석(의대 62입) 유창남(의대 58입) 전무식(\$50, 수의대 61입) 염극용(의대 60입) 김형달(의대 70입)김선운(문리대 57입) 홍수웅(의대 59입) 재갈은(문리대 59입) 심안섭(의대 73입) 강준철(사대 59입) 김국간(치대 70입) 남시우(공대 61입) 박문희(의대 52입) 양우택(의대 58입) 김현영(수의대 58입) 원종민(약대 61입) 송영복(약대 66입) 김정숙(사대) 김은하(의대 60입) 이은희(\$50, 의대 54입)도은희(농대 61입)최인섭(의대 72입)김성빈(문리대 59입) 강경식(문리대 55입) 김경석(문리대 70입) 박현자(음대 62입)김문소(농대 61년입) 두선자(간호대 75년입) 한병의(문리대 60입) 인준식(사대 55입) 김중성(경영대 76입) 배성호(의대 65입) 박종건(의대 62입) 채도경(의대 59입) 권이덕(공대 68입) 이희규(공대 69입) 윤상대(수의대 62입) 김효영(의대 52입) 문형성(의대 65입) 김영일(사대 59입) 이재신(공대 57입) 김재호(상대 56입) 김우경(음대 ?) 김병국(공대 71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장태(문리대 63입)최영훈(공대 65입) 정경옥(의대 60입) 김순규(문리대 53입) 변희경(음대 66입) 강김원(의대 59입) 여재홍(공대 67입) 김영호(치대 45입) 안광원(의대 53입)
20	뉴잉글랜드 (MA, RI)	36 오계숙(미대 59입) 배규태(상대 61입) 설원중(의대 60입)박혜승(음대 68입) 이상강(의대 70입) 오명순(가정대 69입) 배규영(사범대 68입) 박세화(의대 76년졸) 자일성(의대 61입)
21	하트랜드	19 신두식(의대 58입) 김호원(치대 52입) 임하진(의대 79입) 이상문(상대 57입) 구명순(간호대 68입) 오태요(의대 56입)김용환(의대 45입) 장명우(치대 83입) 오태요(의대 56입) 광노환(문리대 52입)
22	펜실베이니아	1 이수경(자연대 81입)
23	캐롤라이나	5 정양수(의대 60입) 박태진(의대 62입) 한광수(의대 57입) 정일환(의대 63입)한광수(의대 63입)
<b>계</b>		<b>1085</b>
		<b>66, 561</b>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 약정)**

- 방은호 (워싱턴 DC · 약 42입)
- 윤정옥 (뉴욕 · 약 50입)
- 김영덕 (뉴욕 · 공 53입)
- 이병준 (남가주 · 상 55입)
- 김병수 (뉴욕 · 상 55입)
- 최수용 (뉴욕 · 상 55입)
- 유창남 (뉴욕 · 의 58입)
- 오인석 (뉴욕 · 법 58입)
- 이전구 (뉴욕 · 농 60입)
- 임낙균 (남가주 · 약 64입)

**당 회계연도 출연자**

(2002년 1월 19일 ~ 2003년 5월 28일)

- 방은호(약대 45줄) \$2500
- 정 태 (의대 57입) \$1000
- 이용락 (공대 53줄) \$1000
- 노명호 (공대 61입) \$500
- 조상근(법대 69입) \$300
- 조시호(문리대 59입) \$500
- 정정수 (의대 56입) \$500
- 워싱턴DC 지역동창회 \$510  
(조수미 CD 34장 판매대금/  
CD 판매 총액 300장 총 \$4500)
- 한만섭(공대 49입) \$200
- 임춘수(의대 57입) \$200
- 고영련(사범대 57입) \$100
- 윤재명(의대 65입) \$200
- 이경립(상대 64입) \$200
- 이소정 (음대 84입) \$200
- 변만식 (사범대 49입) \$100
- 장병건 (보건대학원64줄) \$250

**母校와 後進을 위한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基金을 출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3년 5월 28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연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CA)	고영련(100) 노명호(500) 한홍택(1,000)황석우(100) 정인환(200)권길상(100) 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권(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석우(100)	24	359,150
		이양숙(200) 박우선(200)	2	400
03	샌프란시스코	김양주(300)	1	300
04	뉴욕 (NY, NJ, PA 일부, CT)	조상근(300) 이경립(200) 김기훈(250) 최수용(5,000) 김석식(100) 진성호(19,400) 추재욱(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 허리훈(1,000) 허선행(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찬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립(300) 방준재(300) 주익근(300) 남상태(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형(200)김연석(200)동형근(200) 리준국(150) 황진환(100) 조대영(100) 최병렬(100) 심기려(100) 유진형(50)	41	92,1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임춘수(200) 정태(1000)이용락(1000) 이소정(200) 소진문(100) 임춘수(200) 이용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종수(200) 구자원(200) 이기훈(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방은호(2,500) 변만식(100) 지역동창회(510, 조수미CD 34장 판매대금) 방은호(5,000)	18	7,100
06	워싱턴 DC(MD, VA)	지역동창회(3,990:조수미 CD 266장 판매대금) 이규남(150) 방은호(5,000) 박유수(1,000) 박용걸(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균(50) 이선명(50)	13	18,700
07	워싱턴주(WA)	한만섭(200) 윤재명(200)	2	400
08	휴스턴(HOUSTON, TX)	조시호(500) 강영빈(500) 박승균(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6	1,700
09	달라스(DALLAS, TX)	김인호(200)	1	200
10	미네소타(MN)	송창원(100)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6	800
11	조지아(GA)	장병건(250) 장병건(100)	2	350
12	아리조나(AZ)	박양세(100) 박양세(200)	2	300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이태호(100) 익명(300)	2	400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이희백(1,000)	1	1,000
18	기타(동부&캐나다)	한광수(333.33)	1	333.33
19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정정수(500)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11	4,600
20	뉴잉글랜드(MA)	도운희(200) 이재신(3,000) 이금하(200) 정태진(100) 김재호(100)	5	3,600
21	하트랜드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4	1,350
22	펜실바니아			
	특별 후원금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화1점: 현재 경매 중)	4	21,560
	<b>총 계</b>	▣ 당회계연도 납입자 16명 - \$ 8,260	146	514,343.33

**약정하신 동문들**

\* 불드체는 금회계연도 납입자임.  
\* 작년도 집계표에서 강영빈씨를 중부 기타지역에서 텍사스주로 이동하였음.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12,500납입) 서동영(남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남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10,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기타 중부 /\$500중 \$500 납입)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11명 (7명 납입)	\$260,500 (\$44,000 납입)
기타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3명	
<b>총 합 계</b>		<b>153 명</b>	<b>730,843.33</b>

## 祝發展

개척자 동문가족들의 소식을  
기록하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이민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며 뉴욕의 변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

20년간 거주하여 브라질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남미지역의

정치 · 경제문제와 동문들의 남미지역의 투자

문제에 성심껏 자문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봉원 변호사**

**BONG W. YEON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1261 BROADWAY, SUITE 201

NEW YORK, NY 10001

☎ 212-779-1828

FAX 212-779-0820

E-mail : yeonbw@aol.com

연봉원(문리대 61년 입)

##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 부	회 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김종윤 B:914-714-0587 F:914-686-0186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남가주	곽 철 B:213-352-9669 F:213-525-9656	홍옥자 H: 818-836-0588
샌프란시스코	정조용 B:408-496-6838 H:408-972-4026	임승래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장기남 F:312-357-1002 H:630-321-1943	변남순 H:847-291-9375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H:508-366-2743 B:508-389-1760<ext.3038>
조지아	김재철 H:771-579-5615 F:770-944-0415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양규현 H:952-941-7637	김권식 B:952-646-0236 H:952-646-0290
워싱턴 DC	이영목 B:703-578-6806 H:703-748-0269	유홍렬 B:202-283-5247 H:703-204-2798
워싱턴주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고희선 H:425-787-0292
휴스턴	박진섭 H:713-932-6260	이재용 E-mail:Paul.j.lee@earthlink.net
달라스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윤성수 H:480-283-9806 yunss@cox.net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하와이	김승태 H:808-983-8375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중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라제관 B:503-696-3422 H:503-645-5550
필라델피아	김용식 Fax:610-664-3447 C:215-771-2957	신영근 F:610-917-7005 H:610-519-9695
하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장명우 F:402-472-5290
중부펜실베이니아	이재웅 H:814-235-2809	박종훈 H:814-278-8033
캐롤라이나	김기현 B:919-560-6451 H:919-560-5012	Fax : 919-560-5012
캐나다/온타리오	임동순 H:905-278-2257	이이병 B:416-385-0107 H:416-250-6908
캐나다/밴쿠버	유동성 H:604-435-8937	김현승 B:604-415-9011 H:604-945-5634
캐나다/에드먼턴	조금희 B:780-492-4230 F:780-492-8206	조성호 H:780-483-7630
로키마운틴즈	김봉진 C:303-229-3332 F:303-623-2910	김명호 H:303-773-0534 O: 303-671-0304
오하이오	최인갑F:614-447-3844 H:614-436-5780	정길화 H:614-868-5697

## 동문 사업체 안내

<p><b>강령</b></p> <p>Pusan Pipe America 이병준 (상 55인) (562) 692-0600 Sant Fe Springs, CA</p> <p><b>골프클럽</b></p> <p>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총 60인) (212) 564-2255 New York, NY</p> <p><b>공인회계사</b></p> <p>Young Sik Oh Cpa 오영식 (법 72인) (201) 569-1177 Englewood Cliff, NJ</p> <p>이법선 (상 48인) 이경림 (상 64인) (212) 768-9144 New York,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 (문 67인) (212) 695-0206 New York, NY</p> <p>Deloitte &amp; Touche LLP 김낙구 (상 67인) (213) 688-5585 Los Angeles, CA</p> <p>Wesley Y Chung 정일화 (상 55인) (212) 736-6590 New York, NY</p> <p>이규선 (상 68인) CPA, CFA (703) 642-2900 Annandale, VA</p> <p><b>공익사업</b></p> <p>IBECONS INT L 김재철 (총 58인) (212) 460-2815 New York, NY</p> <p><b>교역</b></p> <p>진리교회 김태철목사 (공대 76인) (718) 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p>	<p><b>국제금융</b></p> <p>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 (상 55인) (212) 750-7215 New York, NY</p> <p>PTC International 이태영 (법대 60인) (410) 962-8409 Baltimore, MD</p> <p><b>금고</b></p> <p>Alco Lock &amp; Safe 정인식 (상 58인) (212) 867-3377 New York, NY</p> <p><b>무역</b></p> <p>Nina America Inc. 강석권 (법 61인) (212) 683-6462 New York, NY</p> <p>EAC Trading Inc. 윤정국 (약 50인) (516) 466-5678 Great Neck, NY</p> <p>Oregon Hide Co. 조형원 (수 55인) (503) 620-1001 Lake Oswego, OR</p> <p>G. A. Marketing Company 지인수 (상 59인) (310) 216-7929 Los Angeles, CA</p> <p><b>변호사</b></p> <p>연봉원 변호사 연봉원 (문리대 61인) (212) 779-1828 NEW YORK, NY</p> <p>최형무 변호사 최형무 (법대 69인) (718) 463-3500 Flushing, NY</p> <p>한국서적 전문 서울서점 권혁진 (문 60인) 창립 (773) 463 7756</p>	<p>김용화 변호사 김용화 (법대 69인) (212) 869-7000 New York, NY</p> <p><b>병실 내과</b></p> <p>Joon J Bang, MD 방준재 (의 63인) (718) 768-1264 Brooklyn, NY</p> <p><b>병실 수의사(동물병원)</b></p> <p>Charles H. Sung, DVM DVM 성흥환 (수의 75인) (330) 534-8383 Hubbard, OH</p> <p><b>병실 심장내과</b></p> <p>Rim and Sul, MDPC 임준수 (의 57인) (313) 882-2922 Grosse Pointe.</p> <p><b>병실 심장외과</b></p> <p>Kenneth Song 송관호 (의 58인) (212) 423-4817 New York, NY</p> <p><b>병실 위장내과</b></p> <p>Chang Ho Suk 석창호 (의 66인) (718) 461-6212 Flushing, NY</p> <p><b>병실 치과</b></p> <p>Sung Bo Hong, DMD 홍성보 (치 63인) (201) 871-0007 Tenafly, NJ</p> <p><b>보석</b></p> <p>Gold Plus 서재숙 (골 65인) (212) 354-8988 New York, NY</p> <p><b>보험</b></p> <p>KOI 종합보험 김성희 (상 67인) (213) 387-5252 Los Angeles, CA</p>	<p>한미종합보험 박달순 (상 59인) (718) 458-3551 Jackson Hts, NY</p> <p>한영종합보험 한영우 (공 59인) (718) 463-9100 Flushing, NY</p> <p><b>부동산</b></p> <p>Cosmo Realty 이재덕 (법 60인) (201) 944-4949 Palisades Park, NJ</p> <p>C-21 Infinity 이재원 (법 60인) (201) 944-5353 Palisades Park, NJ</p> <p>REMAX (회망부동산) 최 호 (문 61인) (201) 461-3525 Palisades Park, NJ</p> <p>Gateway Title Co. 박인수 (총 64인) (213) 388-3333 Los Angeles, CA</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 (사대 49인) (703) 750-0000 Annandale, VA</p> <p>로얄 부동산 염무광 (문 65인) (800) 474-0200 SKOKIE, IL</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 (농대 58인) (206) 972-3675 Everett, WA</p> <p><b>설계</b></p> <p>Booming World Design &amp; Engineering 김상의 (공 49인) (310) 539-7760 Court Lomita, CA</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 (공대 71인) (718) 392-0111 L.I.C. NY</p>	<p><b>업적</b></p> <p>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 (약 50인) (562) 602-6567 South Gate, CA</p> <p><b>운수통관</b></p> <p>S. Y. Shipping 김종표 (법대 58인) (592) 467-5455 Artesia, CA</p> <p><b>용지</b></p> <p>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 (미 74인) (213) 368-5705 Los Angeles, CA</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 (문리 57인) (213) 368-9000 Los Angeles, CA</p> <p><b>의료기구</b></p> <p>MASH 심상은 (상 54인) (213) 487-5695 Los Angeles, CA</p> <p><b>외투</b></p> <p>Jeffrey Allen Corp. 이기영 (농 70인) (201) 863-5160 Secacus, NJ</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광 (상 61인) (201) 440-8500 Moonachie, NJ</p> <p><b>인터넷 사업</b></p> <p>KS E biz 장세완 (농 69인) (201) 722-4796 River Vale, NJ</p> <p><b>선물점</b></p> <p>MODERN GIFTS &amp; DUNDEE SHISEIDO 지명식 (사대 65년 인)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p>	<p><b>인터넷 서점</b></p> <p>Aladdin USA 이형렬 (문 79인) (323) 692-9888 LA, CA</p> <p><b>지부지 부동</b></p> <p>Knox-Seeman Whse, Inc. 서동영 (사대 60인) (310) 327-1006 Gardena, CA</p> <p><b>전자</b></p> <p>Amkor Anam 정흥택 (상 61인) (214) 580-1879 Philadelphia, PA</p> <p><b>부동산</b></p> <p>Smithtown Wines &amp; Spirits 이지원 (문리 73인) (613) 265-1121 Smithtown, NY</p> <p><b>의식</b></p> <p>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 (상 57인) (718) 358-0538 Flushing, NY</p> <p><b>진료실</b></p> <p>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 (보건대학원 71인) (718) 353-6207 Flushing, NY</p> <p>브론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 (약대 63인) (718) 733-1399 Bronx, NY</p> <p><b>화장품</b></p> <p>Revicci (레비치) 신경택 (약대 52인 · 화장품, 약품개발) (973) 994-1421 Short Hill, NJ</p> <p><b>화원</b></p> <p>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 (골 65인) (800) 2525-way New York, NY</p> <p>Seward Florist 김수환 (간호 72인) (626) 287-6161 San Gabriel, CA</p>
---	---	--	--	--	--

# 금년에도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와 동창회보 간행을 후원하여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2. 7. 1 ~ 2003.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주소 : \_\_\_\_\_
5. 새 자택 주소 : \_\_\_\_\_
6. 새 자택 전화번호 \_\_\_\_\_ Fax. \_\_\_\_\_
7. 직장주소 : \_\_\_\_\_
8. 직장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
10. 동문 자료 은행구축과 모교와 조국을 위한 지적 봉사단의 자료를 위하여 귀 동문의 자세한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6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재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2. 7. 1 ~ 2003. 6. 30 구독료 \$6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

No. (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수표 보내실 곳 : SNU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2.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 지역동창회

**1**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 \$60(2002.7. 1. ~ 2003. 6. 30 회계년도)을 납부합니다.

**2**

## 미주 관악후원회 4차년도 후원 이사회비 出捐書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4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60 이상만)

**3**

## 母校와 後進을 위한 기금 出捐書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 총액(금액명기 \$ )
- ①일시불 ( )
- ②3년 분할 납입 ( )
- (\$ )씩 (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

Check Payable to :

**SNUAUSA(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ameritech.net